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의류학박사 학위논문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의미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남 혜 진

## 국문초록

변화와 창조를 거듭하고 있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새로운 아이템이나 현상을 묘사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모던이다. 이는 단순히 현대라는 시간적 개념 이외에 과거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특성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던을 당대의 새로움을 반영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21세기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의미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했다. 다양한 모던의 개념을 고찰하고, 더불어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그 함축된 의미를 연구하는 것은, 새로움과 변화를 거듭하는 패션분야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직관하며, 미래를 조망해보는 창의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고, 둘째, 현대 패션 미디어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 착장 방식, 인물의 특성 및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밝힌다. 셋째,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의 의미를 도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서적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고, 21세기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000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 ‘modern fashion’의 키워드로 도출된 보그와 뉴욕타임즈의 패션 관련 기사에서 모던과 유의어나 반의어로 사용된 단어를 도출하여 언어관계분석하고,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모던의 유의어와 반의어와 비교하여,

패션에서의 모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과 착장 방식, 디자이너,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그리고 모던으로 묘사된 라이프스타일이 패션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21세기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모던의 다양한 개념과 특성을 규명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던의 대표적인 미학적 특성은 과학, 산업화 및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발현된 사고방식과 태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공식적인 참신성을 지녔고, 특정 시대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더니티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대의식으로, 지식과 과학발달로 인해 나타난 사회변화가 개인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제 자신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변화, 발전, 역사 등과 관련시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더니즘에 나타난 미학적 특성은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신소재를 사용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간결성, 비 장식적인 특성을 보였으며, 산업화 시대에 맞춘 사고방식과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기능과 합리성의 가치를 신봉하고, 대량생산으로 인해 규격화, 국제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19-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대표적 표현특성은 대량 생산을 위한 표준화, 합리주의적 기능성, 미의 보편성 추구 그리고 실용적이고 단순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티의 특성은, 근본적으로는 19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기존 규칙들의 붕괴 그리고 전 세계에 나타난 급진적 흐름에 기반한 것으로 대량생산에 의한 유사성과 평등의 경향, 자연스러운 조화와 눈에 띄려는 모순된 욕망의 표현, 가벼움과 유동적 움직임추구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와 거리를 두거나, 꾸민 흔적을 노출시키지 않는 연출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패션에서의 모더니즘도 일반적 의미의 모더니즘처럼 조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모더니티의 개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경

계가 흐린 상태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패션에서의 모더니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하고,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세밀하게 구현하며, 산업화가 가져다 준 모던한 삶을 포착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1세기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의미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던의 유의어와 반의어 분석으로 도출한 모던의 개념은, 형태나 기능이 실용적이고, 독창성이 있으며, 이를 정교하거나 세련되게 혹은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었다.

둘째, 모던은 경계 없는 융합과 절충을 통한 독창성을 의미했다. 이는 이질적 요소 간의 결합과 전통과 현대의 결합, 여러 소재의 장점을 살린 결합, 너무 새 것처럼 보이거나 너무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중용의 의미로 나타났다. 또한 관습, TPO, 지역, 인종, 계절, 시간, 성별 등에 구애 받지 않는 다양성과 포용의 의미로 표현되었다.

셋째, 모던은 신체와 정신의 편안함을 아우르는 기능성을 의미했다. 이는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편리한 이동성과 활동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짧은 길이의 실루엣과 다리의 노출은 모든 것을 모던하고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고, 미적 관점이 활동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와 군중 속에서 소외나 불안을 느끼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패션이 모던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얼굴이나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후드나 헤드기어 혹은 큰 사이즈의 담요나 텐트 같은 형태 그리고 갑옷이라는 의미로 안전을 위한 갈망을 나타내었고, 핸드폰이 없거나 불안할 때 손으로 계속 만

지면서 안정을 주는 피켓 액세서리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21세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패션은 아름다움 추구를 넘어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가벼움과 자연스러움은 현대 패션 미디어에서 아름다움의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21세기 현대 패션에서는 모던의 주요 의미가 가벼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재, 착장과 사고방식 모두에서 가벼움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경 쓰지 않은 듯 멋스럽고, 편안하며, 단순하고 실용적인 의미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에 대한 긍정이 모던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단점이나 약점을 감추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인체 변화에 대한 긍정의 의미였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다섯째, 현대 미디어에서 모던 패션은 사회개혁을 위한 민주주의적 도구로 표현되고, 자신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계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윤리의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천연소재, 재활용, 오가닉 소재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패션과 수공예적인 전통 기술의 응용, 빈티지 의상의 업 사이클링 현상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새로운 주요 의미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시위 혹은 항의였는데, 이는 성폭행 반대, 연료 가격 상승과 소득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만,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패션산업 등에 대한 반기를 들기 위해 색상을 단채로 맞춰 입은 패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은 아직 그 특성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모호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서 모던으로 일컬어지는 특정 디테일이나 외양의 특성 그 자

체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새롭게 나타나는 패션에서의 참신성과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과, 문헌고찰이 아닌 미디어 분석을 통한 실질적 의미를 고찰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패션 텍스트는 이미지가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는 패션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시대별 감각, 기술 및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 등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써, 이에 대한 분석은 트렌드에 맞는 패션 상품 기획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산업적 측면의 의의가 있다.

셋째, 현대 패션 미디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패션과 소비자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라이프스타일과 미적관점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밀하고 명확히 들여다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혀낸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현대 패션 미디어에서 모던은 시간적인 개념이나 유행의 의미를 넘어, 스타일이나 착장의 미적, 기능적, 심리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성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한마디로 이토록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패션에서의 모던의 사용은 이를 대체할만한 또 다른 단어가 생기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현대인의 심리가 앞으로 모던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그 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

**주요어** :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 패션 미디어, 보그, 뉴욕타임즈

**학 번** : 2016-30461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5
제 3 절 연구 방법 .....	7
1. 문헌연구 .....	7
2. 내용 분석 .....	8
제 2 장 모던과 20세기 패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3
제 1 절 모던의 개념과 특성 .....	13
1. 모던의 어원과 미학적 특성 .....	13
2. 모더니티의 개념과 철학적 배경 .....	16
3. 모더니즘의 개념과 미학적 특성 .....	19
제 2 절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	24
1.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티의 표현특성 .....	25
2.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표현특성 .....	30
제 3 장 유의어와 반의어 분석을 통한 21세기 패션 에 나타난 모던 .....	36
제 1 절 보그 .....	36
1.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유의어 .....	37
2.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반의어 .....	38



제 2 절 뉴욕타임즈 .....	39
1.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유의어 .....	40
2.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반의어 .....	40
제 3 절 유의어와 반의어를 통해 도출한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개념 .....	41
제 4 장 보그와 뉴욕타임즈에 나타난 21세기 패션 의 모던 표현특성 .....	43
제 1 절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44
1. 활동성이 반영된 실루엣 .....	46
2. 가볍고 친환경적이며 혁신적인 기능성 소재 .....	49
3. 트렌드를 반영하는 색상 .....	54
제 2 절 패션 아이템의 착장 방식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	58
1. 조화와 중용 .....	58
2. 전통을 넘어선 독창성 .....	59
3.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멋 .....	62
4. 신념과 향의를 전달하는 메시지 .....	63
5. 멀티 레이어링 .....	64
제 3 절 인물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	66
1. 명석하고 다재다능하며 뛰어난 소통 능력 .....	67
2. 여유로우며 주체적인 태도 .....	68
3.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 감각 .....	69
제 4 절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73
1. 고정관념에 대한 경계 와해 .....	73

2. 소셜 네트워크 발달에 따른 국제화와 융합 .....	76
3. 심신의 보호욕구 .....	78

**제 5 장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의 의미**  
 ..... 82

<b>제 1 절</b> 경계 없는 융합과 절충을 통한 독창성 .....	82
1. 성별, TPO, 관습, 계절의 경계 와해 .....	83
2.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과 절충 .....	84
<b>제 2 절</b> 절 신체와 정신의 편안함을 아우르는 기능성 .....	86
1. 디자인 및 착장의 단순성과 실용성 .....	86
2. 편리한 이동성 .....	87
3.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보호와 진정 .....	89
<b>제 3 절</b> 절 가벼움과 자연스러움의 미 .....	91
1. 소재와 표현의 가벼움 .....	91
2. 신경 쓰지 않은 듯 편안한 멋 .....	93
3. 자연스러움에 대한 긍정 .....	94
<b>제 4 절</b> 절 자신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계몽 .....	96
1. 윤리의식과 지속가능성 .....	96
2.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시위 .....	98

**제 6 장 결론** ..... 100

**참고문헌** ..... 106

**Abstract** ..... 132

## 표 목 차

[표 1-1] 연구 흐름도 .....	12
[표 2-1] 모던의 유의어와 반의어 빈도 분석 .....	42
[표 3-1]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기사의 빈도 .....	43
[표 4-1]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	57
[표 4-2] 패션 아이템의 착장 방식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	66
[표 4-3] 인물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	72
[표 4-4]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	81

## 그 립 목 차

[그림 1-1] 보그에 나타난 ‘modern fashion’ 기사의 빈도 .....	37
[그림 2-1] 모던 드레스 .....	45
[그림 2-2] 모던 트레이닝 수트 .....	45
[그림 2-3] 모던 슈즈 .....	45
[그림 3-1] 짧은 실루엣 .....	49
[그림 3-2] 타이트한 실루엣 .....	49
[그림 3-3] 유동적 실루엣 .....	49
[그림 4-1] 가벼운 소재 .....	54
[그림 4-2] 현대 기술과 고대 공예의 혼합 .....	54
[그림 4-3] 일상생활용 반짝이는 소재 .....	54

[그림 5-1] 모던으로 묘사된 white 색상 .....	56
[그림 5-2] 모던으로 묘사된 baby pink 웨딩드레스 색상	56
[그림 6-1] 이질적 요소를 조화하는 모던 착장 .....	65
[그림 6-2] TPO에서 자유로운 모던 착장 .....	65
[그림 6-3] 메시지 전달 기능의 모던 착장 .....	65
[그림 7-1] 모던으로 묘사된 셀레나고메즈의 능력 .....	71
[그림 7-2] 미셸오바마의 여유로우며 주체적인 태도 .....	71
[그림 7-3]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의 디자이너 버질아블로	71
[그림 8-1] 다양한 체형과 인종의 모델 .....	75
[그림 8-2] LVMH의 브랜드를 이끄는 최초의 흑인 여성 리한나 .....	75
[그림 9-1] 샤넬의 카피를 알린 여론의 범정 .....	78
[그림 9-2] 양성애자들의 앱 그라인더에서 열린 조나단앤더슨 의 패션쇼 .....	78
[그림 10-1] 모던 유목민을 위한 크레이그 그린의 텐트 같은 아우터 .....	80
[그림 10-2] 매트리스와 침낭 소재의 메종마르시엘라 재킷	80
[그림 10-3] 정서적 안정을 주는 피젯 주얼리 .....	80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패션은 새로움에 대해 끊임없이 탐닉하고, 의복과 액세서리는 물론 각 시대별 향유된 세련된 태도까지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Hollander, 1993). 미세한 변화와 창조를 거듭하고 있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새로운 아이템이나 현상을 묘사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모던(modern)인데, 이는 단순히 현대라는 시간적 개념 이외에 과거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특성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뉴욕 현대 미술관(MoMA)의 초대관장 알프레드 바(Alfred H. Barr, Jr.)는 모던을 ‘진보적인 것, 독창적인 것, 어려운 것, 확실한 가치 이상의 것’이라고 정의하며(정혜선, 2017), 모던이 지닌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패션 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은 모던은 태도(attitude)이고, 모던한 사고방식이란 옷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유행이 지난 옷을 TPO를 넘어 새롭게 다시 착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Comita, 2002). 또한 이탈리아 보그(vogue)의 편집장 프랑카 소짜니(Franca Sozzani)는 모던은 오늘날 가장 흔하게 남용되는 형용사들 중 하나이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모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와 관련이 있고, 거의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약간은 미래적인(almost unexpected and slightly futuristic)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Sozzani, 2011). 이처럼 모던은 예술과 패션 분야에서 옷을 입는 방식 혹은 사람의 특성을 표현할 때에도 다양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

다.

모던은 컨템퍼러리(contemporary)라는 단어와 혼용되어 구분이 모호해 보이기도 하지만, 예술분야에서의 컨템퍼러리는 일반적으로 예술사의 한 양식이 아니라 각각의 매 시기에 나타나는 최신의 예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거나, 제2차 대전 후의 미술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고(유연식, 2013), 단순히 새로움을 의미하는 뉴(new)와는 그 깊이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패션에서 모던이라는 단어로 묘사된 표현특성의 변화를 탐구하는 일은 당대의 가장 새롭고 시대 의식적이었던 스타일 혹은 사상 및 기술, 트렌드 등을 이해하고, 패션이 추구해온 이전과는 다른 가치나 새로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산업 제품이나 건축 등의 분야에서는 디자인이 전문적으로 탄생한 산업혁명 시기부터 1990년대까지의 디자인 역사를 모던 프로젝트(modern project)로 서술하거나(Kashiwagi, 1992/1999),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미술공예운동과 철물건축의 발전, 아르누보의 종합’인 모던 무브먼트(modern movement)로 보며(Pevsner, 1936/2013), 모던의 표현특성을 분석하고, 그 개념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모던 디자인을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서구 예술이나 디자인의 결과물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 지역 및 사건에 의한 고유 명사로서의 Modern Design이며, 이를 벗어나야한다(조지선, 채승진, 2011)는 성찰과 함께 디자인의 역사를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앙리 반데 벨데(Henry Van de Velde), 헤르만 무테지우스(Herman Muthesius), 피터 베렌스(Peter Behrens) 그리고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등의 대표적 인물들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법론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처럼 타 디자인 분야에서는 모던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것은 물론 그 표현특성과 변화의 흐름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있어왔다. 반면에 패션에 나타난 모던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19세기 자본주의 및 산업화가 패션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다룬 모더니티 그리고 20세기를 포괄한 시대사조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패션에 반영된 요소 분석으로 한정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모더니즘 시대의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모더니즘 예술 및 건축 디자인과 패션의 특성을 비교하거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연구의 주제가 주로 시각적 자료들의 이미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조형성 도출에 편중된 경향, 그리고 연구의 범위가 20세기 패션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점을 보였다. 특히 가장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분석범위도 주로 1960년경부터 2000년 사이의 패션을 다룬 것으로, 2000년 이후의 패션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포함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특성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은숙, 박재옥(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 패션 트렌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21세기 초에 나타나긴 했지만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영향원이 등장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21세기 패션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원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1세기 현대 패션은 19세기 유럽사회가 20세기 근대로 이행하며 겪었던 변화 이상으로 소재, 기술, 스타일, 사상 면에서 격렬하게 새롭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이슈를 실시간으로 대변하는 대표적 미디어인 신문과 잡지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관련 텍스트를 바탕으로, 21세기 현대 패션에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움이 과연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패션에서의 모던은 일시적 성격이 강하고, 성(gender)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옷 자체는 조금씩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르게 이야기되며 어휘가 갱신되는 언어의 관점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Butor et al., 2015).

패션에 나타난 새로운 특성에 관한 연구대상은 주로 이미지가 텍스트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점차 텍스트가 패션의 새로운 현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증대하고, 패션시스템에 대한 중추적인 해석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König, 2006). 한편 다양한 미디어의 패션관련 텍스트는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미디어별 고유의 어휘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여겨지는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2017년에 열린 『Items: Is Fashion Modern?』 전시는 패션의 역사에서 이정표적인 주요 아이টে임을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선정하여 전시한 것인데,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서는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인 파올라 안토넬리(Paola Antonelli)가 이를 기획한 과정과 이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위주로, 전시 아이টে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Friedman, 2016). 반면에 패션잡지 보그에서는 전시 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 전시될 아이টে임이 과거 기사에 실렸던 이미지, 큐레이터를 포함하여 전시와 관련한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의 의견도 함께 다루며 조금 더 감성적인 방법으로 이를 전달한다(Remsen, 2017). 패션 저널리즘은 트렌드 정보의 제공을 넘어서 패션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문화적, 산업적 측면의 논평과 사유를 담아내고 이를 대중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미디어의 패션에 대한 시각은 대중의 패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성희, 조규화, 2004). 그동안 패션 저널리즘의 연구는 주로 그 역할과 이슈의 변화양상에 관한 내용(Prisco, 1982; 김영숙, 1996; 김영자, 2002; 노혜은, 2004; 이성희, 조규화, 2004; Sama, 2004; 남수현, 하지수; 2007, 오세정 외, 2007; 정경희, 이미숙, 2016; Coser, 2017; Rodríguez et al., 2017; Carlson & Lewis; 2019)이 지배적으로 나타났고, 패션 저널리즘의 편향성 및 문제점(이성희, 2004; Van de Peer, 2015; Soronen & Mäntymäki, 2018)을 다루거나 패션 텍스트의 문체 특징과 경향(Borrelli,



1997; Rocamora, 2001; König, 2006)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이 특정 잡지나 신문을 대상으로, 각 미디어의 브랜드 별 특성이나 편집장의 개성이 패션 텍스트에 반영되는 경향을 연구하였고, 패션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나 이를 묘사하는 어휘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주로 상업적 이익을 위한 측면으로 해석하는 제한점을 보였다. 따라서 패션 저널리즘에 표현된 시대별 패션의 새로운 현상과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산업적 측면의 논평 외에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과 패션 잡지라는 두 개의 다른 성격의 미디어에서 모던을 묘사하고 있는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21세기 현대 패션에서 모던은 어떠한 표현특성으로 나타나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 목적과 의의

끊임없이 새롭게 출시되는 디자인 제품 및 패션 스타일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모던이다. 그동안 산업 제품이나 건축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는 모던이라는 단어가 지닌 중요성과 모호성을 인지하고 그 개념 및 특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있어왔으나, 패션 분야에서 모던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그 개념보다는 20세기 모더니티,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성 분석에 치중한 경향을 보였다.

21세기에도 현대 패션은 이전에 없던 신기술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고, 모던은 여전히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을 설명하는 용어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그 특성과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던을 당대의 새로움을 반영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현

대 패션에 나타난 새로움의 양상과 모던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서적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에서의 모던 관련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하고,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의미를 도출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2. 현대 패션 미디어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 착장 방식, 인물의 특성 및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밝힌다.**

**연구문제 3.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의 의미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은 아직 그 특성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모호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의 산발적인 단편들을, 신문과 잡지에서 모던으로 묘사하고 있는 패션 기사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한편 모던으로 일컬어지는 특정 디테일이나 외양의 특성 그 자체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새롭게 나타나는 21세기 패션에서의 참신성과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과, 문헌고찰이 아닌 사회문화적 현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다루는 미디어 분석을 통한 실질적 의미를 고찰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신문과 잡지의 기사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하이패션 브랜드 이외에 기성복 브랜드, 영향력 있는 인물과 대중들이 추구하는 모든 패션 스타일과 착장 방법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대 소비자들의 복잡한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패션 텍스트는 이미지가 온전하게 전달할 수 없는 패션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시대별 감각, 기술 및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 등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써, 이에 대한 분석은 트렌드에 맞는 패션 상품 기획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산업적 측면의 의의가 있다.

셋째, 신문과 잡지를 바탕으로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패션과 더불어 변화하는 언어의 의미도 함께 분석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분석이 현재의 패션과 소비자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세밀하고 명확히 들여다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혀낸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 제 3 절 연구 방법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서적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고, 21세기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는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문헌연구

문헌 고찰은 기존 연구물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거나, 연구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채워 넣을 수도 있으며, 기존 연구를 확장시킬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연구물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혹은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틀을 제공하기도 한다(Creswell, 2014/2017).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인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문서적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특히 디자인과 건축분야의 모던 움직임을 처음 다루어 모던 디자인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던 디자인의 선구자들』(Pevsner, 1936/2013)과 『Modernism in design』(Greenhalgh, 1990), 『20세기 디자인』(Woodham. & Jonathan., 1977/2007), 『한 권으로 읽는 20세기 디자인』(Bhaskaran, 2005/2017) 그리고 카시와기 히로시(Kashiwagi Hiroshi)의 『20세기의 디자인』(Kashiwagi, 1992/1999)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의 개념을 탐구한 저명한 학자 칼리니스쿠(Calinescu M.)의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Calinescu, 1987/1993)과 처음 패션분야의 modernity를 연구한 것으로 여겨지는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The Painter of Modern Life』(2010) 그리고 Joanne Entwistle(2000/2013)의 『패션화된 몸』, 올리히레만(Ulrich Lehmann)의 『Tigersprung: Fashion in modernity』(2002), Wilson(2003)의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등의 전문서적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 2.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은 미디어 내용 연구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1952년 베럴슨(Berelson)이 저서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를 출간한 이후로 하나의 분석 도구로 인정받으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커린저(Kerlinger)는 내용 분석을 “변인 측정을 목적으로 체계적이

고, 객관적이며, 수량적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했다(Wimmer & Dominick, 1983/2015).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 및 범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modern fashion’의 키워드로 도출된 보그와 뉴욕타임즈의 기사 중에서, 모던의 표현특성이나 의미가 나타난 유의미한 자료로 한정하였다.

보그의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잡지를 넘어 19세기부터 최신의 시대별 사회현상과 문화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고, 120년간 축적된 다양한 브랜드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으며, 하나의 이미지 해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황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한승희, 2015). 또한 전 세계적인 독자층과 영향력을 지닌 1851년 창간된 미국 뉴욕타임즈는 125개의 풀리처상을 수상한 권위 있는 신문으로써 특히 언론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Columbia Journalism Review)가 신문편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999년 조사에서 미국 최고의 신문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quality ranking of U.S. newspapers”에서도 1위에 올랐으며, WNYC의 2012년 보고서는 뉴욕타임즈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문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The New York Times”, 2020).

### ① 표본 선정

본 연구의 내용 분석을 위한 표본은 1892년 발행초판에서 최신포에 이르기까지 디테일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보그와 1851년 창간한 미국의 대표 신문 뉴욕타임즈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modern fashion’으로 검색된 기사로 선정하였다.

## ② 분석단위의 선정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란 집계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의 최소단위를 의미하고, 결국 내용 분석이란 분석유목에 따라 분석단위들을 분류하고 집계하여 메시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규진, 조미숙, 2008). 분석단위의 세 가지 최소요건은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중첩되지 않아야한다(Titscher et al., 2000/2015).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단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모던이 포함된 문장에서 대등하게 연결된 유의어와 반의어이다. 어휘관계 속에 있는 단어들은 같은 언어 맥락 속에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유의어를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반의어까지도 한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하의관계(‘동물’-‘고양이’), 동의관계/유의관계(‘친구’-‘벗’), 반의관계(‘성공’-‘실패’) 등의 단어들 사이의 어휘관계는 단어의 의미를 기술하는 중요한 기제이다(강범모,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던을 부연 설명하는 유의어와 반의어 분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의어는 모던과 and나 쉼표로 함께 나열되어 문맥상 유의하게 사용된 단어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반의어는 모던과 but 혹은 yet으로 연결되어 문맥상 반의로 사용된 단어들을 수집하였다.

둘째,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아이템의 실루엣, 소재, 색상 등의 조형성, 패션 아이템의 착장 방식, 모던으로 묘사된 디자이너,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 등의 인물에 나타난 특성 그리고 모던으로 묘사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이다.

### ③ 텍스트와 이미지 분석

패션은 시각적인 현상이기에 주로 사진이 그 표현특성을 나타내지만, 패션 텍스트는 패션시스템에 대한 중추적인 해석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패션 저널리즘의 언어변화는 패션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다(König, 2006).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패션 제품을 기술적인 구조, 이미지 구조 그리고 언어적 구조의 서로 다른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는데, 특히 글로 쓰인 패션 텍스트는 시각적인 재현이나 실제 의복과는 대조를 이루며 어떤 부수적인 기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호한 일시성도 나타나지 않으며, 의미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중요성을 언급하였다(Barthes, 1983).

본 연구에서 보그와 뉴욕타임즈에서 ‘modern fashion’으로 검색된 텍스트를 분석한 구체적 방법과 연구의 흐름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 흐름도

4 단계		주요내용
1	대상 범위 및 분석대상 선정	보그와 뉴욕타임즈에서 “modern fashion”의 검색어로 기사를 도출한다.
2	데이터 정제	“modern fashion”으로 도출된 기사 중 주제가 예술, 음식, 인테리어, 장소, 헤어, 메이크업과 관련한 주제나 모던이 기관명(Museum of Modern Art, Tate Modern)으로 언급된 자료를 제외한다.
3	분석단위 설정	1-1. 모던과 and나 쉼표로 연결된 문맥상 유사하게 사용된 유의어 1-2. 모던과 but이나 yet으로 연결된 문맥상 반대의 의미로 사용된 반의어
		2-1.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아이템의 조형적 요소 (실루엣, 소재, 색상) 2-2.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아이템의 착장 방식 2-3. 모던으로 묘사된 인물 (디자이너,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 2-4. 모던으로 묘사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4	내용 분석	1차 자료 : 모던의 유의어와 반의어 분석 + 2차 자료 :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 및 착장 방식, 인물,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 분석 =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의미도출



## 제 2 장 모던과 20세기 패션에 대한

### 이론적 고찰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사회와 문화, 예술의 성격을 통칭하는 일종의 대명사가 되었다 (Kashiwagi, 1992/1999).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에 나타난 21세기 현대 패션에서 사용되는 모던의 실질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앞서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의 학술적 개념과 철학적 배경 그리고 미학적 특성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들이 20세기 패션에서는 어떠한 특성으로 나타났는지 전문서적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21세기 패션에서의 모던의 특성과 의미를 밝히기 위한 기초로 삼고자한다.

### 제 1 절 모던의 개념과 특성

#### 1. 모던의 어원과 미학적 특성

모던의 사전적 정의는, 형용사로서는 ‘먼 과거와는 반대로 현재 또는 최근의 시간’과 관련이 있고, ‘가장 최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또는 장비’로 규정된다. 또한 ‘이전 양식과 대조적으로 현재 사용되는 언어의 형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전통적 스타일과 가치에서 크게 벗어난 예술, 건축 또는 기타 문화 활동의 현재 또는 최근 스타일 동향’을 의미한다. 명사로는 주로 모던스(moderns)로 쓰이며 전통적인 스타일이나 가치에서 벗어

나기를 옹호하거나 실천하는 사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Oxford Living Dictionaries, n.d.).

모던이라는 단어는 2-3세기경 당시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확립함에 따라 이교도 집단인 과거의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즉, 과거와 다른 지금 현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용어였다(조희원, 2011).

중세에는 “최근에, 바로 지금”의 뜻을 지닌 모도(modus)라는 부사로부터 형용사이자 명사인 모데르누스(modernus)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5세기 후반에 전 유럽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된 라틴어로 “qui nunc(다소 최근의), nostro tempore est(우리시대에 속하는), novus(새로운), praesentaneus(현재의)”를 의미하고, 반의어는 “antiquus(고대의), vetus(옛날의), priscus(예전의)” 등이었다(Calinescu, 1987/1993). 또한 중세에는 현재(modernus), 새로운(novus)이라는 용어들이 시간적 의미라기보다는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새로움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고, 시간과 전통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의심받았다. 또한 사상의 독창성은 의미가 없었고, 표절도 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고대성(antiquitas)이 권위, 존엄, 위대함 등과 동의어로 가치 있게 여겨졌다(Gurevich, 1985; Kumar, 1995/2012에서 재인용). 샬스베리의 존(John of Salisbury)의 『Metalogicon』에서 최초로 발견된 샤프트르의 베르나르(Bernard of Chartres)의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12세기 중세의 유명한 격언은 우리가 선조들보다 많이,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선조들의 커다란 위업 때문이라는 의미로, 당대인들보다 고대인들이 오히려 더 우월하다는 뜻이었다(Calinescu, 1987/ 1993).

르네상스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는데, 리카르도 퀴노네(Ricardo Quinones)의 글 『The Renaissance Discovery of Time』에서는 알리기에리 단테(Alighieri Dante),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조반니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등이 그들 사회의 활력

과 부흥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들 자신은 확실히 개척자들이며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정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Calinescu, 1987/1993). 서구 역사를 고대, 중세, 현대의 세 시기로 구분한 것은 르네상스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현대의 시기를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당시의 모던은 여전히 진부하거나 평범하다는 의미로 경시되었으며, 르네상스의 ‘재탄생’은 새로운 것이나 그 자신이 발명한 것이 아닌 고전적 세계의 사상과 실천들을 재건하는 것으로 고대로의 회귀, 즉 재탄생한 과거였다(Kumar, 1995/2012).

모던은 사회학적으로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동안 변화한 유럽의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과 그것에 기초한 삶 자체를 의미하는데(Greenhalgh, 1990), 헤겔(Hegel)은 우리시대를 “가장 새로운 시대”로 이해하고, 현재의 시작을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조금 더 사유적인 동시대인들에게 계몽주의와 프랑스 대혁명이 의미하였던 그런 휴지기로 설정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모던” 또는 “새로운”이라는 표현과 함께 같이 등장한 움직임들은 혁명, 진보, 해방, 발전, 위기, 시대정신 등을 반영했다(Habermas, 1987/2002). 근대 유럽의 언어에 있어서 모던이라는 형용사는 19세기 중엽에 들어 명사화되었으며, 아름다운 예술의 영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모던, 모더니티라는 표현들이 왜 오늘날까지 예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한다(Habermas, 1987/2002).

미술사학자 한스 제들마이어(Hans Sedlmayr)는 『현대예술의 혁명』에서 새로운 20세기의 예술을 다 모던아트라 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우리가 모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향이란 창작 활동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시대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훨씬 더 의식적이었던 최초의 예술이라고 하며(Sedlmayr, 1957/2004), 당대의 새로움을 명확히 인지하고 표현했던 모던의 특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는 모던이 문학의 경우에는 로

마의 사상가 아니키우스 만리우스 토르콰투스 세베리누스 보이티우스 (Anicius Manlius Torquatus Sererinus Boethius)와 더불어 시작하고, 건축에서는 고딕 또는 르네상스에서 시작했으며, 물리학에서는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혹은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며, 사용 영역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모던의 상대적인 면을 언급하였다(Encyclopédie, n.d.: Wolfgang, 1997/2001에서 재인용). 또한 Auty(2015)는 우리가 모던아트에 대해 말할 때, 이는 단지 현대 시대에 만들어진, 즉 지난 100년 정도 기간의 예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던이라고 정의하는 스타일의 외양이나 태도의 의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모던의 대표적인 미학적 특성은 산업화, 시대변화에 맞추어 발현된 사고방식과 태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참신성을 지녔고, 특정 시대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2. 모더니티의 개념과 철학적 배경

### 1) 모더니티의 개념

모더니티의 사전적 의미는 르네상스 시대 이후 발생한 특정 사회의 문화적 규범, 태도 및 관행의 양상불이자 모던시대를 의미하며, 17세기 “이성의 시대”와 18세기 “계몽”의 원인이다(Wikipedia, 2020). 한편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모더니티를 새로운 시대로 이행해가는 과정으로서 스스로를 이해하는 시대의 의식으로 보았다(Habermas, 1987/2002). 비평가들은 모더니티의 기원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기독교가 전파되었으며, 봉건질서의 해체를 목격한 르네상스 유럽문화의 형성기에서 찾기도 하고,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국가에 대한 근대적인 개념이 성립되고, 영국의 산업혁명 그리고 철학의 전환과 심리학,

사회학 같은 근대 학문들이 다수 탄생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보기도 한다(Malpas, 2003/2008). 프랑스 시인이자 ‘현대 미술비평의 아버지’라 불리는 보들레르는 1836년의 글 『Le Peintre de la vie Moderne』에서 프랑스 산업혁명의 완성기이자 자본주의 전성기였던 19세기 후반의 파리에서 모더니티를 포착했는데, “모더니티란 일시적인 것(transient), 덧없는 것(fleeting), 우연한 것(contingent)으로 예술의 절반을 이루며, 나머지 절반은 영원한 것(eternal), 불변하는 것(immovable)이라고 하였다”(Baudelaire, 2010). 즉 보들레르에게 모더니티는 유행으로부터 역사 속에 담을 수 있는 시적인 것을 추출하고, 변해가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끄집어내는 상반되는 시간성, 즉 현재라는 일시성과 시적 영원성의 공존이었고, 단지 산업화가 가져다 준 모던한 삶을 포착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에 의미가 있다(조희원, 2011).

최초의 현대적 혁명이었던 프랑스 혁명은 더 이상의 순환이 아닌 절대적으로 새로우며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창조를 의미했으며, 개혁이 되어가는 시기인 모더니티의 탄생을 나타냈는데, 프랑스 혁명이 모더니티의 특징적인 형식과 이성에 바탕이 되었다면, 산업혁명은 모더니티에 물질적 기초를 가져왔다(Kumar, 1995/2012). 이처럼 모더니티는 사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것으로 진보와 관련이 있는데,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모더니티가 처음에 가졌던 진보의 본질적인 가치를 조금씩 상실하면서 변화를 위한 변화의 미학이 되어가고, 한계에 다다르면 유행과 합쳐져서, 유행이야말로 모더니티의 종언이면서 목적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Baudrillard, 1987: Kumar, 1995/2012에서 재인용).

## 2) 모더니티의 철학적 배경

오늘날 일반화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사고와 행동 방식인 모더

니티는 계몽주의 사상과 밀접한 양상을 보이는데, 계몽주의는 이성의 능력에 대한 믿음, 기계로 세계를 이해하는 자연관으로의 이행 그리고 진보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그 조건으로 한다(오창섭, 2005). 17세기 프랑스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뜻의 신본주의적 사상이 인본주의적 이성주의(Rationalism)로 바뀌는 시대정신이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18세기에 더욱 거세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계몽주의(Enlightenment)와 더불어 확산되었으며, 청교도 혁명, 종교 혁명 등의 정치적 변혁이 나타나게 되었다(코디최, 2010).

푸코(Foucault)는 칸트의 글 『Was ist Aufklärung?』을 바탕으로 모더니티를 설명하는데, 칸트의 계몽이 제시한 획기적인 새로움을 현재, 변화, 이성비판의 세 가지로 해석한다. 즉 계몽은 외적 권위에 복종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되고, 자신의 이성을 주체적으로 사용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삶을 지향한다는 것이다(Foucault, 1984: 이재정, 2011에서 재인용). 한편 미셸 마페졸리(Michel Maffesoli)는 모더니티는 진보와 발전의 이상으로, 지금 여기가 아닌 미래에서 의미를 획득하려 하며, 미래의 성과를 위해서 현재가 말소당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계인데, 미래주의가 지배하는 모더니티의 시대는 이제 종착지에 도달했고, 현재의 강렬함이 우세해지고 있으며, “순간은 일상의 창조성이 확인되는 지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Maffesoli, 2003/2010).

이처럼 모더니티를 설명하는 다양한 견해들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인간 존재가 제 자신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를 특히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변화, 발전, 역사 등과 관련시켜 바라보기 시작한 기점이라는 것이다(Malpas, 2003/2008).

### 3. 모더니즘의 개념과 미학적 특성

#### 1) 모더니즘의 개념

모더니티의 사전적 의미가 산업혁명 및 그 영향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적 조건과 경험의 모든 형태들을 설명하는 넓은 범주라면, 모더니즘은 20세기 초에 일어난 실험적인 예술 또는 문화적 현상을 일컫는다(Malpas, 2003/2008).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의 어느 분야든 혁신적인 물건 또는 어느 정도 독창적인 작품에는 어김없이 모더니즘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는데(Gay, 2008/2015), 이 모더니즘은 종래의 예술, 건축, 문학, 신앙, 철학, 사회조직, 일상생활 및 과학 등의 전통적인 기반에서 벗어나려는 20세기 서구 문학, 예술상의 급진적 경향이다. 즉 전통이나 권위에 반대하고, 근대의 과학이나 문화에 의해 자유로우며, 평등한 근대인으로서 살아가려는 개인주의적 입장을 말한다(Wikipedia, 2019). 모더니스트들은 대체로 정치나 사상 면에서 중도보다는 극단을 선호했고, 관습적인 감수성에 저항하려는 충동과 철저한 자기 탐구가 있었으며, 자유로운 사회는 모더니즘 혁명의 조건으로, 산업화, 도시화한 국가들의 부에서 자라났다(Gay, 2008/2015). 모더니즘의 정신계에 영향을 끼친 핵심사상으로는, 모더니즘의 근거와 원형을 제시한 마르크스주의, 언어에 존재하는 시스템과 방법론을 찾아낸 구조주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탐구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연구 등이 있고, 모더니즘의 대표적 성향은 과거의 역사와 문화전통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새로움과 예외성을 지니고, 그 구조는 아카데미한 엘리트의식에 근거한 것이다(코디최, 2010).

## 2)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미학적 특성

모더니즘은 ‘관습적인 감수성에 저항하려는 충동’과 ‘철저한 자기탐구’에서 비롯된 개성적 표현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고, 미술에서는 입체파에서 원시주의로, 인상주의에서 초현실주의로 전개되는 다양한 운동들이 예술작품의 존재와 당위에 관한 기존의 규범들에 도전했다(Gay, 2008/2015). 모더니즘에는 단일한 강령이나 작가들이 없었는데, 이는 하나의 미학과 공통의 가치체계로 결합된 각기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Bhaskaran, 2005/2017).

모더니즘의 전개는 건축을 중심으로 설명되곤 하는데, 모더니즘 건축은 과거스타일을 끊임없이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자신들의 건축물과 도시가 현대이성의 개념을 반영하고,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기초하기를 원했다(Bhaskaran, 2005/2017).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그리고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의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을 반영한 건축 양식은 대부분 1919년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설립한 학교 바우하우스(Bauhaus)의 실천에 결합된 것으로, 이러한 모던적인 건축물들은 “국제적인 스타일”의 친숙하고 전형적인 특징, 즉 기하학적이고 직사각형이며 유선형의 모습을 보였다(Kumar, 1995/2012). 초기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은 콘크리트와 스틸 같은 신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과 기술 발달로 인한 큰 창 그리고 공간과 높이를 최대한 활용한 열린 공간의 형태로 나타났는데(Lescaze, 1937), 급진주의자들은 기존의 원칙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거의 알려지지 않고, 평가도 되지 않은 재료들을 사용하는데 앞장섰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 때부터 존중되어온 관습들을 무시하고, 실용적 단순성, 직선과 직사각형의 장식을 생략하고 품위 없는 재료를 부각시키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집은 거주를 위한 기



계” 라고 주장했던 르 코르뷔지에는 새로운 경제적 요구에 직면하여 건축에서 대량생산이라는 혁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언급했다(Gay, 2008/2015).

20세기 이후, 기계 생산에 용이한 선과 장식의 단순함이 요구되면서 모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당대의 사람들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한 부산물이며, 자기 정체성의 강화, 합리적 실증주의, 기능주의, 추상, 기계를 예찬하는 특징을 보였다(김민수, 1994). 산업디자인 분야의 모던 움직임을 처음 다룬 것으로 알려진 니콜라우스 페브스너(Nikolaus Pevsner)의 1936년 서적 『Pioneers of modern design : from William Morris to Walter Gropius』에서는 모던 디자인을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산업화의 확대결과로 등장한 디자인 개혁운동으로 보고, 그 시작을 독일의 존 러스킨(John Ruskin)과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에서 찾았다(Woodham & Jonathan, 1997/2007). 미술공예운동은 빅토리아 시대의 대량생산 경향이 노동자의 질을 떨어뜨려 조악한 제품을 낳는다고 보았고, 중세의 양식과 생산방식을 모범으로 삼아 노동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장인의 위상을 상승시키고자 한 것으로(Pevsner, 1936/2013), 형태, 기능, 장식의 자연스런 일체화를 위해 간결한 형태와 꾸밈없는 선형을 사용하였고, 좋은 예술과 디자인이 사회와 생산자, 소비자의 삶을 개선시킨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모더니즘의 중요한 전조로 볼 수 있다(Bhaskaran, 2005/2017).

모더니즘에서 자주 인용되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은 표준화 논쟁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디자인은 생산의 합리화와 생활환경의 표준화를 의미했고, 대중이라고 불리는 근대적 소비자를 탄생시켰으며 대중의 의식과 감각을 크게 변화시켰다(Kashiwagi, 1992/1999). 한편 디자인이 사회개혁을 위한 민주주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모더니즘의 발전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

는데, 아돌프 루스(Adolf Loos)의 저서 『Ornament und Verbrechen』에서는 과도한 장식이 사회를 타락시킨다고 지적했으며, 구성주의와 미래파는 기계를 미화했다(Bhaskaran, 2005/2017). 이처럼 모더니스트들은 스스로를 진정한 20세기를 상징하는 ‘기계시대’ 미학의 창조자들이라고 보았고, 진보적인 산업문화의 대량생산 체제에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와 재료를 탐험하고자했다(Woodham & Jonathan, 1997/2007). 모더니스트들에게 새로운 것과 독창적인 것은 우선적인 가치였고, 모더니즘 디자인 운동은 대량생산과 대량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적인 형태의 탐색 측면에서 비 장식적, 비역사적인 디자인이었다(정시화, 1991).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 나타난 모던 무브먼트(modern movement)의 특성은 12개의 세부사항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는 비구획화, 사회적 도덕, 정직, 예술의 총체적 작업, 기술, 기능, 진보, 반역사주의, 추상, 국제주의/보편성, 신학, 의식의 변화였고(Greenhalgh, 1990), 이러한 모던 무브먼트의 주요 관심은 미와 기술 그리고 사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산업제품이나 건축 등의 분야에서는 디자인이 전문적으로 탄생한 산업혁명 시기부터 1990년대까지의 디자인 역사를 모던 프로젝트로 서술하거나(Kashiwagi, 1992/1999),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과 철물건축의 발전, 아르누보의 종합’인 모던 무브먼트(Pevsner, 1936/2013)로 보며 모던의 표현특성을 분석하고, 그 개념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모던 디자인을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서구 예술이나 디자인의 결과물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 지역 및 사건에 의한 고유 명사로서의 Modern Design이며, 이를 벗어나야한다(조지선, 채승진, 2011)는 성찰과 함께 디자인의 역사를 윌리엄 모리스, 앙리 반데 벨데(Henry Van de Velde), 헤르만 무테지우스(Herman Muthesius), 피터 베렌스(Peter Behrens) 그리고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등의 대표적 인물들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법론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처럼 모던 디자인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합리적 태도와 가치의 전환으로 나타난 기능미 중심의 디자인 경향을 말하지만, 모던의 의미가 과학, 시민사회, 산업화와 공업화의 등장에 따라 발현된 사고방식과 태도의 변화과정이라고 볼 때, 특정 시대의 디자인 양식으로 지칭하기는 힘들다(김경원, 김종민, 2016).

본 연구에서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모던은 이전과 구분되는 현재 또는 최근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통적인 스타일이나 가치에서 벗어나려는, 혁명, 진보, 해방, 발전 등의 정신을 반영하고, 사용영역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고, 특정 시대에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모더니티는 지식과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급진적인 사회 변화가 대중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혁신과 발전의 상태로, 인간이 자신과 공동체를 관련시켜 바라보기 시작한 시대의 의식으로 볼 수 있었다. 반면에 모더니즘은 19-20세기 초에 일어난 새로운 실험적인 예술 운동을 말하는데, 예술 및 디자인 분야에 나타난 조형성은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신소재를 사용하고, 기하학적 형태와 간결하며, 비 장식적인 특성을 보였으며, 기능과 합리성의 가치를 신봉하고, 대량생산 및 규격화로 인해 국제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도보다는 극단을 선호하고, 관습에 저항하며, 좋은 예술과 디자인이 대중의 삶을 개선시키고, 사회개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처럼 모던, 모더니티, 모더니즘의 개념에 나타난 대표적인 특성은 이전과는 다른 독창성,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고 반영하는 혁신성 그리고 자신과 사회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성숙한 계몽의식이었다.

## 제 2 절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Hollander(1994)는 모던이 점진적으로 수정, 변화되는 이상(ideal)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때, 패션은 사회적, 개인적 영역 모두에서 선천적으로 모던이라고 언급하였다.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은 급속한 사회변화가 나타나고, 화폐화(monetarization)가 절정에 달한 19세기 사회를 모던으로 보고, 도시에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모방과 개인적 차별화라는 모순적 욕망을 동시에 나타낸 패션에 주목했다(Entwistle, 2000/2013). 모던 패션의 가장 급진적인 디자인 특성은 장식적인 화려한 드레스가 합리적이고 현대 생활에 맞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한 것인데, 합리적 복장과 위생성에 대한 각성은 19세기말 아멜리아 블루머(Amelia Bloomer)가 제안한 여성용 바지와 유티주의자들과 라파엘전과가 제안한 중세풍의 헐렁한 가운데타입의 드레스에서부터 감지되고, 특히 폴 푸아레의 코르셋 없이 입는 느슨한 드레스 디자인은 가장 주목할 만한 표현이었다(Wigley, 2001). 그간 패션에서의 모던 관련연구는 모던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19세기 말 파리를 중심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적인 급진적 변화를 반영한 패션과 보들레르의 연구에 초점을 맞춘 모더니티 혹은 20세기 초의 모더니즘 사조가 패션에 나타난 경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의 경향(이미숙, 조규화, 1997; Evans, 2008; 박숙현, 1998; 이효진, 2013, West, 2011) 혹은 패션에서의 모던이 형성된 원인과 사회문화적 변화를 탐구한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전경희, 2006; Arnold, 2008; Parkins, 2010; Plock, 2013; Slevin, 2013; Bellanta & Piper, 2014; Butor et al., 2015; Stein, 2017) 혹은 모더니즘 예술 및 건축 디자인과 패션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정현숙, 김진구, 1995; Kinney, 1999; 김혜영, 김유연, 2005; 김혜영, 허다

슬, 2005; 우세희, 김혜경, 2005; 김유경, 유영선, 2009; 이신영, 서승희, 2010; 강병석 외, 2002; Carlson, 2014)등 이었다. 또한 모던이라는 주제 아래 내용은 모더니티나 모더니즘을 다루고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19-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의미를 이해하고 밝히는데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다.

## 1.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티의 표현특성

현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패션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에 급진적인 혁명과 시스템 변화가 있었다. 모더니티에 관한 여러 역사연구는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현대 패션의 산업구조에 주목했고, 특히 패션상품과 이미지의 유통이 공공의 영역에서 재정립된 방법을 관찰했다. 대량생산 및 소매업의 진보와 광고 홍보 매체를 통한 판매증가로 패션이 서구 도시생활과 문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왕권, 가족, 종교에 대한 오래된 규칙에 도전하는 의제를 설정했다고 보기도 했다(Breward, 2003). 윌슨(Wilson)의 저서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2003)에서는 패션을 모더니티의 출현과 발전의 특징으로 보고, 모더니티가 산업 자본주의에서 문화생활의 변화 특성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패션이 잘 표현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하였다(Wilson, 2003). 마샬 버먼(Marshall Berman)은 특히 보들레르가 19세기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현대인으로 여기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하였는데, 미적 모더니티의 결정적인 이론가로 여겨지는 보들레르는 1836년의 글 『Le Peintre de la Moderne』에서 근대적 삶을 그리려는 화가의 목표를 모더니티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이 패션이며, 패션이 모더니티의 기호가 되는 것은 일시성이라는 본질 때문이라고 하였다(Baudelaire, 1863/2013). 즉 패션을 독창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일시적인 것에 함축된 영원성을 나타내는 현대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본 것인데(Baudelaire, 2010), 특히 모더니티의 특성을 최신 직물의 텍스처와 직조 방식, 새로운 디자인과 패션이 여성에게 부여하는 제스처 그리고 태도 등에서 발견하고자 했다(전경희, 2006). 이는 프랑스 산업혁명의 완성기이자 자본주의 전성기였던 19세기 후반 파리에서의 모더니티를 언급한 것인데, 이러한 보들레르의 관점은 울리히 리만(Ulrich Lehmann)의 연구에 바탕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Lehmann(2002)의 『Tiger Sprung』에서도 패션에 나타나는 요소들은 현대 사회와 문화의 속도와 리듬을 구현하고, 모더니티의 특징은 패션에서 가장 즉각적인 반향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티를 연구했다. 즉 보들레르, 짐멜 그리고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움을 만들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패션을 탐구한 것을 호랑이의 도약(Tiger Sprung)으로 표현한 것인데, 흥미로운 점은 레만이 패션을 발전시키는 혁신과 역사적인 아방가르드의 유사한 점을 연결한 것이다. 즉 예술가들에게 아방가르드의 참신함과 익숙하지 않은 전술의 사용은 문화적 리더십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것과 과거의 융합에서 패션에 다가올 것을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충격을 완충시킨다는 것이다(Tynan, 2002). 즉 패션은 일시적일뿐만 아니라 벤야민이 강조한 바와 같이 역사적이기도 한데, 일단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유행을 고양시키고, 물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연결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패션은 완전히 새로운 영구적인 참신함과 지속적이고 만족할 수 없는 변화를 의미하며, 모더니티에 대한 모든 분석들도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역사가,

경제학자, 철학자들에 의한 수많은 단편 조각으로 분산되지만, 패션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도달하려면 전체 디자인을 주시하면서 세부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Lehmann, 2002).

Joanne Entwistle(2000/2013)의 『The Fashioned body』에서는 특히 몸과 관련한 학자들의 이론들로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티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푸코의 모더니티에 관한 사고는 몸을 현대의 권력과 지식의 부여 대상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18-19세기에는 군주의 몸에 권력이 부여되면서, 군주의 신체적 청결보다는 병자들을 격리하고 감시하는 치료법과 범죄자를 배제시키는 해결책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마이크 페더스톤(Mike Featherstone)은 20세기 이후부터 몸에 대한 자기관리 현상이 증가했고, 몸은 운동, 식이요법, 메이크업, 성형수술 등으로 변형이 가능한 자아로 인식되는 사고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몸의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하였다(Entwistle, 2000/2013). Arnold(2008)는 20세기 초에 새롭게 대두된 현대 여성의 날씬한 몸, 다이어트, 운동, 건강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모더니티를 탐구하였는데, 1930-1940년대 뉴욕에서 클레어 맥카델(Claire McCardell)과 밀드레드 오릭(Mildred Orrick)같은 스포츠웨어 디자이너가 양산되고 스포츠웨어 패션이 발달하게 된 배경을 연구했다.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 그리고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과 같은 당대 스타들의 유동적인 움직임과 가벼운 옷은 당대의 모더니티를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1920년대 여성들은 댄스와 운동을 통해 스타들처럼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세련된 몸의 이상을 유지해야하는 압박도 느꼈다. 이 연구에서는 모더니티를 개인주의, 개성의 증가 그리고 움직임 증가로 보았고, 이는 뉴욕 스포츠웨어 산업을 발달시키고, 소비자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Hollander(1994)는 패션의 진정한 근대화는 모든 산업디자인의 미적 지위향상과 함께 ‘기계가 만드는 의복의 대량생산’의 지위가 향상된 것에 의존한다고 하였고, 완벽한 유사성에 근거한 새로운 미적 기준이 과거의 개별적인 독특함을 대체하거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낸 것에 주목하였다(Hollander, 1994). 찰스 프레드릭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 폴 푸아레(Paul Poiret), 샤넬(Chanel) 등은 모던 패션에 중심이 되는 디자이너이지만 이는 수많은 익명의 노동자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켰기에 가능했고, 모던 패션은 한마디로 산업이었다. 19, 20세기 패션은 예술, 극장, 영화 같은 전위적인 문화적 발달과 함께 모더니티와 진보의 감각을 보여주었고, 위생정신, 섹슈얼리티, 편안함, 장식과 기술 등이 문화에 배어있었다(Beward, 2003).

한편 짐멜은 모더니티를 패션에서 순응과 차별화 사이의 긴장을 뚜렷이 보여주는 모순적인 것, 즉 자연스러운 조화와 눈에 띄려는 모순된 욕망으로 보았다. 즉 패션은 엿보는 시선들로부터 보호의 역할을 하며, 타인과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게오르크 짐멜은 이를 ‘블라세(blasé)’ 태도라고 불렀고, 이는 항상 태연한 자세를 취하며, 거리를 노니는 플라뇌르, 즉 댄디로 대변된다(Entwistle, 2000/2013). 댄디의 대표적 인물로 여겨지는 조지 브럼멜(George Brummell)은 꾸민 흔적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연스러운 연출을 추구하여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이를 표면에 나타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감췄다(Stevenson, 2011/2014). 1차 세계대전 이전, 여성을 위한 우아한 슈트를 만들던 하이패션은 발을 드러내고 표면장식을 최소화하였고, 여성들의 복장은 타이트한 허리와 큰 페티코트 없이 매우 실질적으로 보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여성 모더니티를 정의할 수 있는 특징이다(Entwistle, 2000/2013). 이처럼 19세기 스타일변화는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들과 모던에 대한 개념의 결과이기도 하지



만,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형태에 대한 자각 혹은 패셔너블한 취향의 특성과 보급이라는, 문화적 사회적 태도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물이기도하다(RIDLEY, 1996).

패션에서의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전경희, 2006; Arnold, 2008; Parkins, 2010; Plock, 2013; Slevin, 2013; Bellanta & Piper, 2014; Butor et al., 2015; Stein, 2017)에 나타난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경희(2006)의 연구에서는 보들레르가 당대의 패션을 모더니티의 기호로 본 것에 착안하여 마네와 드가 그리고 쇠라의 회화에서 이를 밝히고자 했는데, 물신화된 패션상품과 여성의 인체모습 그리고 유행에 앞선 것과 뒤떨어진 것의 구분으로 나타나는 패션체계, 계급평등화 현상 등을 모더니티로 보고, 패션이 모더니티가 만들어낸 대비 구조를 시각화하는 기호가 된다고 하였다. 즉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티가 개인들의 외양을 평등하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평등화시킨 것으로 보았다.

Slevin(2013)의 연구에서는 당대에 새롭게 나타난 사상과 이론이 반영된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의 1913년 “동시성 드레스(simultaneous dress)”를 바탕으로 모더니티를 연구했는데, 이는 새로운 환경과 함께 생성된 색과 현대 철학, 자신의 삶 그리고 파리 근대성의 경험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연결고리로, 파리, 이탈리아 및 베를린 등 유럽 전위 예술의 주요 중심지에 퍼진 동시적 아이디어를 통합했다. 들로네의 직관적인 색상은 인상파와 야수파 그리고 색 이론 과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몸을 환경과 동시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재구성했으며, 색, 일시성 및 리듬을 통해 살아있는 그림이나 조각처럼 보이는 복합적인 디자인을 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패션과 시간과 공간 속의 삶의 경험을 모더니티로 묘사하였다.

Parkins(2010)는 1860년에서 1940년 사이의 산업 근대성과 함께 여성의 전향성이 나타났고, 패션유행의 일시성 기록들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여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모던 패션의 민주화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던 것은 1908년 폴 푸아레의 디렉투아르(directoire)드레스 라인의 부활이었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 직후에 인기였던 모슬린 엠파이어 드레스에서 실루엣을 빌린 것이고 그리스 드레스와도 관련이 있었기에 당대의 모던 패션을 이전 스타일의 모방으로 보았다. 하지만 점차 패션 디자이너들은 현재에 나타나는 과거의 흔적을 역사가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기 시작하고, 과거의 파편들을 미래에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 재조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캐롤라인 에반스(Caroline Evans) 역시 패션 디자이너들이 표현한 과거의 흔적은 역사가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는 미래에 공감할 수 있는 새롭고 현대적인 무언가로 재조정되기에 과거와 현재의 모더니티는 다르지만 ‘다중 현대성’을 암시하는 양면적 형태로 현대여성과 그 지위를 연구하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외에 Bellanta & Piper(2014)의 연구에서는 패션 학자들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패션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플래시(flash)로 불리운 매춘 여성들의 복장을 분석했다. 이들의 거리복장 스타일을 중고품과 세련된 물건, 기성품과 수제품, 새로운 것과 오래된 복장의 합성물로 보고 이러한 절충주의에서 다중성을 발견하고, 이를 전통을 거부하는 모더니티로 보았다.

## 2.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표현특성

20세기 초반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특성은 자율성이 획득되었다는 것인데, 빅토리안 시대 의상의 패셔너블한 형태를 결정하였던 태도나 위계가 점차 수그러들고, 눈에 띄지 않게 민주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프꾸뛰르 의상은 수수하고 단순해졌고, 값싼 대량생산 의복들이 시크한 모던으로 멋지게 입혀졌으며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서

로를 흉내 내기에 이르렀다(Hollander, 1994). 20세기 초는 예술과 문화에 있어 모더니즘과 엘리트주의가 팽배한 시기이고, 패션에서는 찰스워스 이래 코르셋을 과기한 폴푸아레, 단순성, 비장식성, 기능성, 합리성의 기능주의 패션을 창시한 샤넬, 인간내면의 감성을 중시한 초현실주의 패션에 몰두한 스키아파렐리 등 전문적인 패션디자이너가 탄생했다(김민자, 2013).

모더니즘 패션으로 분석된 기간은 주로 20세기 초에서 1940년대까지로 나타났고, 연구경향은 모더니즘 시대의 패션에 나타난 조형성 분석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모더니즘 예술 및 건축 디자인과 패션의 특성을 비교하거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이미숙, 조규화, 1997; Evans, 2008; 박숙현, 1998; 이효진, 2013; West, 2011). 또한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박명희, 1999; Forster, 2009; 고윤정, 김민자, 2010; 이미숙, 2013; 김민자, 1998; Kim & Damhorst, 2013)가 있었다. 이미숙, 조규화(1997)는 20세기를 대중생산, 대중소비, 대중매체 등 대중의 시대로 정의하고, 샤넬을 오뜨꾸뛰르의 허위의식을 버리고 대중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모더니즘의 완성자이며, 패션을 예술이전에 기술로 인식한 디자이너로 보았다. 특히 샤넬의 모더니즘 특징을 모던한 여성미의 창출, 소재의 재발견으로서의 저지 혁명, 대중을 위한 검은색 유행 제안,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복제의 허용, 코스튬 주얼리에 의한 가치전환으로 나타냈다. 이는 샤넬의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외에, 패션을 기술로 인식하고 대중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모더니즘으로 본 점에 의의가 있다. Evans(2008)은 1925년 파리에서 열렸던 장 파투의 패션쇼와 모델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을 설명하였다. 1920년대의 패션쇼는 현대 산업화 생산과정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포드주의 미학과 프랑스 꾸뛰르 하우스의 테일러 기술을 바탕으

로 한 개성화된 고급 소비였다. 파투의 모더니즘 역시 예술적 아방가르드가 아니라 20세기 초의 상업적인 사회 경제적 합리화의 일부였는데, 특히 모델(마네킹)이라는 직업이 확립된 20세기 초반에 새로운 직업여성이었던 패션모델들이 판매를 위해 감당해야하는 여러 고통과 기계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을 모더니즘의 기계화 현상과 비유하였다.

그 외에 패션 카탈로그와 잡지분석을 통해 모던 패션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West(2011)는 1910/1911 FW시즌의 폴 푸아레의 디자인과 조르주 르파프(Georges Lepape)가 보여준 혁명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을 분석했다. 바지와 터번으로 묘사되는 폴 푸아레의 디자인은 느슨한 듯 흐르는 단순한 선의 의복으로 코르셋의 폭압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했다. 근대 패션의 가장 중요한 컬렉션으로 여겨지는 그의 디자인은 기술적 진보, 도시화, 대중 스포츠, 기능주의, 큐비즘, 이국주의와 같은 다양한 영향으로 논의되었고, 1911년 3월에 수천 권의 사본으로 출판된 카탈로그는 패션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혁명을 일으켰다. 조르주 르파프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드레스를 완전히 표현하지 않고 전반적인 분위기와 구성을 의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점에서 혁명적이었고 판매를 위한 광고목적의 현실적 묘사에서 예술적인 묘사로 옮겨갔다. 즉, 이 시기의 문학적, 예술적인 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표현에서 추상으로 옮겨간 것이다. 한편 Wood(2016)는 1929-1935년의 패션잡지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와 모더니즘 간의 상호관계를 탐구하였는데, 하퍼스 바자는 모더니즘을 예술, 패션, 에티켓, 중상류층의 여가 활동 기사에 포함시키고, 모더니즘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초기 서술을 확립하는 한편 모더니즘을 유행에 민감한 관객에게 바람직한 고급문화 상품으로 마케팅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현숙과 김진구(1995)의 연구에서는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과 건축, 문학 등에 나타난 특징과 1920년대 플래퍼 룩의 조형적 특성과 비교하여 그 공통적 특성을

단순성, 전통의 거부, 개인주의, 주관성, 기능성, 자아의 분열 그리고 직선의 사용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가장 활발했던 연구는 모더니즘 시대 건축과 공간특성을 패션과 비교하는 연구(Carlson, 2014; Kinney, 1999; 김혜영, 김유연, 2005; 김혜영, 허다슬, 2005; 김유경, 유영선, 2009; 이신영, 서승희, 2010; 강병석 외, 2002; 정현숙, 김진구, 1995; 우세희, 김혜경, 2005)였는데, 이는 건축분야에서 가장 먼저 모더니즘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론적 양식적 측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있었기에 패션디자인과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특성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허다슬, 2005). 김혜영, 김유연(2005)은 20세기 초 모더니즘 공간의 특성을 합리적 공간, 시각중심의 추상적 공간, 중성적 공간, 지배와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공간으로 보았고, 이러한 특성이 패션에도 적용되어 실용적 기능미 추구,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 단조로운 형태를 보완하기 위한 순수한 소재의 특성과 원색이 강조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또한 김혜영, 허다슬(2005)은 폴 그린헬이 언급한 모더니즘의 특징인 진실, 총체적인 예술, 기술, 기능, 진보, 반역사주의, 추상, 국제주의와 보편성, 의식의 변형 등의 요소가 건축과 패션의 조형적 특성에 나타나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 패션에서는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합리주의적 기능성, 사물의 진실성과 미의 보편성추구, 시각의 변화를 통한 진보의 표현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신영, 서승희(2010)의 연구에서는 모더니즘 건축의 조형적 특징을 도형적, 선형성, 기하학적 평면성, 배제적 폐쇄성으로 보고, 2000-2008년 패션컬렉션에서 선정한 모더니즘 스타일과 비교하여 그 경향을 물역사적 형태, 추상적인 면 분할 그리고 환원주의적 순수성으로 도출하기도 했다. Kinney(1999)는 건축에서 옷의 논리를 발견한 현대 건축가와 학자들의 연구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버나드 루도프스키(Burnard Rudofsky)는 건축이 거주는 물론 일상적 생활양식을 대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신체와

의복의 관계가 변하면 사람들의 거주공간도 달라진다고 하며, “비합리적인 것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드레스가 바뀌면 주변 환경도 함께 평행을 이루게 되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이 가능해진다”고 보기도 했다. 이처럼 모더니즘 디자인의 영향력은 건축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전제품, 가구, 타이포그래피 등의 다방면에서 실험되고 생산되었으며, 이러한 모더니즘의 특징들은 20세기 삶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근대적인 소재와 제조공정에 상징적으로 부응하는 것이었다(Woodham & Jonathan, 1997/2007).

연구 결과,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티의 특성은, 근본적으로는 19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급진적 흐름에 기반 한 것으로, 기존 규칙들의 붕괴, 대량생산에 의한 유사성과 평등의 경향, 자연스러운 조화와 눈에 띄려는 모순된 욕망의 표현, 가벼움과 유동적 움직임 추구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와 거리를 두거나, 꾸민 흔적을 노출시키지 않는 연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의 대표적 표현특성은 대량생산을 위한 표준화, 합리주의적 기능성, 미의 보편성 추구 그리고 실용적이고 단순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패션에서의 모더니즘은 일반적 의미의 모더니즘처럼 조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모더니티의 개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경계가 흐린 상태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패션에 나타나는 새로움은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혹은 과거와 현재의 융합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전에 없던 참신함을 추구하며 지속적이고 만족되지 않는 열린 변화의 의미로 나타났는데, 결국 패션에서의 모더니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하고 있었다. 즉, 현대 사회의 유동성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세밀하게 구현하고, 산업화가 가져다 준 모던한 삶을 포착하고 있지만, 단순히 시대의 새로움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사와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즉, 패션의 일시성은 모더니티의 주요 기호이고, 패션에서의 모더니티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그 번덕스러운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결국 패션을 우리의 삶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대중의 심리를 반영하는 가치 있는 매개체로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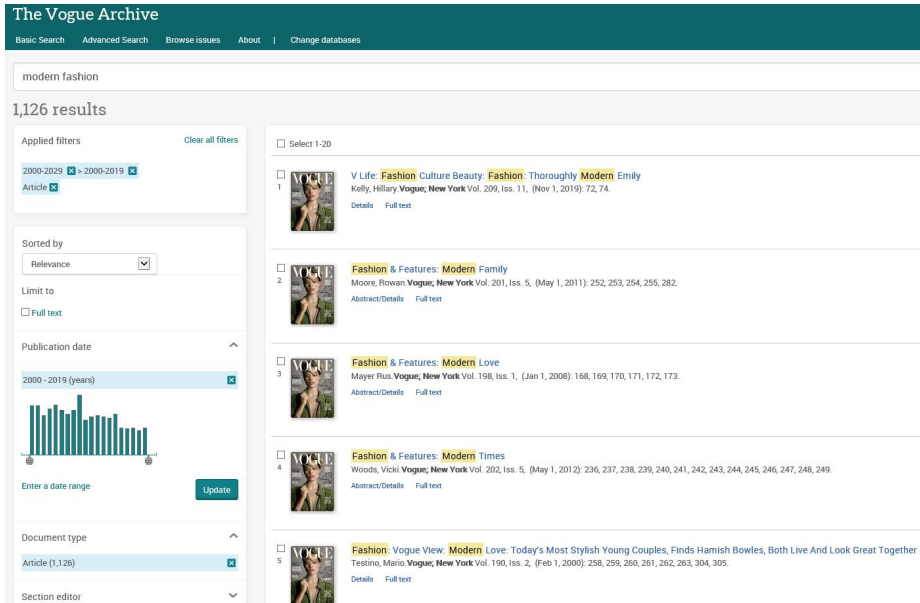
# 제 3 장 유의어와 반의어 분석을 통한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던

## 제 1 절 보그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의미와 표현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패션잡지 보그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 ‘modern fashion’의 키워드로 도출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보그에서 ‘modern fashion’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modern, fashion이라는 각각의 단어가 포함된 ‘modern AND fashion’으로 자료가 도출되는데, 이 중 목차(table of contents), 광고(advertisement), 에디터에게 보내는 편지(letter to the editor) 등의 항목을 제외한 기사(article) 섹션의 자료는 [그림 1-1]과 같이 1,126개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는 모던이 예술, 음식, 인테리어, 장소, 헤어, 메이크업 혹은 기관명으로 나타난 자료를 제외하고, 패션에서의 모던의 의미나 표현특성이 나타난 자료만으로 분류한 결과 총 349개의 유의한 기사를 분석하였다.





[그림 1-1] 보그에 나타난 'modern fashion' 기사의 빈도

## 1.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유의어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던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에 더욱 근접하게 도달하고자, 검색어 앞뒤에 위치한 무작위의 단어들이 아닌 패션관련 기사에서 모던과 유의하거나 반의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유의어는 모던과 and로 연결된 단어 그리고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나,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쉼표로(다음백과, n.d.) 함께 나열된 단어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어와 반의어 사전인 『thesaurus』에서는 검색어에 대해서 유사한 정도에 따라 색상의 명암에 차등을 두어 그 의미를 상세히 표현하고 있었는데, 모던의 유의어를 검색한 결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단어들은 contemporary, current, modernized, present-day, stylish, state-of-the-

art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유사도를 보인 단어는 avant-garde, concomitant, latest, novel, now, present, recent, today 등으로 나타났다 (Thesaurus., n.d.). 이처럼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모던은 주로 contemporary, current, present-day, latest, now, present, recent, today 등의 시간적 개념에 대한 유사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기술적 혹은 미적 개념으로는 state-of-the-art, stylish, avant-garde, novel 등의 단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보그에서 도출한 패션에서의 모던의 의미나 표현특성이 나타난 자료 348개 중 모던과 and나 쉼표로 연결된 유의어가 나타난 기사는 총 77개였고, 유의어의 수는 총 103개였다. 이중 가장 높은 유의도를 나타낸 단어는 clean(4)과 easy(4)였고, fresh(3), sexy(3), sophisticated(3), minimal(3), cool(3), simple(3) 등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처럼 일반적 의미의 모던과 패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던의 유의어는 이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패션잡지 보그에 나타난 모던의 유의어는 주로 현재라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패션 제품의 외관이 장식 없이 단순하며, 착장 면에서는 꾸밈없이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세련되거나 섹시한 특성도 모던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 2.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반의어

언어가 지니고 있는 추상적인 특성은, 대립되는 기능을 표현 가능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 “fantasy/classic”처럼 반대되는 개념은 실제의상이나 이미지 의상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는 특성이다(Barthes, 1983). 패션 디자이너 샤넬이 럭셔리(luxury)의 반대말은 빈곤(poverty)이 아니라 천박함(vulgarity)이라고 표현했듯이(Batat, 2019), 패션에서의

반의어는 일상용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모호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thesaurus』에서 모던의 반의어를 검색한 결과 가장 높은 연관도를 보인 단어는 old, old-fashioned, past, future였고, 그 다음으로는 높은 연관도를 보인 단어는 ancient, antiquated, obsolete, outdated, passe 등이었다(Thesaurus., n.d.). 즉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모던의 반대개념은 주로 시간적으로는 현재가 아닌 과거 혹은 미래이고, 미적 개념으로는 오래된 것이나, 유행이 지난 것을 의미했다.

보그에서 도출한 모던 패션 관련 자료 348개 중 모던과 but, yet으로 연결되거나, 문맥상의 반의어가 포함된 기사는 13개 그리고 반의어의 개수도 17개에 불과했다. 이중 높은 빈도수를 보인 단어는 nostalgic(3)과 classic(3)이었는데, 이는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개념이 일상적인 용어에서처럼 오래되거나 유행에 뒤진 것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고전적인 것과 대치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 외에도 traditional 그리고 과거에 유행했던 스타일인 retro 등이 모던의 반의어로 나타났다. 이처럼 패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던의 유의어와 반의어는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모던의 유의어, 반의어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상용어로 사용되는 모던과 패션에서의 모던의 개념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제 2 절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 ‘modern fashion’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modern, fashion이라는 각각의 단어가 포함된 ‘modern AND fashion’으로 총 24,752개의 자료가 도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fashion section에 나타난 기사 4,212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패션에서의 모던의 의미나 표현특성이 나타난 자료만으로 분류한 결과, 총 536개의 유의한 기사를 분석하였다.

### 1.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유의어

뉴욕타임즈 기사 중 모던과 and나 쉼표로 연결된 유의어가 포함된 기사는 총 183개 그리고 유의어는 232개가 도출되었다. 모던과 유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단어는 streamlined(18)였는데, 이는 패션잡지 보그에서는 유의어로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특이점이 있었다. streamlined는 모던의 방대한 의미 중에서 간결하고, 실용적인 측면을 특별히 부연 설명하고자 모던과 쉼표로 연결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유의도가 높은 단어로는 fresh(12), sophisticated(9), easy(8), sleek(8), clean(7) 등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보그에서 modern과 유의도가 높게 나온 clean, easy, fresh, sexy, sophisticated, minimal, cool, simple 등의 단어들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 3.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반의어

뉴욕타임즈의 자료 999개 중 모던과 but, yet으로 연결되거나 문맥상의 반의어가 포함된 기사는 22개, 반의어의 개수는 25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classic(2), traditional(2), ethnic(2), feminine(2), romantic(2) 등이 패션분야에서 모던의 반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보그에서 반의어로 도출된 단어 nostalgic, classic, traditional, retro 등과 유사한 의미로 나타났고, 패션에서 모던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이며,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등의 의미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을 알 수 있었다.

### 제 3 절 유의어와 반의어를 통해 도출한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개념

패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던의 유의어와 반의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던의 개념을 유추해보면, 형태나 기능이 실용적이고(streamlined), 독창성이 있으며(fresh, new, original), 이를 정교하거나 세련되게(sophisticated, sleek, stylish, edgy, chic), 혹은 군더더기 없이(clean, simple, minimal) 자연스러운 방식으로(easy, effortless)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었다. 또한 전통적인 스타일이나 민족적, 복고적인 풍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표 2-1].

[표 2-1] 모던의 유의어와 반의어 빈도 분석 (보그/뉴욕타임즈)

modern의 유의어	보그	뉴욕 타임즈	총 빈도	modern의 반의어	보그	뉴욕 타임즈	총 빈도
streamlined	-	18	18	classic	3	2	5
fresh	3	12	15	traditional	2	2	4
sophisticated	3	9	12	nostalgic	3	-	3
easy	4	8	12	ethnic	1	2	3
clean	4	7	11	feminine	-	2	2
sleek	-	8	8	retro	2	-	2
simple	3	4	7	romantic	-	2	2
sexy	3	4	7	wearable	1	1	2
minimal	3	3	6	conventional, ladylike, reasonably priced, conventionally pretty, forced, cold, old-fashioned, formal, mysterious, logomania, past, complicated, ancient, luxurious, international, timeless, stiff, historical 등	1		
cool	3	3	6				
young	2	3	5				
feminine	2	3	5				
dynamic	1	4	5				
stylish	-	4	4				
edgy	-	4	4				
beautiful	1	3	4				
chic	2	2	4				
original	2	2	4				
new	2	2	4				
contemporary	2	2	4				
power / powerful	1	3	4				
effortless	2	2	4				
desirable, sharp, romantic, graphic , classic 등			3				
pure, romantic, airy, architectural, crisp, relevant, upbeat, sporty,wearable, active, refined, vintage 등			2				
intense, ambitious, unexpectedly, bold, media-blitzed, unorthodox, unfussy 등			1				

## 제 4 장 보그와 뉴욕타임즈에 나타난 21세기 패션의 모던 표현특성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실질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션 미디어에서 모던으로 묘사하고 있는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그의 모던 패션 관련 기사는 패션아이템의 실루엣, 소재, 색상 등에 관한 조형성에 관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모던으로 묘사된 셀러브리티 혹은 인플루언서들의 스타일이나 특성에 관한 내용의 빈도가 높았다. 뉴욕타임즈에서도 패션아이템의 조형성을 묘사한 모던 관련 기사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패션 트렌드에 관한 기사가 보그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점이 특징이었다.

[표 3-1]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기사의 빈도 (보그/뉴욕타임즈)

특성	빈도	
	보그	뉴욕타임즈
1.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 (실루엣, 소재, 색상)	184	301
2. 패션 아이템의 착장 방식	45	31
3. 인물 (디자이너,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 등)	79	81
4.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41	123
총 기사 수	349 개	536개

## 제 1 절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모던으로 묘사된 빈도가 높은 대표적 패션 아이템은 드레스였는데, 주로 장식이 많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에 소매가 없거나(sleeveless), 여유 있고(little body conscious), 등이 파인(backless) 특징을 보였다. 특히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질 샌더(Jil Sander), 콤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등 여러 디자이너들의 심플한 리틀 블랙 미니드레스가 모던으로 묘사되는 사례가 많았다(Singer, 2007). 21세기 패션에서 재킷은 모던 아이템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심플하고 캐주얼하면서도 실용적인 오버코트 또는 스포츠 코트 등이 모던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하이패션 브랜드들이 제시한 트랙터 재킷, 트레이닝수트 같은 노코어(normcore) 아이템이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새로운 모던으로 묘사되기도 했다(Trebay, 2017). 또한 모던으로 묘사된 블라우스의 주요 특징은 원단이 너무 새것처럼 보이지 않게 가공하거나, 너무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중용의 표현이었고(Kane, 2008), 셔츠에서 모던은 가벼운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 혹은 장인에 의해 만들어져 복잡한 구조를 가진 질 좋은 제품이지만 단순해보이고, 예상하지 못한 디테일이 숨겨진 아이템을 의미하고 있었다. 티셔츠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은 유머 있거나 메시지를 가볍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최근에는 후드가 달린 큰 사이즈로 얼굴이나 신체를 감추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숨는 경향이 나타났다. 액세서리 중에는 특히 신발이 모던아이템으로 가장 많이 묘사되었는데, 빠르고 유동적인 현대 생활에 적합한 플랫폼슈즈나 사이클링에 적합한 구두, 남성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과장되고 화려한 운동화 패션 등이 모던으로 묘사되는 빈도가 높았다. 또한 시계는 주로 하이 브랜드의 전통 있는 고가의 제품들이 모던으로 묘사되었으나, 실용성보다는 환상과 욕망을 충족하는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주얼리는 주로 큰 사이즈에



단순하거나 기하학적인 스타일 그리고 예상을 깨거나 창의적인 디테일의 특징으로 묘사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보석 예술가이자 조각가 조던 아스킬(Jordan Askill)의 말, 새, 표범 등을 이용한 혁신적이고, 규칙을 깨는 주얼리들(Craddock, 2014), 델피나 델레트레즈(Delfina Delettrez)의 대형 진주로 된 안구, 거미 모티브 주얼리 등의 장난스럽지만 우아한 디자인 등이 모던 아이템으로 언급되었다. 2015년에는 한나 마틴(Hannah Martin)이 디자인한 동성 결혼 및 약혼을 위한 남성반지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다이아몬드 반지와는 다른 에메랄드로 둘러싸인 팔각형 컷의 큰 사파이어 반지로, 새로운 개념의 모던 아이템이었다 (Garrahan, 2015). 한편 켈달 제너(Kendall Jenner)와 레이디 가가(Lady Gaga)가 대중화시킨 티아라가 여러 일과로 바쁜 현대 여성들에게 유용하고, 힘을 실어주며, 자아를 증진시키는 모던 아이템으로 언급되기도 했다(Seim, 2014).

이와 같이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모던의 디자인 특성은 단순한 아름다움 속의 독창적인 디테일 표현으로 나타났고, 모던 실루엣은 활동성이 반영된 짧고, 날씬하고, 유동적인 형태였으며, 가볍고 친환경적이며,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소재가 모던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림 2-1] 모던 드레스 [그림 2-2] 모던 트레이닝 수트 [그림 2-3] 모던 슈즈

## 1. 활동성이 반영된 실루엣

모던으로 언급된 대표적인 실루엣은 활동성을 강조한 짧은 길이 (mimi) 그리고 타이트하고 날씬하거나(skinny&slim), 인체를 따라 부드럽게 흐르듯 자연스러운(sleek&fluidity) 실루엣이었다.

첫째, 21세기 패션에서 모던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대표적인 실루엣은 짧은 길이로 나타났다. 2004년 보그 기사에서 디자이너 마틴그랜드 (Martin Grant)는 코트는 비례에 관한 것이라고 하며, 트렌치코트를 미니 길이로 만들면 여름에 어울리는 모던감이 더해진다고 하였고, 2006년에는 니콜라스 게스키에르(Nicolas Ghesquiere)가 발렌시아가의 아카이브에 있는 정장을 짧은 치마로 새롭게 변경했는데 “디자인을 모던하게 만들기 위해 비율을 변경하여 놀랍게 완성했다”고 표현되었다(ANDRÉ, 2006). 또한 아르마니의 2006년 컬렉션의 아이템들은 더 짧고, 더 작고, 더 날씬한 재킷의 실루엣을 묘사한 것이었고(Menkes, 2005), 뉴욕타임즈의 2006년 샤넬 컬렉션에 관한 기사에서도 마치 하루 종일 도시 보도를 따라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을 상상한 듯, 무릎 위로 짧게 올라간 경쾌한 실루엣을 모던하다고 언급하였다(Horyn, 2006). 한편 량방의 디자이너 알버 엘바즈(Alber Elbaz)는 마리퀀트 (Mary Quant)의 미니스커트 같은, 새로운 텍시도 미니를 디자인하고, 이는 검은 넥타이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면서, 현대 여성들이 어떤 일과를 보내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Herman, 2006).

*“It’s modern to have this short length,” says Elbaz, “because it’s about what works for women, not what’s required or what designers are telling them to do. It’s not about formula anymore.”*

(Herman, 2006.10.01., The Vogue Archive)

디자이너 크리스토프 드카르냉(Christophe Decarnin) 역시 2007년 컬렉션에 관한 기사에서 이상적인 뮤즈로 배우 크리스틴 던스트(Kirsten Dunst)와 소피아 코폴라(Sofia Coppola)를 예로 들며, 편히 움직일 수 있는 미니스커트를 모던한 실루엣으로 언급하고, 이를 오늘날 소녀들의 생활양식에 잘 어울리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Always short skirts, a very modern silhouette, matching the way of life of girls today - they want to move in the clothes.”*

(Yaeger, 2007.10.01., The Vogue Archive)

뉴욕타임즈의 2012년 남성용 반바지에 관한 기사에서는 무릎 바로 위 길이가 다리를 멋지게 보이게 하고, 이 실루엣이 모던하며 깔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짧은 길이를 모던 실루엣으로 표현한 기사는 특정 연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21세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요인을 생로랑(Saint Laurent)의 디자이너 앤서니 바카렐로(Anthony Vaccarello)의 칼럼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는 다리 모양이 드러나는 디자인에 대해 이는 도발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즉 다리는 모든 것을 모던하고 스포티하게 보이게 한다고 하였다(“The halo effect”, 2018). 이는 21세기 라이프스타일의 빠른 변화와 속도에 미적 관점이 자유 그리고 활동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짧은 길이의 실루엣을 모던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패션에서 짧고 긴 실루엣이 공존하고, TPO에 따른 길이와 실루엣에 대한 제약도 사라지고 있음을 언급한 기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 드레스가 장식적이고 쿨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 무거움과 경직성이 현대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르시소 로드리게즈(Narciso Rodriguez)는 낮에 입는 긴 드레스를 좋아하며

이것이 모던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2015년 기사에서 마크 제이콥스도 “낮에는 긴치마, 밤에 짧은치마” 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패션에서 길이와 실루엣에 제약이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Mower, 2015).

둘째, 타이트하고 날씬한(skinny&slim) 실루엣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는데, 주로 활동성과 실용성이 강조된 스키니 진 혹은 레깅스의 날씬한 실루엣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2003년 보그 기사에서는 발렌시아가 (Balenciaga)의 실크 스트레치 캣수트(catsuit)를, 2007년에는 미우미우 (Miu Miu)의 스키니 팬츠를 모던 아이템으로 묘사하였고, 2009년에는 배트걸(Batgirl)과 캣우먼(Catwoman)의 타이트한 운동복 차림 그리고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흑백 달마시안 프린트의 레깅스가 모던하게 여겨졌다.

셋째, 인체를 따라 부드럽게 흐르듯 자연스러운(sleek&fluidity) 실루엣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기장이 긴 아이템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단순히 길이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자유롭게 물처럼 흐르는 유동성에 관한 것이었다. 관련 기사에 대한 분석 내용을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그의 2003년 기사에서는 마담 그레(Madame Grès)의 의상에서 영감 받은 듯한 느슨하고 인체를 따라 흐르는 자연스러운 실루엣 드레스가 오스카 시상식의 모던 비너스로 표현되었다 (Bowles, 2003). 또한 작포센(Zac Posen)의 드레스에 관한 기사에서는 모던 실루엣을 물처럼 움직이는(move like water)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2017년 기사에서는 베라 왕(Vera Wang)의 느슨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웨딩드레스를 모던으로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웨딩드레스의 노출과 타이트한 실루엣을 벗어난 것이었다(La Ferla, 2017). 한편 2018년에는 발렌티노 컬렉션에 나타난 fluidity&flexibility 실루엣이 현대 생활의 유동성, 유연성 및 지속적인 움직임을

반영한다고 묘사되기도 했다(Flights of fancy, 2018).

넷째, 194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상징적인 뉴욕(New Look)과 바 수트(Bar suit)의 모래시계 실루엣을 새롭게 변형한 것을 모던으로 언급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로써 20세기 디자이너들의 여러 대표적인 실루엣 중에서도 디올의 1940년대 실루엣이 21세기 현대패션에서 응용할 요소가 많은 디자인이며, 시간이 지나도 유행에 뒤쳐져 보이지 않는 변함없는 가치를 지닌 상징적인 실루엣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21세기 패션에서는 길고 짧은 것과 같은 대립되는 실루엣이 공존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였는데, 보그의 2007년의 기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wide&skinny 실루엣은 미학적으로 극이 아니라 철학적 반대이며, 이제 둘은 공존한다고 표현되었다(Mower, 2007).



[그림 3-1] 짧은 실루엣 [그림 3-2] 타이트한 실루엣 [그림 3-3] 유동적 실루엣

## 2. 가볍고 친환경적이며 혁신적인 기능성 소재

현대패션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소재에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에서 모던의 대표적 의미는 가벼움이었다. 모던으로 표현된

빈도가 높은 소재로는 밍크, 포니 등의 모피(fur)와 악어, 타조, 뱀피 등의 엑조틱 레더(exotic leather)가 있었는데, 주로 고급 소재 그 자체보다는 이를 더 어리고 활기차게 보이도록 디자인하거나, 가볍게 가공한 것을 모던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그의 2012년의 기사에서는 할머니의 옷장에 있던 것처럼 느껴지는 갈색 모피의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표면을 깎아 벨벳으로 오해될 만큼 가볍게 가공한 것을 모던으로 표현했고, 모던 모피의 특징을 가벼움(lightness of being)으로 묘사한 기사에서는 안감에 댄 뺏뺏한 타프타 라이닝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L.Y., 2012). 또한 알버 엘바즈의 모피 재킷 앞면은 밍크로, 뒷면은 직물로 남겨 두는 비용을 낮추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이 모던으로 언급되기도 했다(Horyn, 2009). 모피 디자인의 대가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도 밍크를 가볍게 하는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밍크를 가지고 선글라스, 가발과 같은 모자 그리고 심지어는 고양이를 위한 장난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개발의 다양성을 제시했다(Yaeger, 2013). 한편 브랜드 마르니(Marini)에서 여름컬렉션에도 모피를 사용하는 것을 모던으로 표현하거나(Martin, 2005), 더블 캐시미어(double cashmere)를 두 겹지만 가볍게 만드는 것이 모던 스타일의 본질이라는 기사도 있었다(Menkes, 2008). 패션 액세서리의 소재 중에는 샤넬의 시계에 사용된 고무, 크록스와 라코스테의 젤리슈즈에 사용된 플라스틱, 장 폴 고티에 쇼에 사용된 투명 플라스틱과 시스루(see through) 등이 모던 소재로 표현되었다.

둘째, 수공예로 만든 소재를 모던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2005년 알렉산더 맥퀸은 러치드 네팅(Ruched Netting)이라는 빅토리안 시대의 기법을 이용하여 만든 하얀 망(net)과 태피터를 함께 사용하여 빛나는 효과를 주고, 모던과 전통의 감성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2007년에는 영화 『Elizabeth』를 위한 종이로 만들어진 수공예 의상의 풍부한 표현이 모

던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한편 2010년 봄 알렉산더 맥퀸은 모던 기술이란 다시 수공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며, 현대 기술을 고대 공예 전통에 활용하였는데, 이는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의 그림 『Earthly Delights』를 디지털로 프린트한 다음 그것을 본떠서 다시 수공예 자카드(Hand-Loomed Jacquard)로 제작한 것이었다(Bowles, 2010). 그 외에 메탈로 연결된 사각 모티프가 있는 로다테(Rodarte)의 스웨터가 모던 수 공예품으로 표현되기도 했고, 2014년에는 디자이너 파올라 카데미토리(Paula Cademartori)가 레이저 컷 도마뱀 가죽과 아플리케를 혼합하여 전통 장인 기법으로 제작한 가방이 모던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셋째, 화려한 메탈릭 소재를 모던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2000년 기사에서 도나텔라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는 반짝이는(glitz)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단지 1980년대의 느낌을 주지만, 톤을 낮추고 다른 소재와 혼합하면 모던하다고 언급했다.

*"What makes glitz **modern**? Simple. Take one outrageous piece and tone it down with another. There must be a mix, a combination Of elements. If not, you're just too eighties!"*

(Arakas, 2000.04.01., The Vogue Archive)

2016년 기사에서도 아른거리고 반짝이는 소재가 모던으로 표현되었고,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의 반짝이가 처리된 하운드투스 울 코트를 모던으로 묘사했다. 또한 패션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입는 glittering look을 표현한 기사(Talking fashion: All that glitters, 2017)에서는 반짝이는 의상을 입는 TPO에 대한 고정관념이 와해되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넷째, 미적, 기능적 성능을 향상시킨 혁신적인 하이브리드(hybrid) 소재와 패션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3차원

실리콘 신소재가 모던으로 표현되었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직장인을 위한 의류를 만드는 회사 라파(Rapha)의 땀을 흡수하는 울 혼방 기능성 소재인 스포츠 울(Gay, 2009) 그리고 열을 이용한 웰딩과 레이저 커팅의 본딩 소재로 만든 제품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다(Michault, 2010). 2013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다양한 모던 소재들이 나타났는데, 크리스토퍼 케인(Christopher Kane)의 자기공명영상으로 만든 뇌 이미지를 스캔한 그래픽 원단 그리고 디자이너 쓰리 구에타(Tzuri Gueta)의 천연섬유와 고분자를 합성한 “레이스 페드 실리콘(lace-fed silicone)” 3차원 신소재가 공예, 패션 및 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모던으로 언급되었다. 2014년 모던 소재로는, 에르메스의 고무 처리된(hydro-rubberized) 양가죽, 캐시미어, 개버딘, 코튼 등이 있었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색채의 가벼운 원단위에 섬세한 자수가 놓여진 샤넬과 디올의 소재 등이 있었다(Horyn, 2014). 마틴쿠퍼(Martin Cooper) 컬렉션에서 모던 기술로 선보인 진(jean)은 가죽으로 보일 때까지 기름칠하고, 방수 기능도 갖추게 만든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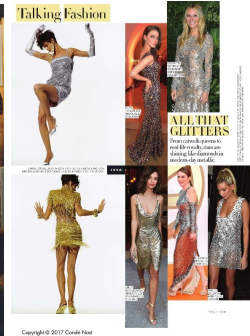
한편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1970년대를 모던 주얼리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는데, 이는 아크릴과 같은 재료로 목걸이와 팔찌를 만들면서, 다양한 창의성이 나타난 시기였기 때문이고, 모던 주얼리는 재료보다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개념이 시작된 것이었다. 2018년 기사에서도 밀레니엄 시대의 보석시장에서는 적당한 가격의 새로운 카테고리인 데미파인 보석(demi-fine jewelry)에 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고, 런던이 이에 대한 역동적인 허브가 되어 중요한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Tessa Packard London(테사 팩커드 런던)과 같은 브랜드가 레진과 에나멜을 사용한 레몬과 오이가 매달려있는 이어링과 같은 평범하지 않은 재료와 유머감각으로 모던 매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aton, 2018.).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보호를 위해 진짜 뿔을 사용하지 않



고 이를 모방한 합성 소재를 사용한 것을 모던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Menkes, 2009), 2017년 이후로는 친환경적인 소재가 모던으로 언급된 기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다섯째, 친환경 및 지속가능 소재를 모던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리바이스(Levi's)는 윤리적 노동관행과 공장 내 수질 개선을 위해 엄격한 국제규범을 시행하고 있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부드럽고, 내구성이 있으며, 기존의 재배 면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으며, 세련된 스타일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Herman, 2007). 켈빈 클라인(Calvin Klein)도 청바지에 유기농 면화를 사용하는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었는데, 역설적인 것은 청바지를 가공 없이 내버려둘수록 더 모던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한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는 “친환경적인 패션은 옷을 만드는 전통적인 기술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며, 윤리 의식과 지속가능성(ethical awareness and sustainability)의 측면을 고려해 되도록 합성섬유보다는 천연섬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11년 런웨이 투 그린(Runway to Green) 패션쇼를 위해 디자인한 첫 번째 유기농 웨딩드레스의 꽃 장식을 모두 유기농 상아 면으로 만들고, 수익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Talbot, 2011). 이처럼 환경을 고려하는 임무를 중시하고, 손으로 하는 직조 및 인쇄 기술에 대해서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친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이를 모던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모피를 흉내 낸 아이디어나 개발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속가능 인조 퍼(faux-fur) 역시 대표적인 모던소재로 여겨지고 있었다. 펜디(Fendi)는 스팅글, 시퀸과 쉬폰을 가공하여 진짜 밍크처럼 보이도록 하는 혁명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고, 하우스 오브 플러프(House of Fluff)에서는 폴리에스테르가 사용되지 않는 100% 재활용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조 모피를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오늘날 젊은이들은 실제 모피를 지위의 상징으

로 보지 않으며, 럭셔리를 혁신과 지속 가능성으로 정의하기에 새로운 인조 모피 직물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V life: Fashion culture beauty: Fashion: Across the divide, 2019). 그 외에 모던으로 언급된 무늬로는 꽃무늬가 가장 많았고, 편안한 기능성과 편리한 세탁법 등을 모던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림 4-1] 가벼운 소재

[그림 4-2] 현대 기술과 고대 공예의 혼합

[그림 4-3] 일상생활용 반짝이는 소재

### 3. 트렌드를 반영하는 색상

패션의 조형적 특성 중 특히 색상에서 모던은 단순히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모던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색상이 white, black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대부분 연도별 유행하는 색상을 표현할 때나, 특정 아이템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색상을 적용한 경우가 모던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2003년 봄 white는 유행 색상이었고,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의 white 터틀넥과 바지를 입은 르네 록펠러(Renee Rockefelle)는 모던해 보인다고 묘사되었으며, 가을에는 케이트 블란쳇(Cate blanchett)이 입은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의 기본 블랙 새틴 드레스 그리고 마틴 그랜트의 all black 슈트가 모던으로 표현되었다(Talking fashion: Vogue girl of the moment: Cate blanchett, 2003). 2005년에는 기존의 platinum이나 white gold가 아닌 gray 색상의 주얼리가 더욱 따듯한 느낌을 주고 modern하다고 표현되었고(Singer, 2005), 2006년에는 red를 모던으로 언급한 사례가 많았다(FASHION: View: Ask mrs. exeter, 2006). 또한 2007년에는 밝고, 재미있으며, 여름느낌이 나는 neon이 모던 색상으로 나타났고(Wilson, 2007), 2008년 주얼리에 관한 기사에서는 여러 색상이 혼합된 것, 2009년에는 green 색상의 주얼리를 모던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에는 전통적인 white 색상의 웨딩드레스가 아닌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가 입은 baby-pink색의 크리스찬 라크로아(Christian Lacroix)드레스가 모던으로 묘사되기도 했다(Index: Wedding guide: Marry, marry, quite contrary, 2008). 2010년 아크리스(Akris) 컬렉션에서는 emerald와 tangerine이 모던 색상으로 나타났고, 2011년 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all white 패션이 유행이었지만, 이는 순결함의 표현보다는 자신감에 가까운 의미였다. 또한 나르시소 로드리게스는 페인트가 씻겨나간 것 같은 색상을(color like washes of paint) 모던으로 표현했다. 2012년 크리스 반 아쉬(Kris Van Assche)의 컬렉션에서는 navy, ink blue 그리고 2013년에는 white 텍시도 점프 슈트가 모던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2014년 주얼리에 관한 기사에서는 black이 모던 색상으로 나타났고, 2015년 기사에서도 black은 실용성 때문에 뉴욕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이며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Cunningham, 2015).



[그림 5-1] 모던으로 묘사된 white 색상

[그림 5-2] 모던으로 묘사된 baby pink 웨딩드레스 색상

연구결과, 모던으로 묘사된 색상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찾을 수 없었고, 색상에는 모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모던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컬러는 black과 white였다.

[표 4-1] 패션아이템의 조형성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패션아이템에 조형성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의류	드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편안함 &amp; 활동성</b> : 몸에 여유있고 편안하게 피팅되는 디자인의 시프트 드레스 / 요지 야마모토, 질센더의 소매 없는 짧은 리틀 블랙 드레스</li> <li>* <b>심플함 &amp; 가벼움</b> : 프릴장식이 없고, 매끈한 라인의 등이 파인 크림색 도 나카란의 니트드레스/ 가벼운 소재와 장식을 가볍게 하는 경향</li> </ul>
	재킷 & 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편안함</b> : 애쓰지 않은 것 같이 자연스러운(effortless)/ 꾸미지 않은 듯 하면서도 격식있는(nonchalant formality)/ 다른 아이템들과 잘 어울리는</li> <li>* <b>심플함 &amp; 가벼움</b> : 복잡하지 않은 디자인의 초경량 스포츠 풍 아우터</li> </ul>
	블라우스 & 셔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용</b> : 너무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리플과 디테일을 조절하는 / 원단이 너무 새것처럼보이지 않게 가공한 것</li> <li>* <b>심플함</b> : 장인이 만들어서 기능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졌지만, 단순하게 보이도록 디자인</li> <li>* <b>독창성</b> :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있는 스티치나 단추처럼 디테일이 숨겨진 것</li> <li>* <b>가벼움</b> : 실크나 쉬폰 등 가벼운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편안하고 가벼움.</li> </ul>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활동성</b> : 스키나 진 혹은 레깅스처럼 활동성이 좋은 아이템. 배기팬츠처럼 일상생활에 적합하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갖춘</li> <li>* <b>경계가 없는</b> :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seasonless), 어느 아이টে어나 어울리며(versatile), 나이나 성별의 제한이 없는(gender- obsolescent) 특징</li> </ul>
	티셔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유머</b> : 정장같은 형식을 갖추었지만 소매가 잘린 스트라이프 셔츠, 티셔츠 위에 입은 조끼, 트롱프뢰유(trompe l'oeil) 프린트로 셔스펜더가 그려진 흰셔츠 / 로고나 메시지를 긍정적이고, 가볍게 전달</li> <li>* <b>가벼움 &amp; 활동성</b> : 프라다의 메쉬 슬리브리스 니트 / 라프시몬스의 슬리브리스 가죽 탑 / 스포티한 디테일과 활동적인 소재 및 구조</li> <li>* <b>보호</b> : 큰 사이즈의 티셔츠 (Outsize everything) / 후드, 헤드기어 등으로 얼굴이나 신체를 감추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숨는</li> </ul>
액세서리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실용성과 활동성</b> : 키튼 힐과 플랫폼 슈즈, 스니커즈의 활동성 / 내마모성과 미끄럼방지 기능을 갖춘 사이클링용 메리 제인)</li> <li>* <b>가벼움</b> : 크록스의 젤리샌들, 라코스테의 플라스틱 슈즈.</li> <li>* <b>독창성</b> : 모든 구속을 버리고 자유롭게 착장하는 남성들의 괴상하고 화려한 스니커즈 트렌드/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변화시키며 회색 정장의 패러다임과괴</li> </ul>
	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환상</b> : 최초의 방수 시계인 1927년 롤렉스(ROLEX)의 오이스터(Oyster)와 같이 역사와 기능성을 갖춘 제품들은 실용성보다는 환상과 욕망을 충족하는 아이템 / 한정판 시계</li> </ul>
	주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심플함</b> : 장식 없이 심플하거나 주로 큰 사이즈의 주얼리 / 경박하거나 꽃과 리본으로 가득 차지 않은 디테일 / 고급 스타일이 수수한 요소에서 나올 수 있음을 반영</li> <li>* <b>독창성</b> : 조던 아스킬의 말, 새, 표범 등을 이용한 예상을 깨는 창의적인 주얼리 / 델피나 델레트레즈의 대형 진주로 된 안구, 거미 모티브 등의 장난스럽지만 우아한 디자인</li> </ul>

## 제 2 절. 패션 아이템의 착장 방식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21세기 패션의 착장 방식에서 모던은 주로 이질적인 요소나 과한 디테일을 절충하여 입는 감각 그리고 전통적 착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거나, 편안하고 느슨한 스타일, 특정 악세서리로 포인트를 주거나, 여러 아이템을 겹쳐서 착용하는 스타일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메시지 혹은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시위 혹은 항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색상을 단채로 맞춰 입은 착장도 모던으로 표현되었다.

### 1. 조화와 중용

2000년대에 모던으로 묘사된 착장은 빈티지와 관련한 기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빈티지 제품의 디자인을 변형하거나 현대의 제품과 어울리게 조화시켜 함께 입는 감각을 모던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줄리아 로버츠(Julia Roberts)는 1982년에 디자인된 발렌티노의 빈티지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는 가장 트렌디한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여야한다는 할리우드의 관습을 깬 시도였고, 이를 계기로 빈티지 의상을 입는 것은 가치 있고 안목 있는 패션으로 여겨지게 되었다(Czerwinski, 2004/2010). 배우 르네 켈위거(Renee Zellweger)도 아돌포 & 갈라노스(Adolfo & Galanos)의 빈티지 드레스의 넥 라인을 잘라내고, 가슴골을 보이도록 재 디자인하여 2001년 골든 글로브 시상식 때 착용했는데, 이는 섹시하고 모던해 보였다고 묘사되었다(Heyman, 2003). 한편 모던 착장은 옛 것과 새로운 패션아이템 그리고 영감이 뒤섞인 것이라고 언급한 기사에서는, 빈티지 프레드 레이튼(Fred Leighton) 금시계와

2000년의 프라다 꽃무늬 드레스를 매치하거나, 빈티지 마담그레(Madame Gres)의 드레스와 엘사 페레티(Elsa Peretti)가 디자인한 티파니(Tiffany)의 팔찌를 매치하는 등의 신제품과 빈티지 제품을 조화롭게 착장하는 여러 예시를 제시했다(Singer, 2000). 이처럼 빈티지 착장은 이제 럭셔리와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전 세계 레드 카펫에서 볼 수 있으며, 옛날 옷을 재 디자인하는 모던 트위스, 즉 업 사이클링(upcycling) 착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돕는 역할을 하기에, 미래에 관한 것으로 현대 패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던은 과한 것을 중용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프라다의 리조트용 모던 스포츠웨어는 스포티함과 여성스러움의 조합으로, 오간자 페티코트를 레이어드한 50년대 디올 풍 스커트와 스포티한 니트를 매치한 착장이었다. 또한 2003년 보그 기사에서는 리틀 블랙스커트를 흰색 탱크 탑과 함께 입는 것을 50-60년대의 숙녀 같은 정숙함을 벗어난 모던착장으로 묘사하였다(Mower, 2003). 한편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의 샤넬 레이스 드레스는 여성의 몸을 가리는 것과 가볍게 드러내는 것 사이의 에로틱한 표현을 섬세하게 잘 조절한 모던으로 묘사되기도 했다(Mower, 2001b).

## 2. 전통을 넘어선 독창성

모던은 TPO, 성별 등 전통적 관습을 넘어 독창성을 발휘한 창작 방식을 의미하고 있었다.

TPO의 고정관념을 넘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작의 예시로는, 칵테일 마실 때 어울렸던 유행 지난 미니 랩 드레스를 수영장 점심 식사를 위해 비키니 위에 걸치는 것 혹은 작년의 저녁 식사 때 입었던 보스 같은 슈

트를 주말착장으로 위아래를 분리해서 편안하게 입는 방법이 있었다. 디자이너 모탈리오글루(Moralioglu)도 수영할 때 복장과 이를 일상복의 연장선으로 자유롭게 매치하는 착장을 모던으로 묘사했는데, 비키니 상의 위에 카디건을 입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주는 것들을 섞는 것을 제시했다(Nnadi, 2012). 한편 발렌시아가의 니콜라스 게스키에르는 레드카펫을 위한 브랜드간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브닝드레스를 디자인하지 않고, 대신 미니스커트와 재킷 착장을 제시했고, 칼 라거펠트도 레드카펫용 스틸레토의 진부함을 벗어나는 새로운 착장으로 플랫폼들(flat thongs)을 이브닝드레스와 매치하는 착장을 제시했는데, 이는 아름다운 시폰 드레스를 입고 걷는 전혀 다른 방식을 만든 것으로, 부드럽지만 중요한 변화를 표현한 영리한 것으로 묘사되었다(Mower, 2004). 또한 모던 우먼은 자전거, 바이크, 스케이드 보드 등을 타고 이동하면서 스포츠웨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착장을 하는 여성이라는 기사에서는 드레스를 입고 일렉트라 크루저를 타거나 자전거 타는 착장 등이 모던으로 나타났다(Flash: Talking fashion: Belles on wheels, 2008).

모던 착장은 성별 구분이 약한 특성을 보였다. 2014년 기사에서는 남성들의 짧은 반바지와 스포츠 타이즈 착장을 모던으로 묘사하였고, 마르니 컬렉션에서는 회색 레깅스, 이세이 미야케 컬렉션에서는 사이키델릭 프린트 타이즈와 어울리는 슈트 앙상블을 선보였다(Neilson, 2014). 또한 어울리지 않는 바지와 재킷의 정장 그리고 강한 색깔과 패턴을 조합하여 입는 과감하고 언밸런스한 착장이 이제 모던 남성들의 매우 본질적인 패션이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Treby, 2015).

관습을 넘어선 창의적 착장으로는, 2007년 보그 기사에서는 슈트를 위아래 셋트로 입는 것은 더 이상 모던착장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따로 입을 것을 제안하였고(À Tout de suit, 2007), 크리스토퍼 베일리(Christopher Bailey)는 테일러링 슈트는 이제 더 이상 일하는 여성의 유



일한 선택이 아니고, 미셸 오바마처럼 재킷대용으로 가디건을 입는 것이 모던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면접을 위한 모던 착장에 관한 기사에서도 심플한 캐시미어 가디건과 펜슬 스커트 또는 테일러드 팬츠를 입은 착장이 세련되어 보이고, 스포츠웨어 앙상블 룩은 창조적인 분야의 인터뷰에 적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Wilson, 2008). 즉 현대에는 수트의 상하의를 셋트로 입는 것보다는 따로 입는 것 그리고 재킷보다는 가디건과 같은 편안한 아이템과 스타일링 하는 것이 더 모던하게 느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2008년 보그 기사에서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은 텍시도 조끼를 카고 바지에 매치하거나, 정장용 바지를 반바지로 바꾸어 입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디너 재킷을 모던하게 입는 방법으로는 재킷과 일치하는 색상의 나비넥타이 보다 조금 더 색상차가 나는 다른 액세서리들과 매치하거나, 셔츠를 재킷과 같은 색조로 입는 것 혹은 멋진 양말이나 모카신 등으로 포인트를 주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착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Belcher, 2013). 그 외에 찢어진 청바지에 텍시도 재킷을 함께 입는 것, 고지식한 소재로 느껴지는 코듀로이를 트렌치코트나 조깅 팬츠 아이템으로 입는 것, 벨벳 재킷을 낡은 청바지나 미니스커트, 티셔츠 등과 함께 입는 것 등이 모던 착장으로 묘사되었다. 한편 2004년 기사에서 끌로에(Chloé)는 여성들이 패션에 대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감과 힘을 얻고, 개인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내도록 하기위해, 비즈니스 복장과 주말에 입는 옷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디스플레이 한다고 하였다(Menkes, 2004).

이처럼 대부분의 기사에서 모던 착장의 특징은 관행과 TPO를 깨는 특징을 보였는데, 퍼스트레이디의 외교복장(sartorial diplomacy)에서는 TPO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오히려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2017년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돌체 앤 가바나의 흰 바지 정장과 검은 셔츠로 몸을 완

전히 가렸고, 파리를 방문했을 때는 프랑스와 미국의 깃발 색상에 맞추어 세 차례 공개 석상에서 빨간색, 흰색, 파란색의 의상을 입는 등 각 국가의 상황과 TPO에 맞는 착장을 선보였고, 이는 세련된 모던착장으로 표현되었다(Friedman, 2017).

### 3.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멋

모던은 자연스럽게, 편안하며, 여유 있는 착장으로 표현되었다. 2000년도 보그의 기사에서 아르마니(Armani)의 모던 비즈니스 수트는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격식 있는 특성으로 표현되었다.

*Armani is inextricably associated with the **modern business suit**, with its **nonchalant** formality and its gender-blending styling. He virtually drafted the dress code for high-powered attorneys and money brokers. He brought comfort and reason to the world of grandeur.*

(Givhan. 2000.10.01., The Vogue Archive)

또한 2001년에는 트루사디(Trussardi)의 편안한 하이웨이트 바지와 길게 늘어뜨린 재킷 그리고 풀어진 벨트 같은 느슨한 착장이 모던으로 언급되었다. 2002년 제냐(Zegna)의 컬렉션에서도 재킷에 헐렁한 반바지를 코디한 것을 편안하고 우아하며, 신선한 조합으로 묘사하였고, 베라왕 역시 너무 많은 장식이나 과한 머리와 화장은 나이 들어 보인다고 말하며, “지금 모던한 것은 낮에 입는 것만큼 편안한 저녁 야회복을 입는 것”이라고 언급했다(Mrs. exeter: Style council: Leave the meringue-skirted explosions of froufrou to the fairy tales, 2004). 또한 2002년 니나리치

(Ninaricci)컬렉션의 긴 오간자 드레스와 가디건 착용도 마치 옷을 입지 않은 듯 편안한 모던으로 묘사되었고, 오프 화이트(off white)의 수장 버질 아블로(Virgil Abloh)는 모던 유니폼으로 "Business Casual"을 언급했는데, 이는 정장슈트가 아닌 편안한 스웨트 셔츠, 스니커즈 그리고 진을 의미했다.

2019년에는 남성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 위해 옷을 입는 현대 여성들을 위한 언더와이어가 없는 브라렛(bralette)을 코디하는 착장이 모던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가슴을 자연적인 형태 그대로 두어 편안한 행복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yett, 2019). 한편 2010년에는 여성들에게만 애용되었던 모던 거들 브랜드 스팅스(spanx)에서 남성을 위한 보정 속옷을 출시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21세기 패션에서 여성들은 신체의 자유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들은 오히려 신체를 구속하고 있는 트렌드가 나타난 것도 감지할 수 있었다.

#### 4. 신념과 향의를 전달하는 메시지

21세기 패션에서는 사회적 불만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단체로 옷을 맞추어 입는 패션을 모던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프랑스의 형광 노란색 조끼 "gilet jaune"은 반란의 모던 유니폼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연료 가격 상승 그리고 소득 불평등 증가와 같은 사회적 불만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격렬한 향의였다(Friedman, 2018b). 한편 2019년 9월 런던 패션 위크의 마지막 날에는 검은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시위대가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 '패션을 위한 장례식' 행진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XR(Extinction Rebellion)이라는 단체에 의한 것으로, 이들은 런던 패션위크의 취소를 요구하거나, "R.I.P. LFW(Rest In Peace. London Fashion Week), 1983-2019", "Fashion = Ecocide"와 같은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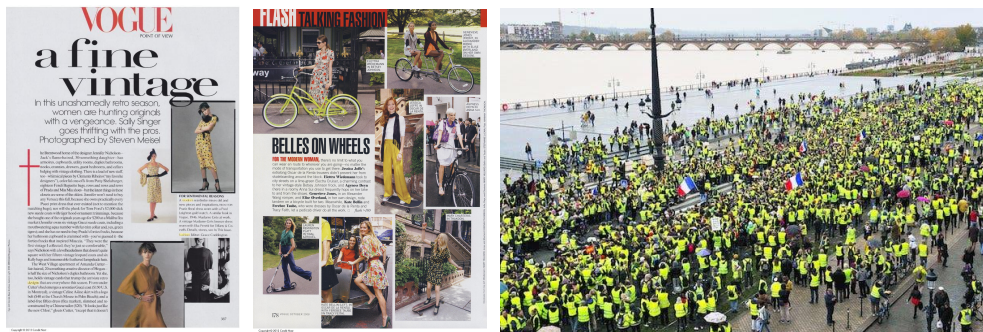
가 새겨진 포스터를 팔며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패션산업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실제로 UN에 따르면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10%가 패션산업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소비를 막는 것은 패션 산업이 아닌 지구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시위였다(Paton, 2019a). 이러한 관행들은 정치나 사회 구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와 같이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새로운 주요의미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시위 혹은 항의였다. 한편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비 엘리트주의자임을 보여주고,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의미에서 훌륭한 관리자가 될 수 있음을 어필하고자 저렴한 시계를 착용하였는데, 이는 젊음, 건강, 재정적인 신중함이라는 정치적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Williams, 2014).

## 5. 멀티 레이어링

액세서리로 포인트 주는 착장이 모던으로 묘사되고 있었는데, 2000년 초반 기사에는 주로 원피스에 부츠로 포인트를 주는 착장이 나타났고, 주얼리 착장 중에 여러 겹을 레이어링 하는 스타일을 모던으로 표현한 사례가 많았다. 돌체앤 가바나(D&G)의 체인을 여러 겹으로 한 목걸이, 그리고 진주가 뒤범벅된 형태의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 코걸이 등의 여러 장신구를 함께 착장하는 것 그리고 진주를 가지고 놀듯이 얼굴의 메이크업으로 활용하는 평범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모던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손가락 전체에 반지를 낀 것이 모던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 이는 휴대 전화, 전자메일 확인 등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패션혁명을 일으킨 21세기의 디지털 제스처가 된 것이고, 따라서 손 장식이 패션의 초점이 된 것이라는 사회 공학적 설명의 기사도 있었다(Mower, 2012). 이처럼 패션 착장에서의 모던은 유행, 최신이라는 의미에서 확장

되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다채로운 표현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신발과 가방의 스트랩을 똑같이 맞추거나 가방과 모자의 프린트를 맞추는 등 소재의 무늬나 색상을 통일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일하는 탑-투-토-룩(top-to-toe look)이 모던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액세서리를 소재나 색상에 맞추어 착장하는 것은 정교한 일이며, 이는 어떤 결과나 나타날지 고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편리함이 있다고 하였다(Limnander, 2000). 이러한 2000년대 초반의 대표 착장이었던 토탈 룩(total look)은 단순히 똑같은 원단과 프린트로 착장을 맞춘다는 의미보다는 엄마의 옷장에서 꺼낸 것 같지 않도록 젊은 감성으로 매치하거나, 스타일링의 고민을 덜어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모던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그림 6-1] 이질적 요소를 조화하는 모던 착장

[그림 6-2] TPO에서 자유로운 모던 착장

[그림 6-3] 메시지 전달 기능의 모던 착장

[표 4-2] 패션아이템의 착장 방식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패션 아이템의 착장 방식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1. 조화와 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티지 프레드 레이튼 금시계와 2000년의 프라다 꽃무늬를 조화롭게 매치한 착장</li> <li>- 프라다의 모던 스포츠웨어는 스포티함과 여성스러움의 조합</li> <li>- 오간자 페티코트 스커트와 스포티한 니트의 매치.</li> <li>- 리틀 블랙 스커트와 흰색 탱크탑 착장으로 지나치게 숙녀 같은 정숙함을 벗어난 착장</li> </ul>
2. 전통을 넘어선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들의 짧은 반바지와 스포츠 타이즈 착장.</li> <li>- 플랫폼들과 이브닝 드레스를 매치한 레드카펫 착장.</li> <li>- 텍시도 조끼를 카고 바지에 매치하거나, 반바지착장.</li> <li>- 자전거, 바이크, 스케이드 보드 탈 때 스포츠웨어 아닌 드레스를 입는 것.</li> </ul>
3.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웨이스트 바지와 길게 늘어뜨린 재킷, 풀어진 벨트착장.</li> <li>- 일상복 만큼 편안한 이브닝 웨어</li> <li>- 긴 오간자 드레스와 가디건을 입는 편안한 착장</li> <li>- 21세기 비즈니스 슈트는 sweatshirt, sneakers, jeans의 착장</li> </ul>
4. 신념과 항의를 전달하는 메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 가격 상승과 소득 불평등 같은 사회적 불만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격렬한 항의: 형광 노란색 조끼 gilet jaune</li> <li>-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패션산업에 대해 반기를 들기위해 단채로 맞춰입은 XR 단체의 검은색 의상</li> </ul>
5. 멀티 레이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겹으로 레이어링하는 주얼리, 열손가락 반지</li> <li>- 귀걸이 코걸이 등의 여러 장신구를 함께 착장</li> </ul>

### 제 3 절. 인물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패션과 관련한 기사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유명인사들은 패션 에디터, 배우, 가수, 정치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는데, 이들이 지닌 모던 특성은 경계와 장벽을 허무는 절충적인 스타일이나 우아함, 절박하게 보이지 않는 여유, 규범에 도전하는 태도와 겸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생각

해내거나 다재다능함, 패션쇼 앞자리에 초대되는 능력 그리고 성적 매력을 강조하지 않는 것과 아름다우면서도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인식하지 않는 점 등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거나 소통능력이 좋은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을 모던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 1. 명석하고 다재다능하며 뛰어난 소통 능력

2000년에는 배우 케이트 블란쳇(Cate Blanchett)의 우아함과 똑똑하고 집중적인 면 그리고 모델처럼 옷을 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이 모던하다고 표현되었다(Woods, 2000). 또한 패션 스타일리스트 렌스콧(L'wren Scott)의 모던은 지치지 않는 근면성에 관한 것으로, 마돈나, 줄리안 무어 등의 스타들의 변신을 성공시켰고,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배우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가 옆집스타와 같은 편안한 매력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점 그리고 재미있고 친근한 매력이 모던으로 언급되었다. 한편 요르단의 왕비 라니아(Rania)는 화려하고, 명료하고, 지적이며, 국가에 실질적인 헌신을 하는 중동의 가장 위대한 모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뛰어난 평화 조력자로 언급되었다(Woods, 2009).

2010년 칼 라거펠트는 모델 알렉사 청(Alexa Chung)을 모던하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 뿐 아니라 많은 일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는 재능과 영리함을 모던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또한 모델 카라 델바인(Cara Delevingne)도 “모든 것을 모던하고 올바르게 보이게 한다”고 말했는데, 특히 그녀는 “친구,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를 지녔고, 대중들은 웹에서 그녀의 바보 같은 셀카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Mod goddess, 2014). 즉, 그녀가 모던으로 표현

된 것은 뛰어난 소통능력 때문이었는데, 모델 지지 하디드(Gigi Hadid) 역시 1900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로 인증된 대표적 패션명사로 언급되었다. 2014년에는 유대인 생활 웹사이트인 파블로지(Fabologie)를 만들어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아디 헤이먼(Adi Heyman)이 모던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한편 셀레나 고메즈(Selena Gomez)는 작은 키에 모델 같은 몸매도 아니지만 패션쇼의 가장 앞에 앉는 셀러브리티로 성숙한 모던 파워를 지녔다고 언급되었다(Guiducci, 2016).

## 2. 여유로우며 주체적인 태도

2001년에는 모델 케이트 모스(Kate Moss)가 모던 아이콘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일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것으로, 모델 일을 직업이나 임무가 아닌 듯 절박하게 대하지 않고, 편안하고 여유롭게 하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프랑스 가수 francoise hardy(프랑수아즈 아르디)는 10년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카리스마 있고 아름다우며, 음악적으로나 스타일로나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도, 그녀 자신을 잃지 않는 면이 매우 모던하다고 묘사되었다. 배우 기네스펄트로(Gwyneth Paltrow)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모던이라는 기사에서는, 그녀가 심각하지 않고, 재미에 관심이 있고, 까다롭지 않으며, 힘들이지 않은 듯한(effortless), 편안하고 자신 있는 태도를 지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Keira Knightley)가 성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고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스스로 본인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않는 점이 모던하다고 표현되었다.

2008년에는 6 피트 키에 지미추(Jimmy Choo)슈즈와 헵번스타일 플랫폼 선호하는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의 품위(grace)와 용기(grit) 그리



고 진정한 힘을 가진 외모와 분위기가 모던한 것으로 묘사되었다(Flash: It girl: Michelle obama, 2008).

한편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는 지방시(Givenchy)와 새로운 향수 사업을 시작했는데, 단순히 자신의 유명한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글로벌 접근과 창조성을 이용해 브랜드의 언어를 바꾸었다고 평가되었다. 그의 이러한 유명세에만 기대지 않은 새로운 창조가 쿨하고 모던한 것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2018년 기사에서는 영국의 공주 유제니(Eugenie)가 모던으로 묘사되었는데,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로 등에 큰 흉터가 있지만,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등의 흉터를 그대로 드러내는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점 때문이었다(Paton, 2018b).

### 3.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 감각

보그와 뉴욕타임즈에서 모던으로 가장 여러 차례 언급된 셀러브리티는 미셸 오바마였는데, 그녀는 자신의 직위, 규칙에 따라 옷을 입지만, 전통 안에서 개인적인 스타일을 고수하고, 또한 유명인사처럼 스타일에도 신경써야하는 영부인의 역할을 잘 이해하는 모던함을 지니고 있다고 묘사되었다(Horyn, 2012). 예를 들어 재킷 대신 가디건을 입는 착장이 대표적인데,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면이 강력한 여성의 특징이고, 그녀가 모던으로 언급되는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퍼스트레이디임에도 작은 디자이너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입는 포용적인 태도와 감각이 모던으로 언급되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보좌관 휴마 애버딘(Huma Abedin)은 오스카 드 라 렌타, 베라 왕, 알렉산더 맥퀸 같은 디자이너들을 선호하며, 흠잡을 데 없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전문적인 이미지의

일부분이자 무기이고, 미셸 오바마와 다른 점은, 기발한 터치의 슈즈, 예상치 못한 벨트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멋진 패션 감각을 선보인다는 것이었다(I'm with her, 2016). 또한 레이디 가가는 언제나 놀랄 만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낸다는 점에서 모던으로 표현되었고, 배우 기네스펠트로의 누구도 생각 할 수 없던 방식으로 옷을 입는 감각과 예리한 지능 그리고 히트 록을 고르는 뛰어난 능력이 모던한 것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한편 패션 에디터 이사벨라 블로우(isabella blow)는 관대하고, 격분하고, 활기차고, 성 가시고, 거만하고, 재치 있고, 사악하고, 자기도취적으로 묘사되었지만, 항상 시대를 앞서갔고, 겁 없이 도전했다고 하며, 그녀의 총명함 그리고 괴짜 같은 모든 면이 완벽한 융합이며, 동시에 매우 모던하다고 묘사되었다(Andre, 2007).

그 외에 20세기 초의 디자이너 중에는 폴 푸아레가 최초의 모더니스트로 가장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랑방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한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남자, 여자, 아이들, 향수, 장식 등 현재 패션하우스를 구성하는 이 모든 생각을 20세기 초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던하다고 묘사되었다(Schneier, 2015). 한편 21세기 디자이너 중에는 2008년에는 알렉산더 맥퀸과 라프 시몬스가 모던 디자이너로 묘사되었고, 2012년 기사에서는 질 샌더가 세기 중반의 모더니즘을 재해석한 전형적인 디자이너로 묘사되었는데,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동성을 인식하고 패션을 능률화하는데 헌신한 점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한편 오프화이트(Off-White)와 루이비통(Louis Vuitton)과의 작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Virgil Abloh)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격차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세계를 스타일링하는 모던 디자이너의 정의로 묘사되었다(The man who styled the world, 2019). 2019년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디자이너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을 가장 모던한 발명가로 표현했는데, 그녀는 스

위스의 입자물리학 실험실에서 일하는 유일한 디자이너일 것이며, 신화나 우주론 같은 고전적인 아이디어와 DNA 공학과의 조화로운 융합에 대해 생각하고, 창조성과 기술 사이에서 능숙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Friedman, 2019).



[그림 7-1] 모던으로 묘사된 셀레나 고메즈의 능력

[그림 7-2] 미셸 오바마의 여유로우며 주체적인 태도

[그림 7-3] 시대를 앞서는 감각의 디자이너 버질아블로

[표 4-3] 인물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디자이너,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1. 명석하고 다재다능하며 뛰어난 소통 능력	* <b>다재다능&amp;근면성</b> : 패션 스타일리스트 렌스콧의 근면성과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만들어서 사용하는 능력
	* <b>영향력</b> : 셀레나 고메즈는 Mexican-American의 아이콘이고, 작은 키에 모델 같은 몸매도 아니지만 패션쇼의 가장 앞에 앉는 성숙한 모던 파워를 지님
	* <b>명석함</b> : 국가에 실질적인 헌신을 하는 뛰어난 평화 조력자인 왕비 라니아
	* <b>소통능력</b> :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로 바보같은 셀카를 주로 올려 소통하는 모델 카라 델 바인/ 1900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로 인증된 대표적 패션명사 지지 하디드/ 유대인 생활 웹 사이트인 파블로지를 만들어 모든 배경의 여성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아디 헤이만
2. 여유로우며 주체적인 태도	* <b>여유</b> : 모델 일을 직업이나 임무가 아닌 듯이, 절박하게 대하지 않고 편안하고 여유롭게 하는 모델 케이트 모스
	* <b>편안함</b> : 옆집스타 같은 편안한 매력과 팬들에게 용기를 주는 배우 사라 제시카파커
	* <b>effortless</b> : 심각하지 않고, 재미에 관심이 있고, 까다롭지 않으며, 힘들이지 않은 듯한 편안하고 자신 있는 태도의 기네스펠트로 / 아름다우면서도 그것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성적매력을 강조하지 않는 키이라 나이틀리
	* <b>주체성</b> : 음악적으로나 스타일로나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가수 프랑수아즈 아르디/ 척추측만증 교정수술로 등에 큰 흉터가 있지만,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등의 흉터를 드러내는 웨딩드레스를 선택한 공주 유제니.
3.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 감각	* <b>창의성</b> : 레이디 가가의 언제나 놀랄 만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점
	* <b>도전정신 &amp; 시대를 앞서가는</b> : 관대하고, 항상 앞서갔고, 겁없이 도전하며, 총명함과 괴짜같은 모든 면의 완벽한 융합인 패션에디터 사라블로우
	* <b>포용</b> : 미셸 오바마는 영부인임에도 작은 디자이너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입는 포용과 감각을 지님
	* <b>전통 안에서 개성창조</b> : 미셸 오바마는 자신의 직위, 규칙에 따라 옷을 입지만 재킷 대신 가디건을 입는 등 전통안에서 개인적인 스타일을 고수

## 제 4 절.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보그와 뉴욕타임즈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21세기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의 대표적 특성은, 인종, 지역, 성별, 아름다움의 고정관념에 대한 경계가 무너진 현상이었다. 또한 급진적인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패션 산업을 실리적이고, 국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대중들의 사회적 불안감은 고조되어,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패션에도 나타나 개인을 심리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보호해주는 다양한 의류와 액세서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1. 고정관념에 대한 경계 와해

디자이너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는 모던은, 모든 순간들의 혼합. 즉, 낮, 밤, 계절의 총 혼합으로 패션은 어떻게 그것을 입고 무슨 일을 하는지 관한 개인의 전부라고 언급했다(Kors, 2000). 또한 “오늘날 패션에는 경계가 없다”고 하며 자유로운 형태의 아름다운 태도를 강조했는데, 신선하고 모던한 느낌은 도시에 있을 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길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놀라움이라고 하며, 나이, 체형, 민족 및 전통적인 여성성에 대한 관계의 범위를 뛰어 넘어 다양한 모델을 기용한 패션쇼를 언급하였고, 혼합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다(Singer, 2017). 2003년 디자이너 베라 왕은 화장품 에스티 로더(Estee Lauder)의 최초 흑인 모델이 된 리아 케베데(Liya Kebede)에 대해 그녀는 아름다움에 대한 온전히 모던한 방법이라고 표현했는데(Andre, 2003), 이는 전통적으로 백인이 차지했던 화장품 모델의 영역이 흑인 모델에 의해 확장된 것을 모던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2019년에는

디자이너 Pierpaolo Piccioli(피에르파올로 피치올리)의 발렌티노 그리고 에크하우스 라타(Eckhaus Latta)의 패션쇼에서 모든 연령, 체형, 인종과 성별의 구분을 없애는 모델을 기용하는 비전통적인 캐스팅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modern language of fashion"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Phelps et al., 2019).

*Eckhaus Latta hasn't displaced that glam, but it has carved out a space in the New York scene for an alternative, spearheading trends such as nontraditional casting, using models of all ages, shapes, ethnicities and type: and gender neutrality. It's a **modern language of fashion** that the duo speak fluently.*

(Phelps et al., 2019.11.01. The Vogue Archive)

같은 맥락에서 2019년 LVMH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리한나(Rihanna)를 영입하여 펜티(FENTY)라는 이름의 새로운 레이블을 런칭할 것이라고 공식 성명했는데, 이로써 리한나는 LVMH 그룹의 브랜드를 만든 최초의 여성이자, 주요 럭셔리 패션 하우스를 이끌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모던 시도로 묘사되었다(:A new world, 2019).

이러한 경계완화 현상은 대중들의 미의식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1세기에는 성형과 시술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움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타인이 아닌 개인의 만족을 위한 패션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작은 키의 스타일리스트 케이트 폴리(Kate Foley)는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여, 몸의 단점을 보완하려고하기보다는 자신이 입고 싶은 것을 입는데, 이는 작은 키가 더욱 강조되는 길거나 볼륨있는 옷 등을 말한다. 그녀는 완벽함은 오히려 너무 평범하게 느껴진다고 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현대 여성들이

옷을 입는 방식이라고 언급되었다(Holt, 2011). 한편 모던 여성은 얼굴에서 섹스어필이 아니라 신중한 자신감을 중시한다는 기사(The feminine mystique, 2014), 그리고 많은 여배우들이 그들의 커리어에 가슴 수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는 페미니즘과 패션과의 단절처럼 모던하지 않다는 기사 등이 있었다(Brown, 2007). CR fashion book의 편집장 카린 로이펠트(Carine Roitfeld) 역시 볼 살이 빠지고, 자연스레 주름이 생겨 나이트 자신의 자연스러운 얼굴이 모던하다고 언급하였다.

*“I think my face is more **modern** now. I don’t have the round cheeks I used to have. I have a few wrinkles, but I don’t care about them. My skin is OK.”*

(Mower, 2001a.08.01. The Vogue Archive)

브랜드 바자 이스트(BAJA EAST)의 디자이너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타이트한 옷을 입지 않아도 여성이 섹시하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좋아한다고 하였는데(Holt, 2014), 이처럼 21세기의 아름다움은 원래 모습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이라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8-1] 다양한 체형과 인종의 모델

[그림 8-2] LVMH의 브랜드를 이끄는 최초의 흑인 여성 리한나

## 2. 소셜 네트워크 발달에 따른 국제화와 융합

21세기 소셜 네트워크의 급진적 발달로 인해 패션 산업에는 온라인을 통한 쇼핑의 확산과 온라인을 통한 패션쇼의 대중화 그리고 여론 법정 역할에 의한 저작권 보호 현상 등이 나타났고, 패션 산업은 더욱 실리적이고, 국제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버버리의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베일리는 최첨단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그간 하이브랜드가 대부분 독점하고 정의했던 패션 상황을 글로벌하게 변화시켰는데, 2009년에는 버버리 애호가들이 길거리에서 트렌치 록을 찍고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Art of the Trench를 출시하였고, 2010년에는 3D로 버버리 Prorsum 라이브를 뉴욕, 파리, 두바이, 도쿄 및 로스앤젤레스에 방송하여 매출을 60% 상승시켰다(Sullivan, 2011). 또한 토미 힐피거(Tommy Hilfiger), 알렉산더 왕 및 기타 디자이너들이 수용한 모던 패션쇼 "see now, buy now"는 패션쇼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즉각적으로 보고 상품을 바로 구입 가능하도록 하였고, Rent the Runway와 같은 플랫폼을 등장시켰으며, 속도와 편의를 우리의 일상적인 옷장으로 연결하였다. 한편 조나단 앤더슨은 2016년 가을 남성복 컬렉션을 게이와 양성애자 남성들에게 인기 있는 소셜 앱(social app)인 그라인더(Grindr)에서 열었는데, 이를 통해 접속자들은 패션쇼도 보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도 시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는 패션도 궁극적으로 섹시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그라인더 역시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인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Schneier, 201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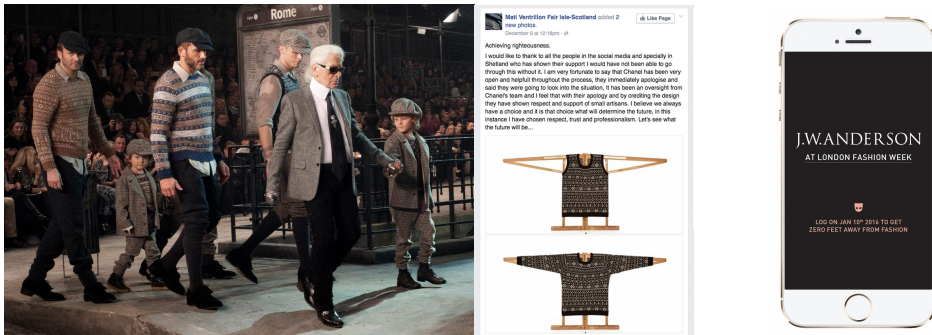
2015년에는 샤넬이 브랜드 마티 벤틸리온(Mati Ventrillon)의 스웨터를 카피한 일이 있었는데, 이 브랜드는 샤넬의 카피사건을 실제 법정으로 데려 가지 않고, 인터넷상에 공유하는 여론의 법정에 세워 즉시 사과를 받는 효과를 거두었다(Friedman, 2015).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의 발



달은 현대 패션의 풍경을 이전에 없던 창의적 방식으로 다양화시키고, 국제적이며 실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패션 업계에 나타난 경계완화 현상과 융합의 트렌드는 쿠튀르와 기성복의 경계 와해, 디자이너와 에디터 역할의 경계 완화 그리고 브랜드 간의 활발한 협업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10년 스텔라 맥카트니와 아디다스(Adidas)의 협업에 관한 기사에서는 미국의 많은 전통적인 메인 스트리트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아름다움과 웰빙 목적의 피트니스 센터가 생기고 있는 현상과 함께, 여성들이 멋지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스포츠 브랜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헬무트 랭 컬렉션에서 기성복과 맞춤복의 중간 정도(not-quite-ready-to-wear, or half-couture)의 제품을 선보인 것이 모던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한편 유니클로(Uniqlo)와 디자인을 시작한 질 샌더가 대중적인 선에서 가능한 최고 품질이 실현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도전한 것이 모던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특히 베트멍(Vetements)은 2017년 봄 컬렉션을 위해 무려 17개의 브랜드와 협력하였고, H&M과의 합작으로 하이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트렌드를 주도한 샤넬의 칼 라거펠트는 2014년 컬렉션의 주제를 슈퍼마켓으로 선택했는데, 이는 현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으로, 샤넬에서 옷을 입는 사람들도 슈퍼마켓에 가는 것처럼 이는 값비싼 제품들이 나아가야 할 현대적 진술(modern statement)이라고 묘사되었다(Menkes, 2014). 한편 본인의 브랜드와 로에베(Loewe)를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 조나단 앤더슨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새로운 노동 분업 및 경영에 대한 관점을 언급했는데, 자신을 디자이너가 아닌 편집자(editor)로 여기고, 핸드폰 3개를 들고 전 세계 다니며,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본인은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Schneier, 2016b). 한편 마크 제이콥스는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을 샘플

링하여 과거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모던하다고 언급하기도 했고(Ferla, 2010), 라프시몬스는 2008년 컬렉션에서 “장인 정신이 새로운 창의적 결과보다 훨씬 현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Horyn, 2008), 이처럼 패션에서의 창조의 개념이 단지 완전히 새로운 것만이 아닌 융합과 절충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감지 할 수 있었다. 이제 패션 리더들은 길거리가 아닌 스타일 블로거나 인스타그램 화면에서 찾을 수 있고, 오늘날의 트렌드는 전 세계에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그림 9-1] 샤넬의 카피를 알린 여론의 범정

[그림 9-2] 양성애자들의 앱 그라인더에서 열린 조나단 앤더슨의 패션쇼

### 3. 심신의 보호 욕구

2017년 이후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불안과 방어기제 심리를 반영하는 신체나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패션 아이템이 모던으로 묘사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디자이너 데мна 바잘리아(Demna Gvasalia)는 헤드기어(headgear), 후드 패션이 안전을 위한 갈망과 관련이 있고, 현재 그것이 모던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Cover story, 2018).

*He confesses that in his case, headgear is linked to a “general craving for safety, since I was young. Protecting the head from rain, from noises, from pollution, et cetera. A hood instantly makes one more invisible, more unexposed, and that I love too,” Gvasalia says, adding, “I just think that’s **modern** and now.”*

(Cover story, 2018.09.01. The Vogue Archive)

디자이너 조나단 앤더슨은 “falling into a womb of fashion”이라는 컨셉의 컬렉션에서 오버 사이즈 니트와 아우터 웨어를 대량으로 선보이고 이를 편안하고 보호적인 현대갑옷(modern armor)으로 표현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런던 패션위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디자이너 크레이그 그린(Craig Green)은 현대인을 유목민(modern nomad)으로 표현하며 착용자를 보호해주는 텐트 같은 형태의 아우터를 선보이기도 했다(Paton, 2018a). 메종 마르시엘라 역시 현대 유목민의 삶을 반영한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매트리스와 충전재가 가득한 침낭 소재의 재킷 그리고 핸드백 대신 발목이나 팔꿈치에 고정할 수 있는 아이폰 홀더 등을 액세서리로 제시했다(Friedman, 2018a). 그 외 릭 오웬스의 바닥까지 끌리는 후디(hoodie)도 갑옷으로 표현되었는데, 저널리스트 스토포드(Stoppard)는 젊은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위해 후디를 입는데, 이는 군중 속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섞이는 느낌을 들게 해준다고 언급했다(Paton, 2019b). 또한 파코 라반, 알투자라 그리고 구찌 등의 브랜드에서는 프린지, 뒤집을 수 있는 시퀸 장식, 미달이 주얼리, 핸드백에 달린 참(charm) 장식 등의 손으로 만지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피켓 패션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반짝거리는 구슬 프린지가 달린 검은색 시퀸 드레스를 입고 회전하는 모델의 마이클 코어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175,000개 이상의 조회 수와 110개 이상의 코멘트를 기록하기도 했다(Parker, 2019).

2019년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고, 현대인의 불안과 A.D.H.D의 완화를 도우며, 불안한 손을 진정 시키는 패션 액세서리(modern-day worry beads)인 피젯(fidget) 주얼리가 모던 아이템으로 등장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패티 & 리키(Patti & Ricky)의 구슬이 회전하는 구조의 주얼리가 있었다(Parker, 2019). 한편 전화 한통으로 약속이 바뀌거나 일과가 바뀌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물, 요가복 등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큰 사이즈의 가방이 모던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처럼 21세기 패션은 현대인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새로운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림 10-1] 모던 유목민을 위한 크레이그 그린의 텐트 같은 아우터

[그림 10-2] 매트리스와 침낭 소재의 메종마르지엘라 재킷

[그림 10-3] 정서적 안정을 주는 피젯 주얼리

[표 4-4]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나타난 모던의 특성	
<p>1. 고정관념에 대한 경계 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름다움의 경계 완화 : 발렌티노와 에크하우스 라타의 패션쇼에서 모든 연령, 바디 웨이트, 인종과 성별의 구분을 없애는 모델을 기용하는 비전통적인 캐스팅을 시도 / 미가 자연스러움이라는 사고방식으로서의 변화 / 자연스레 주름이 생겨 나이트 자연스러운 얼굴을 모던하게 생각하는 현상</li> <li>* 쿠티르와 기성복의 경계 와해 현상</li> <li>* 디자이너의 역할 변화 : 스스로 창조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관리하는 에디터의 역할로 확대</li> </ul>
<p>2. 소셜 네트워크 발달에 따른 국제화와 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간의 협업 : 스텔라 맥카트니와 아디다스의 협업 / 유니클로와 질 샌더의 협업 / 2017년 봄 컬렉션에서 17개의 브랜드와 협업한 베트멍</li> <li>* 온라인 패션쇼 &amp; 쇼핑 : 버버리의 온라인을 통한 3D 라이브 패션쇼 &amp; 보는 즉시 구입가능한 온라인 쇼핑</li> <li>* 여론의 법정 : 샤넬이 마티 벤틀리온의 스웨터를 카피한 일을 온라인에 공유하여 문제해결</li> </ul>
<p>3. 불안으로부터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을 위한 갈망 : 후드, 침낭이나 텐트 같은 외투: 조나단 앤더슨의 2017년 컬렉션의 오버사이즈 니트와 칭키한 아우터 웨어는 현대인들을 불안에서 보호하는 갑옷으로 언급</li> <li>* 불안을 완화 : 프린지, 뒤집을 수 있는 스팅글 및 슬라이딩 주얼리 등의 피켓 패션과 액세서리</li> </ul>

## 제 5 장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대 패션을 묘사하는 용어로 가장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지만, 그 개념과 특성이 모호한 모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문화적 이슈를 실시간으로 대변하는 미디어인 신문 뉴욕타임즈와 패션잡지 보그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아이템의 조형성과 착장법 그리고 셀러브리티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질적 의미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의미로 나타났다.

### 제 1 절. 경계 없는 융합과 절충을 통한 독창성

20세기 모더니스트들은 전통을 배척하고, 사상과 표현 면에서 중도보다 극단을 선호하며 완벽한 새로움을 추구했지만, 21세기 패션에서는 적절함을 유지하는 중용과 절충 그리고 경계가 없는 융합이 모던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모던으로 표현되는 요소들은 이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질적 요소의 결합과 절충, 전통과 현대의 결합, 소재간의 장점을 살린 결합, 너무 새 것처럼 보이거나 너무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중용이 모던의 의미로 나타났다. 한편 패션 산업분야에서는 기성복과 맞춤복의 중간 정도의 제품 그리고 기성복과 쿠틀르의 콜라보레이션 현상 등이 모던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이처럼 21세기 패션에서 오프쿠튀

르 산업은 교차로에 있고, 기계적인 생산제품은 구식의 느낌이 들며, 창의성은 반복되거나 과장된 것처럼 보이기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재활용되거나 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 성별, TPO, 관습, 계절의 경계 와해

21세기 패션에서는 전통과 관습에 대한 기준이 와해되고, TPO, 계절, 성별, 지역, 인종, 체형 등 모든 것에 대한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다양성과 포용의 트렌드가 모던으로 표현되었다.

TPO의 완화 현상은 주로 모던으로 묘사된 착장에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칵테일 마실 때 입었던 미니 랩 드레스를 수영장 점심 식사를 위해 비키니 위에 착용하고, 작년 저녁 식사에 입었던 보스같은 슈트를 주말 착장으로 위아래를 분리해서 입는 것 등이었다. 2007년에는 발렌시아가의 니콜라스 게스키에르가 레드카펫을 장식하기 위한 브랜드간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브닝드레스를 디자인하지 않고, 대신 미니스커트와 재킷 디자인을 제시한 것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한편 “낮에는 긴치마, 밤에 짧은치마”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고, 패션에서 TPO에 따른 길이와 실루엣에 제약이 사라지고 있었다. 또한 모던우먼은 자전거, 바이크, 스케이드 보드 등을 타고 이동하면서 스포츠웨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안나수이, 오스카 드 라렌타 등의 드레스를 입는 여성이라고 묘사되기도 했다.

한편 2009년에는 남자 친구 블레이저부터 할아버지 가디건, 팬츠 슈트에 이르기까지 남성 옷장에서 꺼내 입은 듯한 여성착장이 모던으로 묘사되었고, 샤넬이 애인 보이카펠(Boy Capel)의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었던 것처럼 남성복을 입는 착장이 유행하고 있다는 2011년 기사에서는 저녁식사를 위한 최신 룩으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피부를 드러내는 지퍼

가 달린 검은색 기계공의 작업복 스타일 그리고 파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2012년 릭 오웬스(Rick Owens)는 남성의 운동화 하이탑을 모던 부토니에(boutonniere)와 같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운동화가 모든 구속을 버리고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는 남성들의 유일한 아이템이라는 의미였다(Colman, 2012). 2015년에도 지속된 남성들의 과상하고 화려한 스니커즈 트렌드는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변화시키고 회색 정장의 패러다임을 폭파시키며, 남성들이 패션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며 개성을 표현하는 모던아이템으로 언급되었다.

인종 및 체형에 대한 차별완화 현상도 여러 차례 모던으로 언급되었는데, 나이, 체형, 인종, 성별, 전통적인 여성성의 구분을 없애고 모델을 기용하는 비전통적인 캐스팅 그리고 LVMH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최초의 여성이자, 주요 럭셔리 패션 하우스를 이끌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된 리한나 등의 사례에서, 21세기 패션은 장벽을 허무는데 깊이 빠졌고, 더 이상 아름다움은 계층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최첨단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그간 하이브랜드가 대부분 독점하고 정의했던 패션 상황을 특정 지역을 넘어 글로벌하게 변화시켰고, 온라인을 통한 쇼핑과 패션쇼 트렌드는 물론 저작권 보호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과 절충

21세기 현대 패션에서 모던은 이질적 요소 혹은 과거와 현재의 요소를 절충하거나 빈티지와 현대를 혼합하는 의미로 나타났다.

첫째, 과거의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 여러 디자인 요소를 섞어 새롭게 재창조한 아이템이 모던으로 표현되었는데, 2007년에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한 작은 코르셋 재킷 디자인은, 경매에서 발견한 18세기 초 승마



용 재킷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역사적인 것을 현대적인 관용구로 완전히 새롭게 번역하는 칼 라거펠트의 천재성을 반영한다고 언급되었다. 또한 현대 여성의 다중적 성격을 표현한 실험적인 착장으로는 존 갈리아노의 스트리트 패션과 에스닉을 이브닝 웨어가 있었고, 가장 모던한 오프쿠튀르는 고급 소재와 저렴한 재료를 자유롭게 섞은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한편 여러 셀러브리티들이 과거와 현재 혹은 이질적인 요소를 혼합한 착장을 즐기고 있었는데, 모델 신디 크로포드의 모던 믹스착장은 터프함과 스위트함, 맞춤복과 중고품, 그리고 클래식 스타일과의 절충으로 언급되었고, 배우 르네 젤위거는 빈티지 상점에서 찾아낸 아돌포&갈라노스 드레스의 넥 라인을 잘라내고 가슴골을 보이도록 재 디자인하여 골든 글로브 시상식 때 착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21세기의 모던 착장은 옛 것과 새로운 패션아이템 그리고 영감이 뒤섞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둘째, 과한 디테일을 절충하는 착장을 모던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하루가 끝난 후 반짝이는 베르사체의 드레스를 입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하며, glitz를 모던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요소와의 혼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멋진 팬츠 수트에 스니커즈를 신거나 너무 여성스러운 아이템을 절충하여 입는 착장을 모던으로 표현한 사례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흰색 탱크탑과 리틀 블랙스커트를 함께 매치하는 것이 숙녀 같은 정숙한 패션에서 벗어난 모던 착장으로 묘사되었다.

셋째, 전통적 착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거나, 이질적인 요소를 절충하는 착장을 모던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스포티와 여성스러움이 조합된 프라다의 리조트를 위한 모던 스포츠웨어, 속옷을 겉옷으로 입는 착장, 레드카펫의 이브닝드레스와 플랫폼들의 매치 착장 등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표현한 영리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남성복에 스포츠웨어 요소를 도입하여, 고가의 정장 재킷을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와 캐주얼하게 매치하는 것, 수트를 셋트로 입지 않는 것, 그 외에 주얼리를 원래 착용하는 손, 목 등의 위치가 아닌 머리에 착용하는 방법 등이 모던으로 언급되었다.

그 외에 캐시미어와 코듀로이가 혼합된 캐시코드(cashcord: cashmere and corduroy), 중국 실크와 페루면을 혼합한 실크스킨(silkskin: a blend of Chinese silk and Peruvian cotton)등 여러 원단을 혼합하여 미적, 기능적 성능을 향상시킨 hybrid 소재가 모던으로 나타났다.

## 제 2 절. 신체와 정신의 편안함을 아우르는 기능성

20세기 패션에서도 기능성은 모던의 대표적 의미였지만, 21세기 패션에서의 기능성은 신체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소재와 디자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대인의 불안한 마음과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편리한 이동성이 모던의 의미로 나타났는데, 짧은 길이의 실루엣과 다리 노출이 미적 관점보다는 활동성의 의미로 표현되었다.

### 1. 디자인 및 착장의 단순성과 실용성

21세기 패션에서 모던은 기본적으로 장식이 많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이나 실용적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 소재를 묘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반적인 드레스에서는 주로 몸에 여유 있게 맞고, 소매가 없는 형태가 모던으로 묘사되는 경향을 보였고, 레드카펫 드레스에서는 주로 비즈나 자수로 너무 화려하게 장식되지 않고 심플하지만 넥 라인만 아주 깊게 파여 있거나, 비대칭 목선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을 모던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2002년에는 심플한 라인의 프라다 시스드레스, 2003년에는 마크 제이콥스의 1960년대 스페이스 풍의 시프트드레스 그리고 프릴장식이 없고, 매끈한 라인의 등이 파인 크림색 도나카란 뉴욕의 니트 드레스가 모던한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니클로, 언더아머와 상의하여 새롭게 디자인된 오케스트라 단원의 단순한 유니폼이 모던 아이템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남성 단원들의 착용이 번거롭고 더운 재킷, 테일 코트, 셔츠와 불편한 나비넥타이 그리고 여성단원들의 지나치게 긴 치마 등을 창의적이고 편안하게 바꾼 것이다. 남성 재킷에는 옷깃을 사용하지 않고, 기모노처럼 대각선으로 감싼 단순한 디자인으로 넥타이를 대신하였고, 여성단원들의 복장은 거의 모든 악기 연주에 비대칭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비대칭 밑단의 스커트와 메쉬 슬리브 탑 디자인으로 변형한 실용적인 아이디어였다. 한편 주얼리에서 모던은 주로 단순하거나, 기하학적인 혹은 조각적인 특성 등으로 묘사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기능성을 강조한 소재가 모던으로 제시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알버 엘바즈는 모피재킷의 앞면은 밉크로, 뒷면은 직물로 남겨 두는 디자인을 했고, 비용을 낮추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이 모던으로 언급되었다. 이처럼 전통을 벗어난 혁신성과 실용성은 모던의 주요 특성으로 나타났다.

## 2. 편리한 이동성

21세기 현대 패션에서는 길이가 짧은 실루엣의 치마와 활동적인 바지를 모던아이템으로 언급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그 미적 특성 보다는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다는 설명으로 묘사되었다.

하루 종일 도시 보도를 따라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을 상상한 듯, 무릎 위로 짧게 올라간 샤넬 컬렉션의 2006년 실루엣, 가위로 자른 듯이 선명

하고 짧은 실루엣 역시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알렉산더 맥퀸이 디자인한 사이즈를 작게 변경한 프린스 오브 웨일스 재킷과 쇼트 팬츠 스타일의 투피스 정장이, 2013년에는 예술가 엘스워드 켈리(Ellsworth Kelly)와 켈빈 클라인의 디자이너 프란시스코 코스타(Francisco Costa)가 새로운 컬러와 원단으로 기존보다 짧게 변형한 한정판 드레스 등이 모던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생로랑(Saint Laurent)의 디자이너 앤서니 바카렐로(Anthony Vaccarello)는 이러한 다리모양이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심리적 요인이 도발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는데(The halo effect, 2018), 이처럼 짧은 길이의 실루엣과 다리의 노출은 모든 것을 모던하고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며, 21세기 라이프스타일의 빠른 변화와 속도로 인해 미적 관점이 자유 그리고 활동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 외에 디자이너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도 발렌티노의 컬렉션에 나타난 흐르는 듯이 유연한 실루엣이 현대 생활의 유동성(fluidity), 유연성(flexibility) 및 지속적인 움직임(constant motion)을 반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지도 모던으로 언급된 주요 아이템이었는데, 특히 활동성과 실용성이 강조된 타이트한 스키니 진이나 레깅스 등이 많았고, 일상생활에 적합한 편안하고, 효율적인 기능으로 묘사되었다. 2003년 기사에서는 발렌시아가의 실크 스트레치 캣 수트(catsuit)를, 2007년에는 미우미우의 스키니 팬츠가 모던 파워슈트에 꼭 필요한 효율적이고 돋보이는 아이템으로 묘사되었다. 2009년에는 배트걸(Batgirl)과 캣우먼(Catwoman)의 타이트한 운동복 차림 그리고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흑백 달마시안 프린트 등의 레깅스가 모던 아이템으로 나타났고, 무릎위로 올라오는 남성용 쇼츠가 모던 아이템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한편 2010년경부터는 스포츠웨어에 대한 기사가 증가하였고, 질 샌더를 세기 중반의 모더니즘을 재해석한 전형적인 디자이너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동성을 인

식하고 패션을 능률화하는데 헌신했다고 묘사되었다.

모던 액세서리 중에는 빠르고 유동적인 현대 생활에 적합한 플랫폼슈즈나 남성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운동화 패션의 실용성과 활동성을 모던으로 묘사된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2006년 오스카 드 라렌타의 뽀족한 플랫폼 슈즈, 2011년 샤넬의 플랫폼슈즈 그리고 2014년 샤넬의 자수와 쉬폰으로 된 스포츠 운동화 등은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아름다움을 위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아도 되는 모던 아이템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자전거로 이동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스트리트 슈즈처럼 보이는 사이클링용 메리 제인이 모던 아이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마모성 소재와 미끄럼방지 밑창 그리고 충격 흡수 패드를 갖춘 디자인으로 현대인의 잦은 이동성을 돕는 실용적인 아이템이었다. 그 외에 전화 한통으로 약속이 바뀌거나 일과가 바뀌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물, 요가복 등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편리한 큰 사이즈의 가방이 모던 아이템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패션의 역사에서 여성의 다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는 이동(locomotion)의 의미로서, 20세기 초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여성의 신체 뿐 아니라 의상 전체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Hollander, 1993), 100여년이 지난 21세기 현재에도 모던으로 묘사된 짧은 실루엣의 의미가 이동성(mobility)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치였다. 하지만 그 길이가 발목 위가 아닌 무릎 위로 아주 짧아졌다는 점과 이동의 의미가 단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게 되어서가 아닌 휴대전화로 인한 유목민 트렌드, 그리고 운동이나 취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었다.

### 3.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보호와 진정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급격한 사회 발달로 인해 대중들은 불안을 느꼈고, 패션은 엿보는 타인의 시선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즉 타인과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Entwistle, 2013).

21세기, 특히 2017년 이후의 패션에는 모든 것이 빠르고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현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의 불안한 심리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모던 스트리트 웨어가 주로 큰 사이즈이거나, 무거운 후드가 달린 아이템들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다. 디자이너 조나단 윌리엄 앤더슨 컬렉션에서 선보인 오버 사이즈 니트와 아우터는 모던 갑옷(modern armor)으로 표현되었고, 크레이그 그린은 현대인을 유목민으로 표현하며 텐트 같은 형태의 아우터를 선보이기도 했다. 메종 마르지엘라 역시 매트리스와 충전재로 만들어진 침낭 소재의 재킷으로 현대 유목민의 삶을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런던 패션위크의 남성복 브랜드들의 컬렉션 테마는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폐해로 가득했는데, “moden day cyborgs”를 컨셉으로 한 브랜드로는 리암 호지스(Liam Hodges)와 코트 와일러(Cottweiler)등이 있었다.

한편 2019년에는 현대인의 불안과 A.D.H.D의 완화를 돕는 피젯 주얼리가 모던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크게 유행한 피젯 스피너는 우리의 불안정한 손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생각을 집중시키기 위한 무언가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손으로 만지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는 패션 액세서리(modern-day worry beads)가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21세기에는 사회와 군중 속에서 소외나 불안을 느끼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패션이 모던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얼굴이나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후드나 헤드기어 혹은 큰 사이즈의 담요나 텐트 같은 형태 그리고 갑옷의 의미로 안전을 위한 갈망을 나타내었고, 핸드폰이 없거나 불안할 때 손으로 계속 만지면서 안정을 주는 액세서리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21세기의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패션은 아름다움 추구를 넘어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제 3 절. 가벼움과 자연스러움의 미

21세기 패션에서 모던의 주요 의미는 가벼움(lightness)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 패션은 소재, 착장과 사고방식에서 가벼움을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여유로운 태도와 꾸미지 않은 듯 한 패션,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인체 변화에 대한 긍정이 모던의 의미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 1. 소재와 표현의 가벼움

21세기 패션에서는 특히 소재 분야에서 가벼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2000년도에는 알렉산더 맥퀸이 빅토리아 시대의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가죽드레스의 알루미늄으로 만든 크리놀린의 가벼움을 모던으로 묘사하고 있었고(Sykes, 2000), 바람에 날리는 하늘하늘한 셔츠도 모던 럭셔리로 표현되었다. 2003년에는 릭 오웬스의 바이어스 컷 모피가 모던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모피를 가볍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드레이프가 지도록 하는 기술로 묵직해 보이는 낡은 모피코트 전체를 사용하는 대신 다른 원단을 줄무늬처럼 한 줄씩 끼워 넣는 기술이

었다. 2008-2009년의 액세서리 그리고 소재의 초점 역시 가벼운 특성에 맞추어졌는데, 크록스의 켈리샌들 그리고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라코스테의 플라스틱 슈즈 등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더블캐시미어를 두겹지만 가볍게 만드는 것이 모던 스타일의 본질이라는 기사에서도 가벼움은 모던 소재의 주된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니콜라스 게스키에르는 직물(fabric), 재단(cutting), 정신(mentality) 등 모든 것을 가볍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프라다의 메쉬로 만들어진 가벼운 슬리브리스 니트 그리고 짧고 심플하고 가볍게 변형된 버버리의 트렌치코트 등이 모던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로 피아나(Loro Piana), 에르메네질도 제냐와 같이 가벼운 직물 연구에 전념하는 쿠치넬리(Cucinelli)를 모던 브랜드로 언급하기도 했고(Menkes, 2010), 2010년에는 아주 가벼운 실크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우먼의 패션을 모던으로 표현한 기사도 있었다. 2011년에는 특히 가볍고 투명한 소재가 모던으로 표현된 빈도가 높았는데, 지안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è)는 정교한 테일러링과 가벼움을 모던으로 언급했고, 지방시의 리카르도 티시(Riccardo Tisci)는 자수 장식, 매듭, 비드, 깃털 등을 사용한 투명하게 비치는 소재를 모던으로 표현했다. 2012년의 기사에서는 디자이너들이 할머니나 엄마의 옷처럼 느껴지는 갈색 모피의 답답함을 없애는 방법으로, 모피의 표면을 깎아 벨벳처럼 다루기 쉽게 가공하거나, 비단처럼 가볍게 만들었는데, 특별한 점은 모피는 고급 소재 그 자체보다는 이를 더 어려워보고 활기차게 보이도록 디자인하거나, 가볍게 가공한 것을 모던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고, 모피를 흉내 낸 혁명적인 아이디어나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지속가능한 인조 펄 역시 대표적인 모던 소재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 외에 2013년 필립 림의 초경량 코트, 2014년 겐조의 가벼운 다운 패딩 코트 등 여러 아우터에서 모던이 의미하는 대표적인 특성도 가벼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1세기 패션에서 모던 소재와



아이템은 새로운 가공이나 아름다움을 넘어, 무게나 장식을 가볍게 표현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 2. 신경 쓰지 않은 듯 편안한 멋

21세기 패션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트렌드 중 하나는 자연스러움인데, 이는 노코어(normcore), 프렌치 시크(french chic)등이 유행의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확산되고 있으며,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교묘한 기교로, 세련되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effortless chic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남혜진, 하지수, 2017). 이처럼 일부러 애쓰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멋스럽거나, 편안하고 여유 있는 패션 스타일은 20세기 탠디의 태도와 복장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함을 위해 씻고 면도하고, 넥타이를 땀고, 이 넥타이는 잘 조였지만 숨 막히지 않고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나타내야 했기에 그들의 치장은 꾸민 흔적을 노출시키지 않는 연출하지 않는 연출이었다(d'Aureville, 1845/2014). 2000년에는 아르마니의 모던 비즈니스 슈트가 꾸미지 않은 듯한 격식(nonchalant formality)과 성별 블렌딩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표현되었고(Givhan, 2000), 2001년에는 자유롭고 속박되지 않은 편안하고 여유 있는 모던 실루엣의 베라왕 웨딩드레스, 트루사디의 편안한 하이웨이트 바지와 약간 길게 늘어뜨린 재킷 그리고 풀어진 벨트같은 느슨한 착장이 모던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2002년 니나리치 컬렉션의 긴 오간자 드레스와 가디건 착장도 마치 옷을 입지 않은 듯 편안한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2012년 나르시소 로드리게즈의 컬렉션도 effortless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원단이 부분적으로 다른 색으로 보이도록 특별한 기술을 사용했지만 애쓰지 않은 듯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보인 것에 대한 표현이었다. 2014년에는 셀린의 편안하고

여유 있는 바지, 2015년에는 해변의 느긋함과 도시의 분위기를 지닌 성구별이 없는 바하 이스트의 캐시미어 스웨트 팬츠 등이 모던 아이템으로 소개되었다. 한편 2016년 스텔라 메카르니는 남성복 디자인에서 effortless를 추구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성복이 특정 시즌에 구애받지 않고, 트렌드 변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점을 반영한 슈트와 아우터 제품을 의미했다. 이처럼 21세기 패션에서 모던은 편안하고, 느긋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미셸 오바마가 꾸미지 않은 듯한 시크의 현대적 정의로 묘사되었는데(modern definition of effortless American chic), 그녀는 늘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편한 옷을 입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며, 모두에게 가장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 3. 자연스러움에 대한 긍정

21세기에는 성형수술 및 시술이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하였지만,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얼굴과 신체의 모습을 감추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모던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많은 여배우들이 그들의 커리어에 가슴 수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는 모던하지 않다는 기사, CR Fashion Book의 편집장 카린 로이펠트가 나이 들수록 볼 살이 빠지고, 자연스레 주름이 생기며, 배도 나온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모던하다고 언급한 기사처럼 미가 자연스러움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변화가 모던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또한 아주 작은 키의 스타일리스트 케이트 폴리(Kate Foley)는 몸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아하고 입고 싶은 것을 구입하고, 완벽함은 오히려 너무 평범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는 그녀 같은 현대 여성들이 옷을 입는 방식으로 묘사되었다.

2018년 기사에서는 영국의 공주 유제니가 모던으로 묘사되었는데, 척추 측만증 교정 수술로 등에 큰 흉터가 있는 그녀가 수술해준 의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등의 흉터를 그대로 드러내는 웨딩드레스를 선택한 점 때문이었다. 이처럼 21세기에는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감추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나이로 인한 신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모던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한편 2019년 기사에는 남성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과 다른 여성들을 위해 옷을 입는 현대 여성들을 위한 언더와이어가 없는 브라렛이 현대 여성성의 성명서로 언급되었는데, 이 모던 브라는 크고 둥근 모양의 인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돕고, 진정성과 편안한 행복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yett, 2019). 이처럼 원래 모습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신체 실루엣이 새로운 스타일의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20세기에 코르셋의 폭압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한 폴 푸아레의 느슨한 듯 흐르는 단순한 선의 디자인이 모던 패션의 가장 중요한 컬렉션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여성들이 처음으로 현대 도시의 속도와 지형에 적합한 스포츠, 사이클링 또는 운전과 같은 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West, 2011). 또한 1945년 보그 기사에서도 당대의 이상적인 여성의 외형을 “Waists are waists, Hips are hips, Bosoms are bosoms” 즉, 인체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언급한 기사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모던은 가장 모던한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브라는 딱딱하거나 가슴을 갑옷처럼 조이지 않고, 가벼우며, 인체윤곽을 따른 형태인 것 그리고 거들은 복잡하지 않으며 유연하게 몸에 밀착되는 것이 모던으로 표현되었다(Are clothes moden?, 1945).

이와 같이, 20세기 초에도 중반에도 그리고 21세기 현재에도 인위적인 형태보다는 신체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모던으

로 묘사되는 점은 변함없이 지속되었으나, 21세기에는 자연스러움 뿐 아니라 단점도 드러내고 자신감 있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 제 4 절. 자신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계몽

19-20세기의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의 근간이 되는 이론은 바로 외적 권위의 복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이성을 주체로 사용하여 행동하는 성숙함 그리고, 역사를 미래에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것으로 재조정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는 계몽이었다. 특히 좋은 예술 혹은 디자인은 사회개혁을 위한 민주주의적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나타났는데(Bhaskaran, 2005/2017), 이는 21세기 현대 패션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윤리의식 생성,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시위 혹은 항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환경에 대한 윤리의식과 지속 가능성은 천연소재, 재활용, 오가닉 소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패션과 수공예적인 전통기술의 응용, 빈티지 의상의 업 사이클링 현상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시위 혹은 항의로서의 모던은 성폭행 반대, 연료 가격 상승과 소득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만,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패션산업 등에 대한 반기를 들기 위해 색상을 단채로 맞춰 입은 패션으로 나타났다.

### 1. 윤리의식과 지속가능성

21세기 패션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윤리의식과 움직임 그리고 친환경 소재 등이 모던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천연섬유 특히 유기농 소

재를 모던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는데, 리바이스(Levi's)는 윤리적 노동관행과 공장 내 수질 개선을 위해 엄격한 국제규범을 시행하고 있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부드럽고, 내구성이 있으며, 기존의 면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으며, 세련된 스타일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Herman, 2007). 켈빈클라인도 청바지에 유기농 면화를 사용하는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청바지를 가공 없이 내버려둘수록 더 모던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오스카 드 라 렌타는 “친환경적인 패션은 옷을 만드는 전통적인 기술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며, 2011년 런웨이 투 그린(Runway to Green) 패션쇼를 위해 디자인한 첫 번째 유기농 웨딩드레스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Talbot, 2011). 비건(vegan) 브랜드로 알려진 스텔라 맥카트니는 해양 생물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일하는 단체인 오션스 팔리(Parley for the Oceans)와 협력하고 있었는데, 바다에서 수집한 어망, 부스러기, 병, 플라스틱으로 원사 섬유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제품들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다(Safronova, 2017). 한편 2019년 남성복 패션쇼에서 지속가능성은 모던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유행 이상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마르니는 바다 폐기물을 모아 만든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랄프 로렌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여 화려한 색의 이브닝 수트를 선보이며, 앞으로 5년 동안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라다 역시 천연 생분해 가능한 메리노 털실을 개발 중에 있었고, 에르메네질도 제냐 컬렉션의 20%에 달하는 제품도 폐기 직물을 재활용한 것이었다(Trebay, 2019). 이처럼 21세기 패션에서 최신의 고급 소재는 이제 더 이상 장인의 전통이나 희귀하고 이국적인 동물의 가죽이 아니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최첨단 보석과 시계 브랜드에서 천연 소재를 새

로움을 주는 디테일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부쉐론(Boucheron)과 아누슈카(Annoushka)는 나무를 주제로 한 주얼리 컬렉션을 만들었고, 피아제(Piaget)와 파텍 필립(Patek Philippe)은 나무 상감세공으로 제작된 다이얼이 달린 특수 시계를 출시하기도 했다. 나무는 따뜻하고, 여성스러우며, 모던한 소재로 언급되었다(Liu, 2017). 또한 까르띠에(Cartier)나 에르메스 등의 브랜드에서는 짚(straw)을 이용한 정교한 상감세공 기술을 시계 디자인에 적용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기도 했다(Lankarani, 2019). 또한 머킨스탁을 대체할만한 지속가능 슈즈로 브라더 벨리스의 샌들이 모던 아이템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등지의 장인이 재활용 자동차 타이어와 현지에서 공급되는 가죽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만든 것이다.

그 외에 2000년대 초반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도 빈티지 아이템의 다양한 착장방식을 모던으로 언급하는 기사가 많았는데, 이는 단순히 오래된 것의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럭셔리와 다른 표현이며, 옛날 옷을 재디자인하는 모던 트위스, 즉 업 사이클링 착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21세기 패션과 소재에서 지속가능성은 트렌드 이상의 중요한 이슈이자, 모던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 2.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시위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반기를 들고 이를 패션으로 표현한 대표적 의복으로는, 프랑스 혁명기에 반바지인 켈로트를 입은 귀족 계급에 대항한 혁명가들이 유니폼으로 입었던 긴 바지가 있다. 이들은 켈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상켈로트(sans-culotte)로 불렸는데(신상옥, 2016), 이처럼 21세기 패션에서는 모던으로 언급된 상 켈로트와 같은 설득력 있는 반란의 상징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16년에는 디올의 디자이너가 된 마리아 그라치아 키우리(Maria Grazia Chiuri)가 “We should all be Feminist” 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선보여 이슈가 되었다. 페미니즘(feminism)은 프랑스혁명 이후 1790년에 영국의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가 여성의 권리 요구를 발표한 이후, 계몽정신과 자유평등 사상에 입각한 인본주의적으로 발전해 왔고, 1913년 이후에 비로소 페미니즘으로 불리게 된 것인데(정현숙, 정홍숙, 1997), 이 디올 티셔츠의 상징성은 여성들도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또한 2018년 골든 글로브 참가들이 모두 착용한 검은 드레스는 성폭행 반대시위 #TimesUp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반란의 모던 유니폼으로 언급된 패션 아이템은 프랑스의 형광색 노란색 조끼 “gilet jaune” 이었는데, 이는 연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만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격렬한 항의와 동의어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시위 의복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2019년 런던 패션 위크의 마지막 날에는 XR(Extinction Rebellion)이라는 단체의 검은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시위대가 ‘패션을 위한 장례식’ 행진을 하며 런던 패션 위크의 취소를 요구하거나, “Fashion = Ecocide”와 같은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를 팔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패션산업에 대해 반기를 드는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행들은 정치나 사회 구조에 이의를 제기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와 같이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새로운 주요의미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시위 혹은 항의로 나타났다.

## 제 6 장 결론

연구결과, 현대 패션 미디어에서 모던은 시간적인 개념이나 유행의 의미를 넘어, 스타일이나 착장의 미적, 기능적, 심리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성을 묘사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던은 “여성스럽지만 너무 달콤하지는 않고”, “새것이지만 새것 같지 않은”과 같은 미묘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섹시하기를 원하지만 너무 노골적이고 싶지는 않고, 사회적 지위나 부유함을 과시하고는 싶지만 애쓰지 않은 듯 은밀하게 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심리와 상당히 유사하게 닮아있다. 따라서 모던이 이러한 현대인들의 이중적 심리를 표현하는 대표적 수단인 패션을 단 한마디로 명확히 묘사해주는 단어이기에 그토록 자주 사용되어온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의 산발적인 단편들을, 사회문화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다루는 대표적 미디어인 신문과 잡지에서 모던으로 묘사하고 있는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문헌 고찰이 아닌 미디어 분석을 통해 패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던의 실질적 의미를 고찰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현대 패션에서 모던으로 일컬어지는 디테일이나 외양의 특성과 더불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새롭게 나타나는 참신성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던으로 묘사된 패션 아이템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은 단순한 형태에 독창적인 디테일 표현으로 나타났고, 실루엣은 주로 활동성이 반영된 짧고, 날씬하고, 유동적인 형태였으나, 21세기 패션에서는 대립되는 다양한 실루엣이 공존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현대패션 소재에서 모던의 대표적 의미는 가벼움이었고, 수공예로 만든 소재, 미적 기능적 성능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소재, 3차원 실리콘 신소재 그리고 친환경 및 지속가능 소재가 모던으로 표현되었다.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아크릴과 같이 전통적이지 않은 재료를 모던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모던 주얼리는 값비싼 재료보다는 디자인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

셋째, 패션의 조형적 특성 중 색상에서 모던은 단순히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고, 모던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색상은 black과 white였다. 또한 특정 아이템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색상을 적용한 경우를 모던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넷째, 패션 아이템의 착장 방식은 조화와 중용, 전통적 관습을 넘어 독창성을 발휘한 착장 방식 그리고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여유 있는 착장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사회적 불만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단체로 맞추어 입은 착장이 모던으로 묘사되었다.

다섯째, 모던으로 묘사된 인물에 나타난 주된 특성은 명석하고, 다재 다능하며 뛰어난 소통 능력을 지녔고, 여유로우며 주체적인 태도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적 감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21세기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서 모던으로 묘사된 대표적 특성은, 인종, 지역, 성별, 아름다움의 고정관념에 대한 경계가 무너진 현상이었고,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패션 산업이 실리적이고, 국제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이었다. 반면에 대중들의 사회적 불안감은 고조되고 보호받고 싶은 심리가 나타나고 있었다.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 없는 융합과 절충을 통한 독창성이었다. 이는 이질적 요소 간의 결합, 전통과 현대의 결합, 여러 소재의 장점을 살린 결합 그리고 너무 새 것처럼 보이거나 너무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중용의 의미로 나타났다. 또한 관습, TPO, 지역, 인종, 계절, 시간,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성과 포용의 의미로 표현되었다.

둘째, 모던은 신체와 정신의 편안함을 아우르는 기능성을 의미했다. 이는 빠르고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편리한 이동성과 활동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짧은 길이의 실루엣과 다리의 노출은 모든 것을 모던하고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고, 미적 관점이 활동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와 균중 속에서 소외나 불안을 느끼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패션이 모던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얼굴이나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후드나 헤드기어 혹은 큰 사이즈의 담요나 텐트 같은 형태 그리고 갑옷이라는 의미로 안전을 위한 갈망을 나타내었고, 핸드폰이 없거나 불안할 때 손으로 계속 만지면서 안정을 주는 피젯 액세서리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21세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패션은 아름

다움 추구를 넘어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벼움과 자연스러움은 현대 패션 미디어에서 아름다움의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모던의 주요 의미가 가벼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재, 착장과 사고방식 모두에서 가벼움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경 쓰지 않은 듯 멋스럽고, 편안하며, 단순하고 실용적인 의미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에 대한 긍정이 모던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단점이나 약점을 감추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에 대한 긍정의 의미였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넷째, 현대 미디어에서 모던 패션은 사회개혁을 위한 민주주의적 도구로 표현되고, 자신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계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윤리의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천연소재, 재활용, 오가닉 소재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패션과 수공예적인 전통기술의 응용, 빈티지 의상의 업 사이클링 현상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새로운 주요 의미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시위 혹은 항의였는데, 이는 성폭행 반대, 연료 가격 상승과 소득 불평등 같은 사회적 불만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패션산업에 대한 반기 등을 위해 색상을 단채로 맞춰 입은 패션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은 대중들의 사고방식과 라이프스타일에 나타난 변화 그리고 현대 사회의 유동성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을 세밀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또한 모던은 끊임

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역사적인 것에 반대하면서도 이에 의존하여 최신 유행을 만들어 내거나, 또한 이전에 없던 참신함을 추구하며 지속적이지만 만족되지 않는 열린 변화의 의미로 나타났는데, 결국 패션에서의 모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반영하고 있었다. 즉, 현대 사회의 유동성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욕망과 삶의 변화를 포착하는 패션의 일시성은 단순히 시대의 새로움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가치들을 담아내고, 미래를 내다보는 포용적인 개념이었다.

한편 현대 패션 미디어의 주요 역할은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며, 산업과 대중을 연결하는 것이기에, 그간 패션 미디어에서 표현하는 새로움과 관련한 단어들은 주로 제품의 새로운 면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치부되어왔다. 또한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의 새로운 현상들은 주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기에 조형적 특성 분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서 모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쓰임과 맥락을 패션 잡지와 신문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모던이 단지 신제품을 과거의 상품과 구분 짓는 판매 촉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단편적인 해석을 다양한 의미로 확장시켰다. 즉, 현대 패션 미디어에 나타난 모던은 단순히 유행과 새로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현재를 더 나은 것으로 조정하려는 의지를 함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션에서의 창조는 역사 속에서 현재를 살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병행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던의 표현특성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현재의 노력은 패션의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패션 관련 연구의 주된 방법이었던, 이미지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오류는, 섬세한 요소의 복합체인 패션을 오히려

려 일반적인 단어들로 요약하여 단순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은 지금 패션이 그리고 소비자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라이프스타일과 미적관점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고 명확히 들여다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혀낸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랑방의 디자이너였던 알버 엘바즈(Alber Elbaz)가 “나는 비록 모던이라는 말에 지쳤지만, 모던한 방식으로 옷을 만들고 여성들에게 입고 싶다”라고 말했듯이(Wilson, 2012), 패션에서 단 한마디로 이토록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모던의 사용은 이를 대체할만한 또 다른 단어가 생기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현대인의 심리가 앞으로 모던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김민자. (2013). *복식미학*. 파주: 교문사.
- 신상옥. (201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 정시화 (1991), *산업디자인 150년*. 서울: 미진사.
- 코디최. (2010). *20세기 문화 지형도. 코디 최의 대중을 위한 문화 강의*. 서울: 컬처그라피.
- Baudelaire, C. (2013). *보들레르의 현대 생활의 화가*. (박기현 역). 서울: 인문서재. (Original work published 1863).
- Bhaskaran, L. (2017). *한 권으로 읽는 20세기 디자인*. (정무환 역). 서울: 시공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Calinescu, M. (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 백한울, 오무석, 백지숙 역, 서울: 시각과 언어. (Original work published 1987).
- Creswell, J. W. (2017). *연구방법: 질적, 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정종진, 김영숙, 성용구, 성장환, 류성림, 박관우, 유승희, 임남숙, 임청환, 허재복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Original work published 2014).
- Czerwinski, M. (2010). *세상을 바꾼 50가지 드레스*. (김재현 역) 서울: 흥디자인.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Entwistle, J. (2013). *패션화된 몸*. (최경희 역). 서울: 한성대학교출판부.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Gay, P. (2015). *모더니즘 - 새롭게 하라, 놀라게 하라, 그리고 자유롭게* -. (정주연 역). 서울: 민음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Habermas, J. (2002).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이진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87).
- Kashiwagi, H. (1999). *20세기의 디자인*. (강현주, 최선녀 역) 서울: 조형교육.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Kumar, K. (2012). *탈산업사회에서 포스트모던사회로: 현대사회의 새로운 이론들*. (이성백, 신재성, 신승훈 역). 서울: 라움.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Maffesoli, M. (2010). *영원한 순간: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비극의 귀환*. (신지은 역). 서울: 이학사.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Malpas, S. (2008).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 모더니즘을 구하라*. (윤동구 역). 서울: 엘피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Pevsner, N. (2013). *모던 디자인의 선구자들*. (권재식, 김장훈, 안영진 역). 서울: 비즈앤비즈. (Original work published 1936).
- Sedlmayr, H. (2004). *현대예술의 혁명*. (남상식 역). 서울: 한길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57).
- Stevenson, N. J. (2014). *패션 연대기*. (안지은 역). 서울: 투플러스북스. (Original work published 2011).
- Titscher, S., Meyer, M., Wodak, R., & Vetter, E. (2015). *텍스트와 담론 분석방법*. (남상백 역). 서울: 경진.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Wimmer, R. D., & Dominick, J. R. (2015). *매스미디어 연구방법론*. (유재천, 김동규 역). 서울: 한경사. (Original work published 1983).
- Wolfgang, W. (2001). *Unsere postmoderne moderne*. Akademieverlag, Berlin. *우리의 포스트모던적 모던 1*. (박민수 역). 서울: 책세상.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Woodham, J. M., & Jonathan, M. (2007). *20세기 디자인 - 디자인의 역*

사와 문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 (박진아 역). 서울: SIGONGART.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2. 국내논문

- 강범모. (2010). 공기 명사에 기초한 의미/개념 연관성의 네트워크 구성. *한국어의 미학*, 32, 1-28.
- 강병석, 박은순, 문해인. (2002).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시대의 미니멀 스타일에 관한 비교 연구-패션과 실내디자인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3(2), 137-146.
- 고윤정, 김민자. (2010).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문화권력과 패션에 대한 연구. *복식*, 60(2), 81-98.
- 김경원, 김종민. (2016). 모던디자인 이념을 통해 살펴본 디자인씽킹의 미래.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92-93.
- 김민수. (1994). 모던 디자인으로부터의 교훈.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造形 FORM* Vol.17, 90-96.
-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 *복식*, 37, 103-118
- 김영숙. (1996). 우리나라 잡지의 패션 기사를 통해 패션저널리즘의 동향. *Archives of Design Research*, 161-170.
- 김영자. (2002). 국내패션 정보지가 제시한 패션 이슈에 대한 분석. *한국 의상디자인학회지*, 4(2), 69-83.
- 김유경, 유영선. (2009). 패션에 표현된 유기적 모더니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9(10), 98-110.
- 김혜영, 김유연. (2005). 모더니즘을 통해 구현된 패션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5(1), 43-58.



- 김혜영, 허다슬. (2005). 모더니즘 시대의 건축과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5(4), 62-78.
- 남수현, 하지수. (2007). 패션잡지 미국 「보그[Vogue]」에 나타난 패션 저널리즘. *복식*, 57(1), 118-129.
- 남혜진, 하지수. (2017). 현대 패션에 나타난 Effortless Chic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41(6), 994-1009.
- 노혜은. (2004). 국내 라이선스 패션잡지의 기사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 (1999).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연구(研究) - 1980~90년대(年代) 미국(美國) Vogue지(誌)를 중심(中心)으로 -. *패션비즈니스*, 3(1), 147-158.
- 박숙현.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 Gabrielle Chanel & Andre Courreges 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논문집*, 19(2), 316.
- 오세정, 정은숙, 서동애. (2007). 패션 매거진 편집구성의 패러다임 변화. *복식*, 57(10), 87-98.
- 오창섭. (2005). 모던디자인 역사 서술의 전통과 극복.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35-344.
- 우세희, 김혜경. (2005). 포스트 모던에 나타난 패러디 건축과 패션이미지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5(2), 1-15.
- 유연식. (2013). 모던 디자인의 단어형 속성개념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28, 171-184.
- 은숙, 박재욱. (2006). 여성 패션 트렌드 테마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에 관한 연구-99-00 F/W 부터 05-06 F/W 까지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6, 45-45.
- 이규진, 조미숙. (2008). 뉴욕타임즈의 한국음식점 리뷰기사 분석: 1980년

- 2005년 기사를 중심으로. *Korea*, 120, 750.
- 이미숙. (2013).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본 퍼스트레이디 패션 스타일 비교연구. *복식*, 63(8), 14-26.
- 이미숙, 조규화. (1997). 가브리엘 샤넬의 모더니즘-패션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패션 비즈니스*, 1(3), 1-18.
- 이신영, 서승희. (2010). 모더니즘 건축양식의 조형원리와 현대 패션디자인에의 적용. *복식*, 60(1), 117-134.
- 이성희. (2004). 패션저널리즘 문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희, 조규화. (2004). 한국(韓國) 패션저널리즘의 현황 연구(現況 研究)(1)-5 개 종합일간지(綜合日刊紙) 기사(記事)를 中心으로. *패션 비즈니스*, 8(4), 45-59.
- 이재정. (2011). 계몽주의, 모더니즘, 휴머니즘: 하버마스 vs. 푸코. *철학논총*, 64, 411-433.
- 이효진 (2013). 20세기 전반 모더니즘시대 Haute Couture 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순수 미학적 협업(collaboration)의 의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22(2), 315-328.
- 전경희. (2006). 모더니티의 기호로서의 패션.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5, 98-121.
- 정경희, 이미숙. (2016). 글로벌화 관점에서의 라이선스 패션잡지의 상호텍스트성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2(3), 447-459.
- 정현숙, 김진구. (1995). 예술사조와 패션과의 Parallelism 에 관한 연구-모더니즘과 플라퍼 룩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3(2), 261-275.
- 정현숙, 정홍숙. (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 231-252.
- 조지선, 채승진. (2011). 모던 디자인(Modern Design)과 모던 디자인

- (modern design): 모던 디자인 논점 비교와 개념 재정의.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7-17.
- 조희원. (2011). 보들레르와 "모더니티"(modernite)개념. *미학*, 68(0), 239-267.
- 한승희. (2015). 학술연구 : The Vogue Archive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디지털도서관*, 77(0), 87-97.
- d'Aurevilly, B. (2014). *멋쟁이 남자들의 이야기 댄디즘. 최초의 멋쟁이 조지 브러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고봉만 역). 서울: 이봄. (Original work published 1845).

### 3. 국외문헌

- Barthes, R. (1983). *The fashion system*, trans. Matthew Ward and Richard Howar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tat, W. (2019). *The New Luxury Experience*.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Baudelaire, C. (2010). *The painter of modern life*. Penguin UK.
- Beward, C. (2003). *Fashion*.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halgh, P. (1990). *Modernism in design*. London: Reaktion Books.
- Hollander, A. (1993). *Seeing through cloth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lander, A. (1994). *Sex and suits: The evolution of modern dress*. NY: Knopf.
- Lehmann, U. (2002). *Tigersprung: Fashion in modernity*. Cambridge, MA: MIT Press.
- RIDLEY, P. (1996). *The Culture of Fashion: A New History of*

*Fashionable Dress. Journal of Design History*, 9(2), 132-134.

Wigley, M. (2001). *White walls, designer dresses: the fashioning of modern architecture*. MIT Press.

Wilson, E. (2003).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IB Tauris.

#### 4. 국외논문

Arnold, R. (2008). Movement and modernity: New York sportswear, dance, and exercise in the 1930s and 1940s. *Fashion Theory*, 12(3), 341-357.

Auty, G. (2015). The meaning of modern revisited. *Quadrant*, 59(7/8), 92.

Bellanta, M., & Piper, A. (2014). Looking Flash: Disreputable Women's Dress and 'modernity', 1870 - 1910. In *History Workshop Journal*, Vol. 78, No. 1, pp. 58-81. Oxford University Press.

Borrelli, L. O. S. (1997). Dressing up and talking about it: Fashion writing in Vogue from 1968 to 1993. *Fashion Theory*, 1(3), 247-259.

Butor, M., Elliott, R. G., & Lehmann, U. (2015). Fashion and the modern. *Art in Translation*, 7(2), 266-281.

Carlson, E. (2014). Cubist Fashion: Mainstreaming Modernism after the Armory. *Winterthur Portfolio*, 48(1), 1-28.

Carlson, M., & Lewis, S. C. (2019). Temporal reflexivity in journalism studies: making sense of change in a more timely fashion.

*Journalism*, 20(5), 642-650.

- Coser, I. (2017). Alison Settle, Editor of British Vogue (1926 - 1935): Habitus and the Acquisition of Cultural, Social, and Symbolic Capital in the Private Diaries of Alison Settle. *Fashion Theory*, 1-25.
- Evans, C. (2008). Jean Patou's American Mannequins: Early Fashion Shows and modernism. *modernism/modernity*, 15(2), 243-263.
- Forster, S. V. (2009). Connections between modern and postmodern art and fashion. *The Design Journal*, 12(2), 217-241.
- Kim, E. D., & Damhorst, M. L. (2013). US Fashion Trends in the 1980s: Postmodern and modern Styles of Dressing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13(2), 65-77.
- König, A. (2006). Glossy words: An analysis of fashion writing in British Vogue. *Fashion theory*, 10(1-2), 205-224.
- Kinney, L. W. (1999). Fashion and fabrication in modern architectur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58(3), 472-481.
- Lescaze, W. (1937). The Meaning of modern Architecture. *The North American Review*, 244(1), 110-120.
- Parkins, I. (2010). Fashion as methodology: rewriting the time of women's modernity. *Time & Society*, 19(1), 98-119.
- Plock, V. M. (2013). " I just took it straight from Vogue": Fashion, Femininity, and Literary Modernity in Rosamond Lehmann's Invitation to the Waltz. *MFS Modern Fiction Studies*, 59(1), 83-106.

- Rocamora, A. (2001). High fashion and pop fashion: the symbolic production of fashion in *Le Monde* and the *Guardian*. *Fashion Theory*, 5(2), 123-142.
- Rodríguez, C. C., Lorenzo, F. C., & Rojano, F. J. P. (2017). VOGUE magazine adaptation to the new digital context of fashion journalism. *Doxa Comunicación*, 24(1), 43-62.
- Prisco, D. D. (1982). Women and Social Change as Reflected in a Major Fashion Magazine. *Journalism Quarterly*, 59(1), 131 - 134.
- Sama, C. M. (2004). Liberty, equality, frivolity! An Italian critique of fashion periodicals. *Eighteenth-century studies*, 389-414.
- Slevin, T. (2013). Sonia Delaunay's Robe Simultanée: modernity, Fashion, and Transmediality. *Fashion Theory*, 17(1), 27-54.
- Soronen, A., & Mäntymäki, T. (2018). Gendering of success: fashion designers in designer stories in the Finnish lifestyle magazine *Gloria*. *Feminist Media Studies*, 18(2), 173-190.
- Stein, J. L. (2017). Exploring fashion and modernity in the invoices of Edward Livingston, 1891-1917. *Art Libraries Journal*, 42(1), 13.
- Tynan, J. (2002). Book Review: *Tigersprung: Fashion in modernity*. *Journal of Consumer Culture*, 2(3), 419 - 421.
- Van de Peer, A. (2015). Ghost-busting fashion: Symbolic boundaries and the politics of time in fashion journ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8(6), 595-611.
- West, E. (2011). A modern(ist) Mode: Fashion, 1910, and the Limits of modernism. *Word & Text: A Journal of Literary Studies*

& *Linguistics*, 1(2).

Wood, A. (2016). modernism, Exclusivity, and the Sophisticated Public of Harper's Bazaar (UK). *modernist Cultures*, 11(3), 370-388

## 5. 온라인 자료

다음백과. (n.d.). *쉽표*. *다음백과*. 2020년 7월 15일 검색, from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v130ha210a16>

정혜선. (2017.11.01). 모던이 되는 것 : 파리의 모마. *Vogue Korea*. 2020년 5월 12일 검색, from <http://www.vogue.co.kr/2017/11/01/being-modern-moma-in-paris/>

Arakas, I. (2000.04.01). Fashion: How to wear glitz. *Vogue*, 190, 394-394, 395, 396, 397, 398, 399. 2020년 5월 12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298321?accountid=146597>

Andre, L. T. (2003.04.01). Fashion: Spellbound. *Vogue*, 193, 90.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5848?accountid=146597>

ANDRÉ, L. T. (2006.05.01). FASHION: Life with andré. *Vogue*, 196, 72-72, 78. 2019년 2월 13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0743?accountid=146597>

Andre, L. T. (2007, Jul 01). Life with andré: "blithe spirit". *Vogue*, 197, 46-46, 48.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4802?accountid=146597>

: A new world. (2019, Nov 01). *Vogue*, 209, 132-132, 133, 134, 135, 136, 137, 163, 164, 165. 2020년 5월 12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319188420?accountid=146597>

- aphrodite. *Vogue*, 193, 478-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2019년 4월 27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5540?accountid=146597>
- À Tout de suit. (2007.03.01). *Vogue*, 197, 572-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1633?accountid=146597>
- Belcher, D. (2013.11.18). The Dinner Jacket Gets a Makeover.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3/11/19/fashion/the-dinner-jacket-gets-a-makeover.html?searchResultPosition=96>
- Bowles, H. (2003.03.01). Fashion: Goddess power: Mighty aphrodite. *Vogue*, 193, 478-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2019년 2월 13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5540?accountid=146597>
- Bowles, H. (2010.07.01). Fashion & features: Noble farewell. *Vogue*, 200, 142-142, 143, 144, 145. 2020년 5월 12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8830?accountid=146597>
- Colman, D. (2012.01.25). Showing a Little Restraint. *The New York Times*. 2019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2/01/29/fashion/mens-high-tops-for-sophisticated-fashion-tastes.html?searchResultPosition=1>
- Comita, J. (2002.10.01). Vogue view: Revamp, rethink, recycle. *Vogue*, 192, 197-197, 198, 200, 202, 204. 2020년 2월 13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0227?accountid=146597>
- Cover story. (2018.09.01). *Vogue*, 208, 586-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2019년 2월 13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113247723?accountid=146597>  
 Dyett, L. (2019.07.31). Fashion The Bralette Is Back. This Time  
 Blouses Are Optional.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9/07/31/fashion/  
 bralettes-bras-no-underwire.html?searchResultPosition=1](https://www.nytimes.com/2019/07/31/fashion/bralettes-bras-no-underwire.html?searchResultPosition=1)

Fashion: “Are clothes modern?”. (1945.02.01). *Vogue*, 105, 121-121,  
 122, 123, 172, 174.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904315008?accountid=146597>

FASHION: View: Ask mrs. exeter. (2006.05.01). *Vogue*, 196, 148. 2019  
 년 12월 2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0837?accountid=146597](https://search.proquest.com/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0837?accountid=146597)

Flash: It girl: Michelle obama. (2008.04.01). *Vogue*, 198, 145-145,  
 148.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  
 search.proquest.com/docview/879321961?accountid=146597](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1961?accountid=146597)

Flash: Talking fashion: Belles on wheels. (2008.10.01). *Vogue*, 198,  
 178.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5130?accountid=146597>

Friedman, V. (2015.12.11). FASHION Called Out for Copying, Chanel  
 Does the Right Thing.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5/12/12/fashion/called-  
 out-for-copying-chanel-does-the-right-thing.html?search  
 ResultPosition=886](https://www.nytimes.com/2015/12/12/fashion/called-out-for-copying-chanel-does-the-right-thing.html?searchResultPosition=886)

Friedman, V. (2016.05.23). MoMA Finally Embraces Fashion With  
 Plans for ‘Is Fashion Modern?’. *The New York Times*. 2020년  
 5월 12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6/05/21/  
 fashion/moma-finally-embraces-fashion-with-plans-for-is-](https://www.nytimes.com/2016/05/21/fashion/moma-finally-embraces-fashion-with-plans-for-is-)

fashion-modern.html

- Friedman, V. (2017.07.14). In France, Melania Trump Flies the Fashion Flag of Friendship.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7/07/14/fashion/melania-trump-brigitte-macron-paris.html?searchResultPosition=1>
- Friedman, V. (2018a.07.04). Fashion Getting Out the Youth Vote at Maison Margiela and Armani.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8/07/04/fashion/maison-margiela-galliano-armani-couture.html?searchResultPosition=228>
- Friedman, V. (2018b.12.04). Fashion The Power of the Yellow Vest.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8/12/04/fashion/yellow-vests-france-protest-fashion.html?searchResultPosition=189>
- Friedman, V. (2019.01.22). Fashion Walking the Fashion High Wire.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https://www.nytimes.com/2019/01/22/fashion/dior-chanel-couture-paris.html?searchResultPosition=175>
- Gay, J. (2009.04.01). In These Clothes, You Can Go Far.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09/04/02/fashion/02FITNESS.html?searchResultPosition=1>
- Givhan, R. (2000.10.01). Fashion: A man for all seasons. *Vogue*, 190, 404-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3151?accountid=146597>
- Guiducci, M. (2016.09.01). Talking fashion: All eyes on: Selena

- gomez. *Vogue*, 206, 462-462, 468. 2020년 2월 1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826078266?accountid=146597>
- Herman, J. (2006.10.01). View: Before night falls. *Vogue*, 196, 244-244, 246, 248. 2020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09949?accountid=146597>
- Herman, J. (2007.05.01). View: Sustainable Style—Can jeans be green? it's not easy being jeans. *Vogue*, 197, 136-136, 138. 2019년 4월 27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9575?accountid=146597>
- Heyman, M. (2003.03.01). Vogue view: This old house: Adolfo & galanos. *Vogue*, 193, 322.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5178?accountid=146597>
- Holt, E. (2011.04.01). View: Counterintuitive style: Size matters. *Vogue*, 201, 190-190, 192.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911906487?accountid=146597>
- Holt, E. (2014.01.01). View: Loose luxe: Beyond the basics. *Vogue*, 204, 54-54, 56. 2020년 2월 13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494678787?accountid=146597>
- Horyn, C. (2008.01.22). FASHION SHOWS It Never Hurts to Quote the Classics.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08/01/22/fashion/shows/22PARIS.html?searchResultPosition=68>
- Horyn, C. (2009.03.09.). Inside Dope, And a Flop.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일 검색. from <https://runway.blogs.nytimes.com/2009/03/09/inside-dope-and-a-flop/?searchResultPosition=1>

- Horyn, C. (2012.12.29.). First in Fashion.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2/12/30/fashion/michelle-obama-first-in-fashion.html?searchResultPosition=2>
- Horyn, C. (2014.01.22). Airy Enough to Take Flight.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4/01/23/fashion/couture-paris-fashion.html?searchResultPosition=1>
- I'm with her. (2016.09.01). *Vogue*, 206, 724-724, 725, 726, 727, 728, 729, 795, 796, 797. 2019년 2월 14일 검색.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826078359?accountid=146597>
- Index: Wedding guide: Marry, marry, quite contrary. (2008.06.01.). *Vogue*, 198, 196-196, 198, 199. 2020년 2월 13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911905366?accountid=146597>
- Kane, F. (2008.09.01). View: The masters: Romantic Blouse—Givenchy. *Vogue*, 198, 538. 2019년 2월 13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7019?accountid=146597>
- Kors, M. (2000.05.01). Nostalgia: The moving image: Michael kors. *Vogue*, 190, 74-74, 80.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04064?accountid=146597>
- Kotur, A. (2003.04.01). Fashion: Talking fashion: Trend of the month, lighten up. *Vogue*, 193, 178.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6274?accountid=146597>
- La Ferla, R. (2010.09.15). FASHION Brazen or Subtle, Mining the Past.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0/09/16/fashion/16TRENDS>.

html?searchResultPosition=56

La Ferla, R. (2017.04.29.). The Return of the Chaste Bride.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7/04/29/fashion/weddings-chaste-bride-bridal-carolina-herrera-ruth-negga.html?searchResultPosition=450>

searchResultPosition=450

Lankarani, N. (2013. 12. 09). A Luxury Phone Designed for Women. *The New York Times*. 2019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3/12/09/fashion/a-luxury-phone-designed-for-women.html?searchResultPosition=1>

Limnander, A. (2000.09.01). Vogue file: Striking matches. *Vogue*, 190, 398.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1729?accountid=146597>

Liu, M. (2017.11.30). Fashion For Wood, It's Time to Shine. *The New York Times*. 2020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7/11/30/fashion/jewelry-wood-boucheron.html?searchResultPosition=1>

L.Y. (2012.09.01). View: The modern fur lightness of being: With his airy rocker designs for revillon, andrew heather is shedding fur's dowdy elitism. *Vogue*, 202, 636-636, 638. 2020년 2월 13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081667759?accountid=146597>

Menkes, S. (2004.11.30). The cool-edged chic of a new Hong Kong.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04/11/30/style/the-cooledged-chic-of-a-new-hong-kong-2004113092710586943.html?searchResultPosition=1>

- Menkes, S. (2005.07.01). Style: The return of the gender gap.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05/07/01/style/style-the-return-of-the-gender-gap.html?searchResultPosition=27>
- Martin, J. (2005.10.02). Fur: the all-season Italian must.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05/10/02/style/fur-the-allseason-italian-must.html?searchResultPosition=1>
- Menkes, S. (2008.12.01). New knits define a rugged masculinity.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08/12/02/style/02iht-FSWEATER.1.18234300.html?searchResultPosition=1>
- Menkes, S. (2009.03.30). Out of Africa.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09/03/31/fashion/31iht-fafrica.html?searchResultPosition=4>
- Menkes, S. (2010.06.21). Zegna at 100: From the Alps to the World. *The New York Times*. 2019년 2월 13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0/06/22/fashion/22iht-rzegna.html?searchResultPosition=3>
- Menkes, S. (2014.03.04) FASHION Chanel's Supermarket Chic.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4/03/05/fashion/channels-supermarket-chic.html?searchResultPosition=479>
- Michault, J. (2010.07.20.). The Forecast? Partly Stylish.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0/06/21/fashion/21iht-rjess.html?searchResultPosition=134>

- Mod goddess. (2014.07.01). *Vogue*, 204, 110–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50, 151.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547831101?accountid=146597>
- Mower, S. (2001a, Aug 01). Fashion: Sexy classic. *Vogue*, 191, 244–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00532?accountid=146597>
- Mower, S. (2001b, Sep 01). Fashion: Covert pleasures. *Vogue*, 191, 656–656, 657, 658, 659, 714, 715. 2020년 2월 1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3734?accountid=146597>
- Mower, S. (2003.04.01). Fashion: Tank girl. *Vogue*, 193, 204–204, 206, 208.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07962?accountid=146597>
- Mower, S. (2004.12.01.). View: The case for flats. *Vogue*, 194, 222–222, 227, 228.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0171?accountid=146597>
- Mower, S. (2007.09.01). View: Extreme silhouettes: Going to extremes. *Vogue*, 197, 193–193, 194, 196. 2019년 4월 27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9326?accountid=146597>
- Mower, S. (2012.12). View: Dream team: Show of hands. *Vogue*, 202, 212.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270280743?accountid=146597>
- Mrs. exeter: Style council: Leave the meringue-skirted explosions of froufrou to the fairy tales. (2004.09.01). *Vogue*, 194, 484–484, 488.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

search.proquest.com/docview/879313203?accountid=146597

Neilson, L. (2014.04.04). The Few, the Brave: Men in Tights.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4/04/06/fashion/the-few-the-brave-men-in-tights.html?searchResultPosition=448>

Nnadi, C. (2012.12). View: Urban strokes. *Vogue*, 202, 220.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270280764?accountid=146597>

Oxford Living Dictionaries. (n.d.). modern. *Oxford Living Dictionari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modern>

Parker, L. (2019. 03. 21). Fashion Yes, You Can Play With Your Clothes.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9/03/21/fashion/adhd-fidget-fashion-.html?searchResultPosition=150>

Paton, E. (2018a.01.08). Fashion London Men's Wear Shows Reflect on Race and Masculinity.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8/01/08/fashion/london-wales-bonner-charles-jeffrey.html?searchResultPosition=>

Paton, E. (2018b.10.12). Fashion Why Princess Eugenie's Peter Pilotto Wedding Dress Was a Thoroughly modern Choice.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8/10/12/fashion/princess-eugenie-peter-pilotto-wedding-dress.html?searchResultPosition=204>

Paton, E. (2019a.10.06). Extinction Rebellion Takes Aim at Fashion.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



[www.nytimes.com/2019/10/06/fashion/extinction-rebellion-fashion-protest.html?searchResultPosition=57](http://www.nytimes.com/2019/10/06/fashion/extinction-rebellion-fashion-protest.html?searchResultPosition=57)

- Paton, E. (2019b.11.26). The Hoodie Enters the Museum. *The New York Times*. 2020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9/11/26/fashion/hoodies-museum-exhibit-rotterdam.html?searchResultPosition=19>
- Phelps, N., Freeman, L., Nnadi, C., & Singer, M. (2019.11.01). : Community service. *Vogue*, 209, 114-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62, 163.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319188422?accountid=146597>
- Remsen, N. (2017.10.01). Talking fashion: Putting on A show. *Vogue*, 207, 198-198, 200.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955382941?accountid=146597>
- Safronova, V. (2017.06.06). Would You Buy a Plastic Suit From Stella McCartney? *The New York Times*. 2019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7/06/06/fashion/stella-mccartney-parley-ocean-plastic.html?searchResultPosition=417>
- Schneier, M. (2015.03.08). In Paris, Jeanne Lanvin's Sleeping Beauties.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5/03/09/fashion/at-paris-fashion-week-jeanne-lanvin-exhibition-alber-elbaz.html?searchResultPosition=1>
- Schneier, M. (2016a.01.06). Grindr, the Gay Dating App, Hooks Up With Fashion.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3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6/01/07/fashion/grindr-the-gay-dating-app-hooks-up-with-fashion.html?searchResultPosition=7>

- Schneier, M. (2016b.06.08). FASHION Jonathan Anderson Taps ASAP Rocky, Fan Turned Collaborator.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6/06/09/fashion/jonathan-anderson-asap-rocky-jw-anderson.html?searchResultPosition=717-->
- Singer, M. (2017.03.01). The great beauty shake-up. *Vogue*, 207, 436-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506.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877704147?accountid=146597>
- Singer, S. (2000.10.01). Vogue point of view: A fine vintage. *Vogue*, 190, 387-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478, 479.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3108?accountid=146597>
- Singer, S. (2005.05.01). View: Diamond life: The ice woman cometh. *Vogue*, 195, 117-117, 118. 2019년 12월 2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5449?accountid=146597>
- Singer, S. (2007.01.01). Vogue point of view: Smart moves. *Vogue*, 197, 137-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2019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1080?accountid=146597>
- Sozzani, F. (2011.02.02). What does being "modern" mean. *Vogue Italia*. 2019년 12월 24일 검색, from <https://www.vogue.it/en/magazine/editor-s-blog/2011/02/february-25th>
- Sullivan, R. (2011,03.01). Fashion & features: Tech mate. *Vogue*, 201, 522-522, 523, 524, 525, 526, 527. 2019년 4월 1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911905846?accountid=>

146597

- Sykes, P. (2000. 01. 01). Vogue point of view: Divine inspiration. *Vogue*, 190, 169-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904351922?accountid=146597>
- Talbot, L. (2011, Sep 01). View: Style ethics. *Vogue*, 201, 584. 2019년 4월 27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911906393?accountid=146597>
- Talking fashion: All that glitters. (2017.12.01). *Vogue*, 207, 150. 2020년 2월 13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978656968?accountid=146597>
- Talking fashion: Vogue girl of the moment: Cate blanchett. (2003.12.01). *Vogue*, 193, 121. 2019년 12월 2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5275?accountid=146597>
- The Halo Effect. (2018. 03. 01). *Vogue*, 208, 348-348, 349, 434, 435. 2019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023597507?accountid=146597>
- : The man who styled the world. (2019.06.01). *Vogue*, 209, 110-110, 111, 112, 113, 147, 148, 149.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269821493?accountid=146597>
- Thesaurus. (n.d.). modern. *Thesaurus.com*. 2020년 5월 12일 검색, from <https://www.thesaurus.com/browse/modern?s=t>
- Trebay, G. (2015.06.18). Nino Cerruti's Stylish Life, Told Through His Clothing. *The New York Times*. 2019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5/06/19/fashion/mens-style/pitti-uomo-mens-fashion-week-spring-2016-nino-cerruti.html?>

searchResultPosition=167

Trebay, G. (2017.06.27). MEN'S STYLE American Chic on the Runways of Paris. *The New York Times*. 2019년 12월 2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7/06/27/fashion/mens-style/men-spring-2018-paris-louis-vuitton-valentino.html?searchResultPosition=399>

Trebay, G. (2019.06.17). Men's Wear, With the Earth in Mind. *The New York Times*. 2020년 3월 5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19/06/17/fashion/marni-ermenegildo-zegna-milan-mens-spring-2020.html?searchResultPosition=109>

V life: Fashion culture beauty: Fashion: Across the divide. (2019.09.01). *Vogue*, 209, 312-312, 316. 2020년 2월 13일 검색,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308357718?accountid=146597>

Wikipedia. (2019.01.26). 모더니즘. *Wikipedia*. 2019년 12월 24일 검색,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B%AA%A8%EB%8D%94%EB%8B%88%EC%A6%98>

Wikipedia. (2020.06.28). modernity. *Wikipedia*. 2020년 7월 1일 검색, from <https://en.wikipedia.org/wiki/Modernity>

Wikipedia. (2020.07.17). The New York Times. *Wikipedia*. 2020년 7월 18일 검색, from [https://en.wikipedia.org/wiki/The\\_New\\_York\\_Times](https://en.wikipedia.org/wiki/The_New_York_Times)

Williams, A. (2014.10.31). The Political Power Watch Stops Ticking. *The New York Times*. 2020년 3월 5일 검색. <https://www.nytimes.com/2014/11/02/fashion/the-political-power-watch-stops-ticking.html?searchResultPosition=284>

Wilson, E. (2007.05.03). Neon's Back. Curb Your Enthusiasm. *The*

-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07/05/03/fashion/03NEON.html?searchResultPosition=1>
- Wilson, E. (2008.11.12). The Return of the Interview Suit. *The New York Times*.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www.nytimes.com/2008/11/13/fashion/13INTERVIEW.html?searchResultPosition=44>
- Woods, V. (2000.07.01). Features: Cate modern. *Vogue*, 190, 176-176, 177, 178, 179, 180, 181, 218, 219. 2019년 4월 1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97875701?accountid=146597>
- Woods, V. (2009.03.01). Fashion & features: Power monarch: Royal appeal. *Vogue*, 199, 440-440, 441, 442, 443, 505. 2020년 2월 14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97877174?accountid=146597>
- Yaeger, L. (2007.10.01). View: Balmain's new designer: Balmain nouveau. *Vogue*, 197, 254-254, 256. 2019년 4월 27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2963?accountid=146597>
- Yaeger, L. (2013.08.01). View: Counter measures: 3. let the fur fly. *Vogue*, 203, 114-114, 116. 2020년 5월 12일 검색,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427018210?accountid=146597>

## 6. 사진출처

[그림 1-1] <http://www.riss.kr/foreign/vogue.do>

[그림 2-1]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1080?accountid=146597>

- [그림 2-2] <https://www.nytimes.com/2017/06/27/fashion/mens-style/men-spring-2018-paris-louis-vuitton-valentino.html?searchResultPosition=399>
- [그림 2-3] <https://www.nytimes.com/2014/01/22/fashion/chanel-shows-sneakers-with-couture-collection.html?searchResultPosition=526>
- [그림 3-1]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09949?accountid=146597>
- [그림 3-2]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4442?accountid=146597>
- [그림 3-3]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025257526?accountid=146597>
- [그림 4-1]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081667759?accountid=146597>
- [그림 4-2]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8830?accountid=146597>
- [그림 4-3]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978656968?accountid=146597>
- [그림 5-1]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16274?accountid=146597>
- [그림 5-2]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911905366?accountid=146597>
- [그림 6-1]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3108?accountid=146597>
- [그림 6-2]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879325130?accountid=146597>
- [그림 6-3] <https://www.nytimes.com/2018/12/04/fashion/yellow-vests-france-protest-fashion.html?searchResultPosition=189>

- [그림 7-1]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826078266?accountid=146597>
- [그림 7-2] <https://www.nytimes.com/2012/12/30/fashion/michelle-obama-first-in-fashion.html?searchResultPosition=2>
- [그림 7-3]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269821493?accountid=146597>
- [그림 8-1]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1877704147?accountid=146597>
- [그림 8-2]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319188420?accountid=146597>
- [그림 9-1] <https://www.nytimes.com/2015/12/12/fashion/called-out-for-copying-chanel-does-the-right-thing.html?searchResultPosition=886>
- [그림 9-2] <https://www.nytimes.com/2016/01/07/fashion/grindr-the-gay-dating-app-hooks-up-with-fashion.html?searchResultPosition=7>
- [그림 10-1] <https://www.nytimes.com/slideshow/2018/01/08/fashion/runway-mens/craig-green-fall-2018.html>
- [그림 10-2] <https://www.nytimes.com/2018/07/04/fashion/maison-margiela-galliano-armani-couture.html?searchResultPosition=228>
- [그림 10-3] <https://www.nytimes.com/2019/03/21/fashion/adhd-fidget-fashion-.html?searchResultPosition=1>

Abstract

#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Modern in Fashion Media.

Hye Jin Nam

Dep.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of the most common words used to describe new item or phenomenon of contemporary fashion is the term “modern.” The word contains something more than a simple temporal concept of modern times, but its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are ambiguo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modern in the contemporary fashion media of the 21st-century, taking modern as a phenomenon to reflect newness of the times and pursue something new different from the past.

The research aims are as follows. First, it would identify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modernity,” and “modernism.” Second, it woul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ression “modern” in fashion. Third, it would identify the meaning of “modern” in contemporary fashion media.

As for methodology, the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related studies and publications to understan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modernity, and modernism and performed content analysis to analyze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modern in the modern fashion media of the 21st-century. The specific scope of research included articles under the keyword of “modern fashion” in the The Vogue Archive and New York Times between January 1, 2000 and December 31, 2019.

The results were analyzed in the following specific ways. First, words were found identified as synonyms or antonyms to modern in fashion-related articles to analyze their collocation relations, and synonyms and antonyms to modern as a daily term were compared to identify the specific meanings of modern in fashion. Second, fashion items and trend depicted as modern were analyzed in their formativeness, ways of putting, characteristics of celebrities and the lifestyle trend. Finally,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se analyses, figure out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modern in 21st-century fashion media.

The results of the various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were manifested in line with changes to science, industrialization, and the times, reflecting changes to the ways of thinking and attitudes. They contained official originality and were not restricted to certain periods. Modernity referred to the consciousness of the times for people to understand themselves. Social changes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science changed the identity of each individual, who looked at him or herself in relation to the changes, development, and history of his or her communit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odernism made use of innovative new and unprecedented materials and featured geometric forms, conciseness, and non-decorativeness. They reflected the ways of thinking and attitudes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and changes of the times and tended to believe the values of functions and rationality and move toward internationalization due to mass production and standardization. And secondly, the representativ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modernism in the fashion of the 19th and 20th century were standardization for mass production, rationalistic functionality, pursuit of universality in beauty, and practical and simple tendency.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ty in fashion were fundamentally based on the collapse of the old rules and the rapid flow around the world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encompassing a tendency toward similarity and equality due to mass production, expression of contradicting desire between natural harmony and conspicuousness, pursuit of light and flexible movement, and direction of protecting or distancing oneself from the eyes of others and refusing to display the traces of decoration. In fashion, newness was created by reflecting on the past or combining the present with the past, sought after originality not found in the past, and signified ongoing unsatisfied changes. In the end, this temporal attribute made fashion play an essential role as a medium between the society and individuals. That is, the temporality

of fashion was a major taste of modernity. In fashion, the meanings of modernity varied according to times lik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pursuit of capricious newness was one of major elements that made fashion something valuable to reflect people's lives, social changes, and psychology of the public.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modern in the fashion media of the 21st century were as follows.

Firstly, based on the analysis of synonyms and antonyms used for the term "modern" in contemporary fashion media, the concept of modern was defined as a way of expressing practical or original forms or functions in delicate, sophisticated or natural manners with no frills based on the analysis of its synonyms and antonyms used in fashion.

Secondly, modern signified originality born out of borderless fusion and compromise, meaning a combination between heterogeneous elements and between the tradition and the modern, a combination highlighting the advantages of different materials, and a middle path of not looking too new or feminine. It was also expressed to signify diversity and acceptance, regardless of conventions, TPO, areas, race, seasons, time, and gender.

Thirdly, modern meant functionality encompassing the comfort of body and mind. It was used to refer to convenient mobility and activity fit for the lifestyle of modern people that were busy and moving fast. Short silhouettes and the exposure of legs made everything look modern and sporty with an aesthetic perspective focused on activity. A new phenomenon emerged in which modern

was used to express the fashion reflecting the psychology of people that felt alienated or anxious in the society and crowd and wanted to protect themselves or feel stable. It expressed people's desire for safety in the forms of hoods or headgear covering up the face or body completely and oversized blankets and tents and in the meaning of armor. It also took the form of fidget accessory that individuals could keep touching to feel stable when they had no cell phone in their hands or were anxious. In the 21st-century, modern people were living under enormous stress, and fashion made a contribution even to their mental health beyond its pursuit of beauty.

Fourthly, lightness and naturalness were used as new meanings of beauty in modern fashion media. In the modern fashion of the 21st-century, the principal meaning of modern was lightness, which was sought after in everything including materials, modes of wearing, and ways of thinking. It meant seemingly effortless chic, comfort, simplicity, and practicality. Positiveness about natural ways of appearance themselves were also expressed as modern, which meant that people would reveal their true appearances without trying to hide their disadvantages or weaknesses and be positive about their natural body changes due to aging. They were characterized by their strong pursuit of their own satisfaction instead of others' viewpoints.

Finally, modern fashion was expressed as a democratic tool for social reform and used in the meaning of enlightenment to benefit the society as well as oneself in modern media. People's ethical consciousness of the environment and their awareness of sustainability led to eco-friendly fashion using natural materials,

recycling, and organic materials, application of handicraft-like traditional skills, and upcycling phenomenon of vintage garments. In the fashion of the 21st-century, modern had a new major meaning of protesting or resisting social irrationalities. It resulted in a fashion of the same color for a group to oppose sexual violence, raise social complaints including rising fuel prices and income inequality, and rebel against the fashion industry destroying the environmen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modern in contemporary fashion embodied changes to the ways of thinking and lifestyles of the public and their desire for something new and constantly creating within the fluidity of modern society in detailed manners.

The findings of the study have significance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ly, new changes happening in the contemporary fashion of the 21st-century are ambiguous with their characteristics yet to be defined synthetically. The present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has shed light on the originality and meanings of new fashion in the changing flow of the times rather than certain details and appearance features themselves considered to be modern in contemporary fashion and examined its practical meanings through media analysis instead of literature review.

Secondly, fashion texts provide concrete materials to depict specifically the diverse cultural messages of fashion that cannot be delivered fully via images and figure out the senses of the times, technological changes, and new values at multiple angles. The analysis of fashion texts will hold industrial significance by offering

practical data to plan fashion products according to the trends.

Finally, the present study analyzed terms mainly used in modern fashion media at multiple angles, thus claiming its academic significance by proposing an approach to what is most sought after by today's fashion and consumers and changes of lifestyles and aesthetic perspectives in very detailed and clear ways.

In short, modern in contemporary fashion media was used as a term to depict an array of characteristics beyond the concept of time and the meaning of vogue including the aesthetic, function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styles and modes of appearance and social and cultural changes. Modern makes it possible to express such diverse things in a word, and its usage will continue on in fashion until a new word emerges to replace it. Continuously changing trends, lifestyles, and psychology of modern people may, however, grant different meanings to modern, and its possibilities for such changes are open.

**keywords : modern, modernity, modernism, fashion media,**

**Vogue, The New York Times**

***Student Number : 2016-30461***